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

22

군선교, 청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 3).

☞ 비전2030 실천운동 공동기도문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하시고
국군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청년선교와 민족복음화의 꿈이 담긴 비전2030 실천운동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한국교회와 군인교회가 하나되어
이 소중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민족·인류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1999년 2월 26일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복음화와 인류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회의 등 군선교사역과 관련된 각종 행
사 시 공식순서에 포함하여 함께 낭독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생명력 있는 군선교사역 합심기도 제목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 군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 방해는 모든 악한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고
2. 2030년까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위하여
3. 10만 명의 기독교장병 (신규 6만 명, 기세레자 4만 명)을 파송하기 위하여
4.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 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하게 하시며
5. 260여 군종목사, 650여 군선교사, 기독교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사역을 인도하시며
6. 장병들의 병영 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랑한 생활로 기독교문화가 확산되게 하시며
7. 모범 국민 육성 및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이루어 주시며
8. 군선교 거점교회를 통해 파송되는 장병을 양육하고 정착하여 군선교 후원과 지원을 위하여
9. 기독교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 훈련(다음세대, 미래세대, 차세대) 기독교청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며
10.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 ● 머리말

군선교는 언제나 ‘역사’ 속에서, ‘역사’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6·25 전쟁의 한복판에서 한 무명의 카투사가 쓴 편지가 도화선이 되어, 군에 정식으로 군중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이후 군선교는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군에 입대한 청년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두 가지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큰 변화의 파도 속에 있습니다. 용사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허락되었고, 종교활동은 ‘인권’이라는 벽에 부딪쳤습니다. 이 많은 변화는 오늘 군선교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집필한 ‘E. H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군선교가 겪는 위기는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과거의 행적 속에서 우리가 빼먹고 지나온 것은 없는지 치밀하게 살펴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군에는 젊은 청년들이 입대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가슴에 흘러간 복음은 국군 장병들의 강한 사생관을 확립시킬 것이고,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에서는 정전 70주년을 돌아보고, 70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 속에서 복음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든든한 방패가 됐습니다. 한미 동맹을 통해 지켜진 평화 속에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미래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살펴보고 이 위에서 어떻게 복음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이어가야 합니다. 특히 한·미 동맹과 연합 전시 군중활동을 이해하고, 강화 방안을 찾아가는 작업은 꽤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군선교신학회는 매년 군선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학적으로 논증함으로써 군선교의 지경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흘린 연구위원들의 노력은 분명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심포지엄과 함께 발행되는 군선교신학회 논문집 22권을 통해 군선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길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힌트’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유일의 군선교신학회 회장으로 물심양면 섬겨 주시는 곽요셉 목사님, 군선교신학 연구와 정립을 위해 힘써 주시는 연구위원들과 군선교연합회 사역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장 / 기독교군종교구장

김삼환 목사

● ● 발간사

올해는 한미 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대한민국과 미국은 동맹을 체결하였고, 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딛고 세계 유례가 없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인류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은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평화에는 강한 힘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특히 군인들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사생관을 가진 군대를 가진 나라의 평화는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은 '신앙동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로 인해 대한민국에 자유와 연대의 가치가 전파됐고, 이것이 헌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한국에 병원과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었기에 한미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의 순간마다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희생'은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 군종목사들의 연합은 '평화유지'와 함께 '군선교 차원'에서도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변화를 감지하고, 서로의 장점을 닮아 나갈 때 평화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선교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파생되는 어려움을 능히 헤쳐 나가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점에서 금번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전이 필요하고, 작전을 바탕

으로 전술이 현장에서 응용된다. …군선교라 지칭하면서 군전도 차원으로 선교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강조하는 김철우 목사님(한미연합사 군종실장)의 기조강연(“Words matter”)이 인상 깊습니다. 우리가 ‘군선교’를 하면서도 그저 군전도 차원에서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제 논문에 담긴 ‘주장’들은 군선교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이 ‘아이디어’를 얻고, 사역에 참고하기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군선교신학회 위원들의 제 논문들을 통해 부디 현장의 답답함이 해소되고 군선교의 지평이 더욱 넓혀지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녕 해가 거듭될수록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을 통해 제시되는 성서적 복음적 신학적 숙고와 통찰이 군선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진중군인교회의 부흥을 견인하여 군선교를 통한 나라복음화의 폭과 넓이를 확장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군선교, 청년」을 읽는 모든 분들과 귀한 옥고를 발제하여 주신 논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2023년 10월 24일
한국군선교신학회장
곽요셉 목사

● ● 차례

- 비전2030 실천운동 공동기도문 ... 2
- 머리말 | 김삼환 목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장 / 기독교군종교구장) ... 4
- 발간사 | 곽요셉 목사(한국군선교신학회장) ... 6

심포지엄 논문

- 13 기조강연 Words matter! | 김철우

- 23 주제1 평화를 이루는 한미 연합 전시 군종활동
강화 방안(지정토론회) | 주연중

- 25 주제2 초기 성인기에 있는 용사들의 치유를 위한
목회적 돌봄 | 안남기

- 62 논찬2 안남기의 논문 “초기 성인기에 있는 용사들의
치유를 위한 목회적 돌봄”에 대한 논찬 | 김택조

연구위원 논문

- 73 바이킹의 회심에 함유된 신학적 시사점 | 이규철

- 107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 | 전요섭

외국 논문

137 Military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 Denise C. Cooper, 번역: 전요섭

일반 논문

179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본 군선교 전략 연구

| 오희준

211 진정한 강군(強軍)이 되기 위한 군종의 역할

| 정대호

부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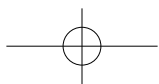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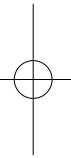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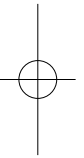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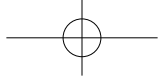
246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규칙

252 군선교신학회 연구윤리 규정

256 군선교신학회 논문투고 규정

부록 2

264 군선교신학논문집 출판현황(2002년~2023년까지)



심포지엄 논문

기조강연

Words matter!

| 김철우 |

주제1

평화를 이루는 한미 연합 전시 군중활동 강화 방안(지정토론회)

| 주연중 |

주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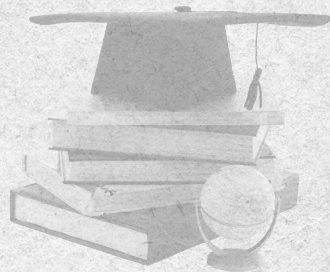
초기 성인기에 있는 용사들의 치유를 위한 목회적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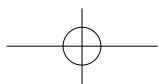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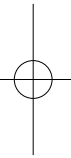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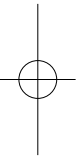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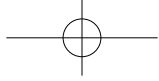
| 안남기 |

논찬2

안남기의 논문 “초기 성인기에 있는 용사들의 치유를 위한
목회적 돌봄”에 대한 논찬

| 김택조 |







Words matter!

» 김철우 M.A.*

Words matter; therefore, we should choose our words carefully. During one of my field training exercise, we debated the definition of the word neutralize. Its original meaning, to render the enemy ineffective, was hotly debated for three hours during a commander and staff mission briefing. We intended to accurately express our commander's original intent. The debate centered around an understanding of at what point an enemy is neutralized. Was it when we destroyed a percentage of their combat capability or when we had inflicted enough loss for them to lose their will to fight? After our debate, we settled on a different word that accurately captured the commander's desired intent. Words matter in war.

Words matter! Therefore, when we talk about military ministry, using the right words can lead us in different directions.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military missions and military

• 논문 투고일: 2023년 9월 18일 • 논문 수정일: 2023년 9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23년 9월 22일

* 한미연합사 군종실장, UNC / CFC / USFK Command Chaplai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M,div.)

evangelism. When we hear military evangelism, our mental images are filled with evangelism festivals organized by our churches for communities who look, sound, and think like we do to come to our church and hear the gospel. On the other hand, military missions conjure images of mission conferences with our overseas missionaries who work with people who do not look, sound, or think like we do to share stories about the joys and frustrations of cross-cultural ministry.

Missions and evangelism are both in the heart and mind of our eternal God of glory and are essential to bringing His chosen people to salvation through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y differ, however, in their target audience and their approach. While evangelism is tactical in its focus on people who look, sound, and think like us, mission is a strategic operation that provides tactics and guidance to our efforts. This is why we use military missions instead of evangelism when discussing chaplaincy. Words matter when we speak of military chaplaincy; therefore, it is worth reconsidering how we conduct military missions within the framework of military evangelism.

In Daegu, there is a place called Cheongra Hill, meaning green ivy, that was the home of the first generation of missionaries when they came to Korea in the 1880s. Recently, I climbed that hill, and I could still feel the passion of the early missionaries who embraced Korea with the heart of Christ despite the spiritual

depravity that prevailed i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Their fervent love for Jesus led them to fully embrace the Korean people and culture even though Korea remained largely unchanged. They were missionaries who evangelized. They built hospitals, schools, and churches, awakened the uneducated people, and embraced Korea with the heart of Christ.

Their enduring love for Jesus and Korea awakened a nation from its spiritual slumber. Their strategic vision for God's plan for the nation and the people near and dear to the heart of God is one reason we proudly stand among the world's leading nations. We are grateful for their dedication. In the same way that those early missionaries embraced the peaceful land of Joseon with the heart of Christ, we must embrace the military with the same missionary zeal. There is talk that the place of military missions is gradually shrinking, and windows of opportunities are waning. Are our nation and our military being challenged by the rise of the NONEs(people with no religious affiliation in the United States)? This new generation is digitally connected and politically skeptical in our increasingly divided society.

This new generation is incredibly challenging for a military entrusted by our society tasked with protecting the freedom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in transition. Military culture requires physical and mental strength to fulfill its sacred duty. Our societal change has several catalysts. One is the emergence of

military human rights movements. They seek to demote soldiers from being military professionals to being just another civilian organization that needs protection from itself. This is also the case in the United States. If trainees experience excessive stress, the human rights movement demands they get a reprieve from rigorous training. While this might be fine on the football pitch, our enemy will not blow its whistle and offer our soldiers a water break in combat.

While some organizations are trying to reduce the combat effectiveness of our soldiers, my three combat deployments have taught me the power of chaplains as military missionaries offering soldiers faith and the strength of spirit to overcome unspeakable horrors. Unleashing the human spirit through faith is the most significant combat power a nation can give its people and soldiers. The war in Ukraine has shown us that real combat power (RCP) is an equation where tangible combat power (TCP) is multiplied by intangible combat power (ICP) to give us RCP. We saw this during the Korean War at the Battle of Nakdong River. Military human rights groups discourage commanders from addressing the importance of encouraging soldiers to explore their spiritual lives and religious activities under the guise of protecting their soldiers' rights to choose not to be religious.

Had we been carrying out military missions in a military evangelism manner, we would have been better equipped to

address the questions and concerns of a third of our nation who identify as non-religious affiliated or Nones. In the missionary spirit of those who fell in love with Korea, today is the day to commit ourselves to changing the words to reflect our strategic imperative better. Our soldiers want more and deserve more than a chocolate pie and a pat on the back. If we ar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our soldiers, we need a missionary strategy that encompasses the whole person, including military evangelism. Like those pioneering missionaries, we must embrace a people, language, and culture that increasingly feels foreign to us with the heart of Christ. We must embrace the entire military, including the Nones.

Suppose we view only the soldiers who attend our military church as God's image bearers. In that case, we need a fresh vision and strategy that embraces all soldiers, whether they attend Mass, go to Buddhist temples, or have no interest in religious activities. It is time to revisit the strategy used by the early missionaries who tirelessly embraced all Daegu citizens, regardless of the weather or hardships they faced on Cheongra Hill. Military missions must regain trust and a good reputation across the military and society. Military missions must be welcomed by the military and by every member therein. Let us embrace the military and serve the military!

The environment for military evangelism has not suddenly

deteriorated. It gradually deteriorated as a strong undercurrent in our society, but we failed to detect the subtle changes over time. More than tactical operations are required to respond to strategic changes. We desperately need a new level of strategy for military missions that appropriately respond to this constant change.

May our great God, greater than the universe, add grace to the new military mission's strategy that embraces the entire military. The new strategy will set the conditions for a feasible, desirable, and sustainable environment for military missions where religious activities are encouraged and promoted freely without fear of investigation by military human rights groups. Words matter, so I leave you with a proverb, "The best time to plant a tree was twenty years ago, and the second-best time is today."

단어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어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한번은 야전 훈련 중 '무력화'라는 단어의 정의를 놓고 지휘관과 참모들이 무려 세 시간에 걸쳐서 논의했다. 지휘관의 원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군작전 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논의는 적을 어느 시점에 무력화가 되는 것인지에 중점을 두었다. 적의 군사력을 어느 정도 파괴했을 때 무력화했다 할 수 있을까? 적의 전투 의지력을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입혔을 때 무력화했다고 할 수 있을까? 토론 끝에 우리는 지휘관의 원하는 의도를 더 정확하게 담아낼 다른 단어로 바꾸었다. 단어 선별은 전쟁에서 중요하다.

단어는 중요하다! 따라서 군 사역에 대해 얘기할 때 올바른 단어

를 사용하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선교와 전도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전도 축제라는 단어를 들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와 비슷하게 생기고 말하고 생각하는 교회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을 연상한다. 반면, 선교대회는 우리의 우리와 다른 문화 속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을 초청해 현장에서의 생생한 기쁨과 도전을 들으며 위로 및 격려해 주는 행사로 떠올릴 것이다.

선교와 전도는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대상 및 접근 방식에서 사뭇 다르다. 전도는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소리를 내며 생각하는 사람에게 중점을 둔다면, 선교는 좀 더 포괄적인 전략적인 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군전도 대신 군선교를 사용하는 이유이다. 군 사역에 대해 얘기할 때 단어 선별은 중요하며, 따라서 군전도 프레임 내에서 군선교를 어떻게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지 다시 고려할 가치가 있다.

대구에는 1880년대 한국에 온 초대선교사들의 머물렀던 녹색 담장이 넝쿨이 있어서 ‘청라언덕’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최근에 나는 그 언덕을 오르면서 조선 땅에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적 타락이 만연하였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국을 포용한 초기 선교사들의 열정을 아직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열정 넘치는 예수 사랑은 비록 많은 변화가 없어도 꾸준하게 한국인들과 문화를 완전히 포용하였다. 그들은 전도한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은 병원, 학교 및 교회를 건설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일깨웠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국을 품었다. 그들

의 변함없는 예수 사랑과 한국에 대한 끈질긴 사랑은 조선을 영적 잠에서 깨웠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선 전체를 품었던 그들의 전략적 비전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 중 하나로 자랑스럽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많은 세월이 흐른 오늘도 우리는 그들의 헌신에 감사한다.

초기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포용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선교 열정으로 군대를 포용해야 한다. 군 선교 현장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기회의 창문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군뿐만 아니라 현대사회가 'NONEs'(people with no religious affiliation in the United States, 탈종교시대에 아무런 종교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 등장으로 새로운 도전과제가 되었다. 이 새로운 세대는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으며 점점 분열된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회의적이기도 하다.

이 새로운 세대는 자유와 번영을 보호하라는 사회의 임무를 받은 군대에게 특히 도전적이다. 군은 그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강한 군인을 요구한다. 우리 사회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군인권회의 등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군인다운 군인에서 오히려 보호받아야 하는 일반 시민 조직으로 전락시키려고 한다.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훈련생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군 인권에 따르면 엄격한 훈련에서 잠시 열외되기도 한다. 이것은 축구 경기장에서 관찮을지 모르지만, 전투 상황에서는 적이 호루라기를 불고 나약한 아군에게 물을 마실 씬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조직들은 군인들의 전투 능력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나의 세 차례의 파병 경험은 군목으로 군인들에게 말로 형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과 영적인 힘을 제공하는 군선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었다. 신앙전력화는 국가와 국민이 군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투 능력이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현실적인 전투력을 유출해 내는 “실질적인 전투력=유형전투력x무형전투력”이라는 방정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쟁 중 낙동강 전투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군 인권 단체는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명분 아래에서 영적 생활과 종교 활동을 강조하고 격려해야 하는 지휘관들의 임무를 꺼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만일 군전도 방식으로 군선교를 수행했다면, 우리는 종교와 연관이 없는 1/3에 해당하는 논스그룹의 질문과 우려를 더 잘 다룰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 사랑에 초대 선교사님들처럼 빠진 급변해가는 세상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전력적 각오가 있어야 한다. 우리 군인들은 초콜릿 파이와 단순한 격려 이상을 원하고 있으며 나라의 자유와 번영을 수호하는 그들은 (모두)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 군인들의 삶에 변화를 주려면 군전도를 포함한 전체 인격을 아우르는 군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초기 선교사들이 모든 것들이 낯선 조선을 품었던 것처럼 논스그룹을 포함한 모두 어색한 군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어야 한다. 만약 우리 군교회에 참석하는 군인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미사에 참석하는 군인뿐만 아니라 법당을 찾는 군인들과 종교 활동에 관심이 없는 군인을 포함한 모든 군인을 받아들이고 품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선풍기 없던 대구 날씨뿐 아니

라 청라언덕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상관없이 모든 대구 시민을 끈질기게 품었던 초기 선교사들이 사용한 선교전략을 재고할 때이다. 군선교는 군대와 사회 전반에서 신뢰와 명성을 회복해야 한다. 군선교는 군대와 그 구성원 모두에게 환영을 받아야 합니다. 군을 통채로 품고 섬기도록 하자!

군전도 환경은 갑작스럽게 나빠지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쉽 없이 흘렀던 지하류로 서서히 악화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묘한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전략적 변화에 대응하려면 전술적 작전 이상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지속적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새로운 수준의 군선교 전략이 절박하게 필요하다. 우주보다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군 전체를 포함하는 새로운 군선교 전략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군에서 종교 활동이 군인권회의 조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장려되고 촉진되는 조건을 설정할 것이다. 말은 중요하다. 그래서 끝으로 속담 하나를 남기며 글을 마칠까 한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고,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오늘입니다.”

논문 기고자 Email

Chulwkim@yahoo.com



평화를 이루는 한미 연합 전시 군중활동 강화 방안 (지정토론회)

» 사회 : 주연중 Ph. D.

◎ 지정토론자 1: 권수영 교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 동맹이 가지는 한반도 평화 유지에 있어서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미 동맹의 평시 안정 기능과 전쟁방지 기능을 중심으로)

◎ 지정토론자 2: 김선영 교수

한미연합작전과 한미연합 전시 군중활동의 바람직한 상관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작전교리와 군 운용 방안 등에 기반한 군중활동의 측면에서)

◎ 지정토론자 3: 김상만 교수

분쟁 혹은 국지전 상황에서의 한미연합 작전 간 민간 교회 및 목회자와의 바람직한 협력 방안은 무엇일까요? (향토 예비군 운용, 지역에서의 연합 작전 시 유언 비어 차단, 가치관 교육 등, 민간교회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민사작전 개념으로)

◎ 지정토론자 4: 이재은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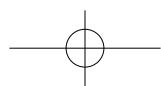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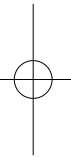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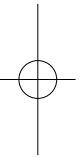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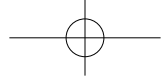
한미연합작전 및 한미 군중활동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이라크 파병의 실 경험을 중심으로)

◎ 지정토론자 5: 이석영 군중목사

현, 한미연합작전의 핵심가치와 전시의 연합 군중활동의 요체는 무엇일까요? (군사비밀을 제외한 공개 가능한 현재 수립된 계획을 중심으로)

◎ 지정토론자 6: 김택조 군중목사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작전 계획의 핵심과 이에 따른 군중활동 방안은 무엇일까요? (군사비밀을 제외한 공개 가능한 현재 수립된 계획을 중심으로)





초기 성인기에 있는 용사들의 치유를 위한 목회적 돌봄

Pastoral care for Healing of Soldier in early adulthood

» 안남기 Ph. D.*

국문초록

이 연구는 초기 성인기에 있는 용사들 특히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용사들의 치유를 위한 목회적 돌봄을 모색한 것이다. 1장에서 대부분의 군입대 초기 복무부적응 증상이 나타나는 용사들은 생애 초기에 좋은 대상과의 안전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2장에서는 군종목사에 의한 목회 돌봄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연구자는 목회상담의 영역을 넓어서는 넓은 의미에서 목회적 돌봄을 군종상담이라고 정의하였다. 군종상담은 은혜의 방편이라 할 수 있는 설교, 기도, 성경, 교회, 공적인 방문이 일반 상담과 비교되는 특별한 것이다. 군종목사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적인 상담 훈련과 성품 훈련을 통하여 용사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 3장에서 연구자는 입대 초기 훈련병들을 위한 설교를 목회돌봄 프로그램 실제로 제시하였다. 4장에서 영혼을 돌보는 군종목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군종목사의 목회적 돌봄은 성직자요 참모 장교의 이중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용사들의 욕구에 따라 신앙적인 자원과 공식적인 군중활동의 자원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중심단어

목회적 돌봄, 군종상담, 영적 자원, 역기능가정에서 성장한 용사, 치유

- 논문 투고일: 2023년 9월 5일 • 논문 수정일: 2023년 9월 21일
- 게재 확정일: 2023년 9월 22일
- * 예) 군종53기, 군선교신학회 상담코칭위원, 샘솟는교회 담임

들어가는 말

군복무 중에 있는 용사들은 Z세대라 부를 수 있다. 메리엄-웹스터 온라인 사전은 Z세대를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의 세대”로 정의한다. Z세대는 유년기부터 디지털 매체의 영향을 받은 세대로 분류되고 있으며, 또한 2010년대에 접어들어 대중화된 스마트폰을 성장기~청소년기 때부터 가까이한 첫 세대이다. 위키백과는 Z세대의 특징을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접한 세대, 개인주의를 선호하는 세대, 미래보다 현재를 더 중시하는 세대라 하였다.

이러한 청년의 대다수는 자신의 의지나 이전의 사회 경험, 정신-심리적 상태를 불문하고 자신이 익숙하던 공간과는 이질적인 전투 현장의 환경에 처해진다. 따라서 군복무 기간 중 용사들은 전투와 같은 극한 경험과 그것은 아니더라도 일반사회와는 다른 통제적이고 수직적이며 고립된 복무환경 속에서 위협적이거나 공포를 느끼는 외상(적)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¹⁾ 예를 들면 총기사고와 훈련 중 안전사고, 동료의 자살과 같은 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용사들은 입대 초기에는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외상적(정신적) 충격을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군대 환경과 사람들에 대해 적응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용사들은 군무이탈, 자살, 구타, 폭행, 불안, 집단 따돌림(왕따), 우울증, 스트레스 등의 복무부적응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가 무엇일

1) 전석원, 류호준, 한만영, “외상상황(Traumatic Situation)하에서의 군종상담 연구,” 「군선교신학」 13 (2013), 344-389.

까? 대부분 초기 병영생활 중 적응하지 못하는 용사들은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서 오는 부적응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대상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심화된 갈등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택은 군에서 자살하는 용사, 군생활에 부적응을 호소하는 용사, 부모와의 불화로 힘들어하는 용사, 애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용사 등의 심리검사를 해보면 대다수가 부정적인 자기표상(자화상)을 형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군입대 전에 이미 병리적인 자기표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하였다.²⁾

사람은 인생의 단계를 지내는 동안 변화를 위한 중요한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 어린 시절에는 좋은 부모, 교사, 친구들을 만나 바른 성장을 위한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역기능가정에서 성장한 용사들의 대부분은 그 좋은 대상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이다. 한 개인이 자신의 출신 가족 구성원들과 만족스러운 대상관계를 잘 맺지 못하게 되면 이는 미해결된 채로 남게 되어 배우자 및 자녀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에도 여전히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³⁾ 최근 묻지마 범죄가 많아진 이유는 정상적으로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맺은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 분석이 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 여정의 각 단계마다에서 목회와 상담을 통한 전인 건강의 여건 조성을 위한 특수기회가 있다.⁴⁾ 군대는 인간 발달

2) 김현택, “좋은 자기표상 형성을 위한 관계성 연구-대상관계이론과 목회적 돌봄을 중심으로-,” 『군선교신학』 12 (2012), 336-363.

3) Raymond J. Corsini, 『현대심리치료』, 김정희 & 이장호 공역 (4판;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1996), 585.

4) Howard Clinebell, 『목회상담신론』, 박근원 역, (서울: 한국 장로교출판사, 1996), 49.

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초기 성인기의 20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꼭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좋은 대상과의 만남은 인생의 바른 변화를 위한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필자는, 군대는 다양한 목회 돌봄을 통하여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좋은 목회의 현장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특별히 군대 목회 현장이 인생의 중요한 발달 단계에 있는 청년들에게 성장을 돕는 현장임과 동시에 특히 역기능가정에서 성장한 용사들을 치유하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치유 목회의 현장임을 소개하면서 군 목회에서 돌봄 목회의 필요성과 치유 목회의 가능성을 피력하고자 한다.⁵⁾

I.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용사들의 입대 초기 심리 이해

가야마 리카는 젊은이들의 심리분석 중에서 첫 번째로 늘 자기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자기불안 세대라고 분석하였다.⁶⁾ 용사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의 하나로 “자신의 해석의 틀을 가지고 진리의 체계를 구축해” 가는 자기의 주관성에 대해 강조하는 시대 흐름 속에 성장한 초기성인기 청년들의 세대이다.⁷⁾ 이러한 발달 단계

5) 필자는 군종목사로 재직하는 동안 “역기능장병 치유를 위한 목회돌봄 프로그램-CARE 4단계를 중심으로”(2003)의 제목으로 여단급 부대에서 시행했던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를 석사 학위 논문으로 작성하였다. 군종목사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군중 활동을 지혜롭게 활용한 치유적 기능의 목회 돌봄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장병들과 접촉하여 영혼 돌봄의 관계에 이를 수 있는 1단계 프로그램(Contact),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장병들을 찾아가 그들을 발견하는 2단계 프로그램(Approach and Activity), 찾아가 만난 상처 입은 장병들을 치유하여 회복시키는 3단계 프로그램(Recovery), 바른 변화와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4단계 프로그램(Encouragement)인 CARE 4단계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6) 가야마 리카, 『젊음의 코드를 읽는다』, 김영진 역 (서울: 황금가지, 2005), 13-44.

7)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0), 427.

중에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로 인한 군입대는 그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입대 전의 각기 다른 스타일의 개성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지탱해왔던 것들이 동일한 복장과 환경에서 함께 생활해야 함에 따라 군중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고독감을 느끼기도 한다. 즉 개인이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개인이 상대적으로 최소화되는 조직의 특성이 대치하여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용사들은 입대 전 한국의 청년들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할 자아정체성이 입시 공부에 짓눌려 심리 사회적으로 유예되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꺼번에 밀어닥치기 때문에 더욱 격렬하고 긴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일반적으로 용사들은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하다가 군대의 갑작스러운 통제와 규율의 사회 속에 적응하면서 일시적인 답답함의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대부분 1-2주의 적응 기간을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군대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적응하지 못하는 대부분 복무부적응 용사들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말하지 말자, 느끼지 말자, 믿지 말자”의 무언의 억압 형태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여 자기 속에 내재화시킨 용사들인 것이다. 마치 18개월 동안의 시간은 마치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지 않고 참아야 하는 듯한 고통으로 느껴지는 시간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군복무는 동일시가 형성된 친숙하고 좋은 대상들과의 분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분리불안을 경험하기도 한다.⁸⁾ 자신을

8) Donarld Fairbairn, 『성격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

보호해주고 사랑해주었던 환경을 떠나 통제된 환경을 만나는 용사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막연한 불안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거의 언어폭력이나 육체적인 폭행을 당한 경우 사람들에게 대한 대인관계에 대한 기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즐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부부 싸움이 잦은 부모들 사이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들에 의해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으로 순응적 자기가 발달하게 된다. 대부분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친 용사들은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군대라는 현실 속에서의 타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위니콧은 타협할 수 있는 능력은 정상인에게 존재하는 거짓자기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유아, 충분히 좋은 어머니의 역할을 경험하지 못한 유아의 경우 순응의 유혹에 끌리게 된다. 극단적인 거짓자기의 경우에 참자기는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고, 따라서 유아 삶의 경험은 자발성을 상실하고 모방과 순응을 주된 특징으로 갖는다. 특히 역기능가정에서 성장한 용사들은 과도한 긴장으로, 우울함으로, 신체화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더욱 극단적이고 폐쇄적으로 반응하는 용사들은 심지어 자해 및 탈영을 생각하기도 한다. 위니콧은 참자기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발견되지 않으면 거짓자기는 참자기가 착취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임상적 결과는 자살이라고 하였다.⁹⁾

구소, 2003), 217.

9) Donald Winnicott, 『성숙 환경과 촉진적 환경』,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207.

II. 군목회 돌봄의 특징

목회적 돌봄은 때로는 목회상담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목회상담의 영역을 넘어서는 보다 범위가 넓은 돌봄과 관심의 사역이라 할 수 있다.¹⁰⁾ 일반적으로 목회 상담을 포함하는 목회적 돌봄은 목회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진 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목회적인 기술들을 바탕으로 하여 목회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또는 그룹들)을 지탱하며(sustaining), 인도하며(guiding), 치유하며(healing), 화해시키는(reconciling) 모든 목회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¹¹⁾

군대에서 목회적 돌봄을 하는 군종목사는 고매한 품성과 투철한 군인정신을 소유한 성직자, 용사들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계급이나 다른 전문 직위에 관계없이 목사, 신부 및 법사 소속 종단의 명칭으로 호칭되며, 그 신분은 장교단의 일원으로 참모장교로서의 신분과 소속종단으로부터 파송된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지닌다.¹²⁾ 군종목사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회자로서 M. Div. 과정에 준하는 신학교육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부르심과 군 선교를 위해 교단에 의해 보냄을 받은 공인된 목양의 기능을 수행하는 목회자들이다. 즉 초대 교회로부터 중세, 종교개혁시대, 현대 교회로 이어지는 기독교 역사의 뿌리를 둔 전통적 교회의 사역으로서 공식적으로 세례 결혼, 성찬, 장례를 비롯한 예전을 집례하고, 예배와 교육, 설교, 상담, 심방, 봉사, 교제, 전도, 양육, 선교 등과 같은

10) 이관직, 『개혁주의 목회상담학』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07), 37.

11) 이관직, “목회상담의 성경적 기초,” 『신학지남』 (1995, 봄), 236.

12) 국방부 군종실, 『군종업무지침』 (국방부, 1999), 17.

사역을 수립함에 있어 사회적으로도 공인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에서의 목회적 돌봄은 성직자요 군 조직의 참모 장교의 이중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용사들과 구성원들의 특수하고도 다양한 욕구에 따라 신앙적인 자원과 공식적인 군중활동의 자원을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목회상담과 일반상담은 상담이라는 공통분모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상담의 원리와 방법에 있어서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상담에서의 자원은 상담자가 훈련받은 심리학적 원리와 임상적인 지혜와 구체적인 상담의 방법이라 한다면 목회상담에서의 자원은 이러한 임상적인 자원 외에 은혜의 방편 (means of grace)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적 요소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경, 기도, 기독교 교리, 신앙전통이 물려준 자원이 돌봄과 상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목사는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욕구에 응하기 위해서 목회적 돌봄과 상담을 제공하면서, 그 특수한 자원과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전투 환경에서 종교적 자원은 용사들로 하여금 사기를 함양하고 담대하게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전시 군중활동에서 용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한 영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무형전력, 정신전력, 신앙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군중목사에게 필수적인 역할로서 권리이며 의무로 인정되어 왔다.¹³⁾ 필자는 군목회적 돌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더 나아가

13) 전요섭, “전시 미군 군중활동을 통한 한국군 군중목사의 역할 정체성,” 『군선교신학』 21 (2022), 236.

군종목사에 의한 목회적 돌봄을 ‘군종상담’이란 용어로 병행하여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설교는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상담 행위가 될 수 있다.

설교는 제한된 돌봄의 현장 속에서 가장 치유와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지시적인 입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목회 돌봄 사역이라 할 수 있다. 오츠는 목회자들이 공적인 차원에서 설교를 통하여 가르칠 수 있으며 이것이 목회의 기능의 인도로 이해를 하고 있다.¹⁴⁾ 목회상담과 설교는 신학적으로 공통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¹⁵⁾ 오펜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이중적 사역에 근거해서 케리그마(선포)와 테라페이아(치유)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적 공통점이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복음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고, 설교는 명백하고 결정적인 선포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이다.¹⁶⁾

군대는 용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그들의 욕구들에 대하여 적절한 반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어느 집단보다도 상황적 설교가 필

14) Wayne Oates, *The Christian Pastor* 3r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2), 141-150.

15) 캡스는 케리그마와 상담의 두 사역의 기능이 신학적 토대에 기초하여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는 토마스 오펜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16) Donald Capps, 『목회상담과 설교』, 전요섭 역 (서울: 솔로몬, 1996), 25.

요한 현장이라 할 수 있다. 군종목사는 한 부대의 소속 안에서 함께 용사들과 생활하면서 이들을 관찰할 수 있고, 용사들과의 상담 및 다양한 군종활동을 통하여 필요를 얻을 수 있다는 환경에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별히 전투/전쟁 상황에서 용사들은 신정론 질문 등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의구심, 더 나아가 윤리, 도덕적인 것, 생명, 사후세계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설교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⁷⁾

설교를 통하여 장병들은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 직면하게 되고, 도움을 구하는 목회 상담의 접촉점이 되고, 자신들의 고민과 갈등과 위기와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예방적 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게리 콜린스가 설교를 대중적 상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한 것처럼¹⁸⁾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 꺼려하는 군대 상황에서는 설교는 용사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회 돌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에게 상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삶의 현장에서 독특하고 개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찾아온 청중들에게 설교가 제시하는 원칙 속에서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보여줌으로서 용사들로 하여금 용기를 내어 자기를 드러내고 치유와 돌봄의 관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설교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대신해 줄 때 즉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공감해 줄 때 설교를 듣는 청중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지를 느끼게 되고, 그와 함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응어리도 서서

17) 전요섭, *Ibid.*, 235.

18) Gary Collins 편, 『카운셀링가이드』, 정석환 역 (서울: 기독교회사, 1989), 2.

히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도 설교자가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줄 때 서서히 불안과 갈등에서 벗어나면서 소망으로 이어지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¹⁹⁾ 설교가 그룹치료와 흡사한 효과와 힘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이 연구되고 있고, 설교 자체가 진행되면서 상담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기도 하였다.²⁰⁾

필자의 경우 동성애로 인한 죄책감과 무기력으로 고민하고 있는 한 용사가 예배 후에 목사에게 찾아와 오랫동안 버텨왔던 힘든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례가 있었다. 학창 시절 성폭행 가해자로서 현재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통스러워하는 용사에게 편지를 받기도 하였다. 이외에 군 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용사들이 예배 후에 쪽지를 적어 목사의 손에 들려주는 사례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가진 용사들과 함께 수차례 개인적인 상담과 편지 교류를 통해서 전역할 때까지 돌봄의 양태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상담 전의 목사와의 관계의 경험은 내담자와의 개인적인 상담과 치료의 관계를 더 깊게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예비 상담적 관계라 할 수 있다. 설교 가운데 흐르고 있는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와 따듯하고 부드럽고 유머가 있는 예배 분위기, 평소의 목사의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모성적 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전감을 느꼈던 것이다.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9) 정태기, “치유목회의 중요성과 설교를 통한 치유,” 『목회와 신학』, 1999년 7월호, 57.

20) 필자는 치유목회연구원 주관 제3회 세미나 ‘설교와 치유’에서 “상담적 흐름이 있는 치유적 설교”의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2022.11.3.)

설교를 통해서 예비 상담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일반 상담적 관계에서 보기 힘든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의 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 상담 관계 이전의 목회자와 교인간의 관계가 존경과 관심의 대상이 아닌 냉담과 무관심 나아가 적의의 관계의 질을 띠고 있다면 그것은 상담적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되거나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²¹⁾ 웨인 오츠는 설교자와 회중들과의 관계의 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²²⁾

“따뜻하고 공감적인가? 관계가 분리되고 떨어진 것 같은가? 믿고 존경할만한가? 피상적이고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인가? 설교의 음조가 흠을 잡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정직하고 적대감이 없는 유모와 단순한 정직함이 있는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가? 관계가 양들 위에 군림하는 목자로서의 설교자와 같은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나오는 양 무리의 본보기와 같은 존재인가?”

웨인 오츠가 소개하는 목회자의 이미지는 마치 위니캣이 말하는 충분히 좋은 엄마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특별히 엄격한 규율과 통제, 반복되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지치고, 외롭고, 어쩔 수 없이 군에 들어와 불행하다고 느끼는 용사들에게 편히 다가와 쉴 수 있고,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고,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은 용사들로 하여금 개인적 상담적 관계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설교자는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알아야 한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신이나 외부

21) 안석모, “목회상담의 특성들,” 『목회상담입문』 목회상담학회편, (서울: 도서출판목회상담, 2007), 55.

22) Wayne E. Oates, *Preaching and Pastoral Care*, ed. Michael Duduit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3), 445-6.

환경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아기에게 대한 동물적 수준의 관심을 갖는 일차적 모성적 몰두처럼 회중들의 심리상태와 내적 욕구 나아가 이들의 영적 생활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회중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메시지가 전달될 때 회중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렇게 될 때 “맞아요, 사람들의 깊은 문제를 진솔하게 반영하고 있는 당신의 말은 마치 저의 경험처럼 들리는군요. 그러므로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지요.” 하면서 회중과 대화의 가능성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설교자와 청중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언어의 교환으로만 끝나지 않는 깊은 단계로 돌입할 수 있게 된다.²³⁾ 캐롤 와이즈는 지속적인 관계의 형성을 목회적 돌봄이라 칭한 것이다.²⁴⁾ 이러한 관계는 복무부적응 용사들의 치유를 위한 관계 형성에 실제적인 자원이 되는 것이다.

2. 기도는 좋은 자기 표상 형상에 기초를 제공한다.

경건한 명상과 종교적 심상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기도의 유형들이 상담에서 유익하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의 형태들은 아직 연구되어 있지 않다.²⁵⁾ 하지만 기도는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평안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다. 기도는 일반 심리학자, 심리치료사, 정

23) Donald Capps, 『목회상담과 설교』, 전요섭 역 (서울: 솔로몬, 1996), 32.

24) Carroll A. Wise, *The Meaning of Pastoral Car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6), 8-9.

25) Mark R. McMinn, 『심리학, 신학, 영성이 하나 된 기독교 상담』, 채규만 역 (서울: 두란노, 2001), 113.

신과 의사들은 할 수 없는 오직 목회상담자만이 독특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²⁶⁾ 일반 심리학은 기도는 문제나 욕구가 발생했을 때 부모를 찾아가는 어린 아이의 행동처럼 자연스러운 인간의 행위이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심리적 정화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도는 영혼을 가진 인격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따듯하고 지혜로운 상담자와 더불어 교제하고, 대화하며, 중요한 결정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상처나 위기와 관련하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지와 지혜로운 통찰력을 공급받는 경험이라 할 수 있는 영혼의 상담이라 정의하고 있다.²⁷⁾ 기도를 통해서 인간은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를 의지함으로써 문제의 근원인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영적인 문제의 해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GP 총기사고 이후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 아들을 잃은 상실의 슬픔을 안고 있는 유가족들과 생존 용사들, 그리고 정부 및 고위 군 관계자가 참여한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의 감정을 대신 토로하면서 기도하었는데, 홍영택 교수는 “연천 총기사고 후 장례식장에서의 기도 장면을 그룹이 함께 동영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틀에 박힌 기도가 아니라, 유족의 감정을 대신 토로해주는 기도 내용 및 어조는 모두에게 목회상담적인 기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고 평가하였다.²⁸⁾ 기도의 내

26) Russel L. Dicks, *Principles and Practices of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1963), 102. 전요섭, “목회상담에서의 기도의 역할과 활용,” (성결대학교 신학연구소 논문집 성결신학연구 제3집, 1998), 70. 재인용.

27) 김병훈, “기도의 정신분석,” 「신앙자원과 목회상담」 (서울: 한국목회상담협회 창립 25주년 기념 제 13차 연례학술대회 자료집, 2007), 92.

28) 홍영택, “2006년 가을 첫 학기 목회임상교육 (C P E)기말 평가보고서” 2006년 1월 10일.

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⁹⁾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진실입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이 말씀이 이 시간에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아들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억울한 죽음입니까? 하나님! 총 맞아 피 흘려 쓰러지는 아들에게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한마디 듣고 싶은 말을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가슴 아프게 하나님 이렇게 보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발 믿음 없다고 정죄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아십니까? 하나님! 이 답답함과 고통을 아십니까? 나보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만 들려주십시오. 한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이 아들들을, 이 아들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해주십시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사랑하는 유족들에게 한 마디 들려주십시오. “걱정 마라! 내 아들을 내가 품었다”고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유족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군장병들에게 한마디만 말씀해주십시오. 이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한 알의 밀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군대가 더욱더 막강하게 되고 우리의 병영생활이 더욱더 선진화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있는 축복된 우리의 군대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군대를 축복하시고 남은 유족들을 위로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임 가운데 머리 들고 이곳을 떠나기 전에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29) 안남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71-73.

필자는 억울하게 아들을 잃은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유족들의 마음을 깊이 있게 공감하면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였다. 이러한 목회자의 공감적 기도는 어떤 선포적이고 교훈적인 설교보다도 슬픔을 견디어내고 신앙 안에서 사건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신앙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기도의 기능은 신비스러울 정도의 기적적인 능력이 있다. 김병훈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소화할 수 없었던 경험들을 충분히 체하지 않게 처리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위기와 상처들을 오히려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그리고 우리의 경외와 감사의 경험을 영원으로 끌어올리며,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영원성의 신비에로 참여하게 되는 놀랍고도 위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³⁰⁾

군종목사는 군대에서 ‘공식적인 슬픔 중재자’로 인식되고 있다.³¹⁾ 전요섭은 장례식에서는 군종목사의 집례에 따라 공식적으로 슬픔을 나타내고, 동료용사와 가족의 슬픔을 일정선에서 드러내어 애도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가 생명을 바친 이 나라와 새로운 생명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중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과정이므로 장례식에서 군종목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30) 김병훈, *op. cit.*, 103.

31) Rachel L. Seddon, Edgar Jones & Neil Greenberg, “The Role of Chaplains in Maintaining the Psychological Health of Military Personnel: A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 *Military Medicine* 176/12 (2011), 1357-61. 전요섭, 전요섭, “전시 미군 군종활동을 통한 한국군 군종목사의 역할 정체성.” 『군선교신학』 21 (2022), 234 재인용.

한편, 상담 중 기도는 상담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오성춘은 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³²⁾

첫째, 기도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상담 후에 내담자의 이야기 내용을 요약하고, 내담자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내담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어 하는 바로 그것을 상담자가 기도하면 내담자는 상담자와 하나된 것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 기도는 내담자의 문제와 상황과 아픔과 혼란 등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상담자의 증보이다. 셋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 즉 상담자가 내담자를 위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생명과 은혜로 내담자를 만족하게 하신다.

그러나 군종목사와의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내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나 상담을 끝마칠 때 기도로 마무리하는 경우는 자칫 내담자에게 부정적이거나 거부감을 갖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기도를 모든 문제들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처럼 마술적 수단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상담의 종결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되며, 단순한 내담자를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적시성, 적절성,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상호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민감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도는 내담자와의 상담의 과정과 관계 속에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의식하며 역동적으로 활용해야 할 목회상담의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를 만나기 전에 내담자와 상담의 과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내담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32) 오성춘,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378.

것은 내담자를 기억한다는 의미이며, 상담자의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조율하는 중요한 영성관리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상담자가 내담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과학적 증거가 없어도 상담 회기 외에 상담자들을 도울 뿐더러 영적, 감정적 치유에서 상담하는 내담자들을 돕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³³⁾ 따라서 군종목사는 상담 외의 시간에 지속적이며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과 의사나 임상 심리학자들 또는 세속 심리학자들이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태도와는 다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마음, 공휼(compassion)이 있어야 한다. 군종목사의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3. 성경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경계선을 제공해준다.

성경은 군종상담에 있어서 핵심적인 치유적 요소가 된다. 물론 성경에 인간의 심리를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심리치료나 상담학 교과서는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 문제들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해결의 원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으며 그 이야기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과 내담자들의 이야기와 밀접한 관계성과 유사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³⁴⁾ 목회상담의 과정에서 성경 활용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33) Mark R. McMinn, 『심리학, 신학, 영성이 하나 된 기독교 상담』 채규만 역, (서울: 두란노, 2001), 90.

34) 이관직, “성경을 상담과정에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나요?” 『신앙자원과 목회상담』 (서

상담자의 개인적인 주관을 버리게 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바로 이해하도록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도록 하며 그 의도 안에서 삶의 방향을 찾도록 하기 때문에 목회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상담 요소가 될 수 있다.³⁵⁾

성경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근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목회상담자는 자존심이란 자신에 대해서 갖는 주관적인 가치관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천하보다 더 중요하게 하셨으니 당신도 스스로를 향해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겸손히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개인적인 기대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³⁶⁾ 물론 과학, 문학, 철학, 신학, 상담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가치와 본성에 대해 해석학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라 할 수 있다.³⁷⁾ 목회상담자에게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은총이라 할 수 있는 성경을 상담 과정이나 내담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것이다. 상담자의 무조건적인 존중과 공감적 이해와 진실함이 내담자의 치유와 변화를 돕는 중요한 상담의 도구가 되지만, 무엇보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때 일반 상담과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초월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목회상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라 할

출: 한국목회상담협회 창립 25주년 기념 제13차 연례학술대회 자료집, 2007), 200.

35) 전요섭, “목회상담에서 성경의 역할과 활용,” 『성결대학교 교수논문집』 제27권 (1998), 12.

36) Mark R. McMinn, *op. cit.*, 346.

37) *Ibid.*, 125.

수 있다.

특히 군인은 극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빈번하고, 전쟁과 전투 상황이라면 불안과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게 된다. 전요섭은 군종목사로부터 영적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지지 받지 못한 고립상황에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마누엘 묵상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 하였다.³⁸⁾ 황미선은 군장병들이 위기 상황에서 신앙생활이 종교시설 중심으로부터 개인으로, 군종목사 중심으로부터 개별적 신앙을 갖도록 하고 그것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마누엘 접근방식을 발표하기도 하였다.³⁹⁾ 특별히 서구에서는 풍부한 연구를 통해서 일반적인 정신건강뿐 아니라, 외상 상황 및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성경을 나누는 것의 긍정적인 영향을 명확히 규명한 바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⁴⁰⁾

4. 군종목사는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

우리 자신이 겪은 학대와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리를 용납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거부하지 않은 그룹 안에서 우리 자신의 경험들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신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된다. 교회란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존귀함을 받는 안아주는 최적의 환경이라 할

38) 전요섭, “효과적인 군상담을 위한 전인건강과 치유의 이해,” 『군선교신학』 20 (2021), 258.

39) 황미선, “군장병의 위기 대응방안으로서 신앙활성화에 관한 연구- 임마누엘 접근을 중심으로,” 『군선교신학』 15 (2016), 246-274.

40) Hart A. Clinton, *Caring for People God's Way: Personal and Emotional Issues, Addictions, Grief, and Trauma* (Nashville: Thomas Nelson Inc, 2009); Larry W. Ventis, “The relationships between religion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social issues* 51(2) (1995), 33-48. 재인용

수 있다. 휘트필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안전하고 지지적인 사람들’이라 부른다.⁴¹⁾ 데이빗 시먼스는 ‘구원하고 용납하는 회중’이라 표현한다.⁴²⁾ 기억의 치유를 위해서는 예수님께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지붕까지 뜯어낸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이 병자를 돌보아 주었던 것과 같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은 서로 짐을 지는 사랑을 실천하도록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매주일 용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교인들에게 용사들을 지지해주는 사람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교회공동체가 따듯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 속에서 용납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품어주는 분위기가 요구된다.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들에게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교회 및 다른 돌봄의 공동체들은 근본적으로 함께 있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이는 사역자들의 공동체이다.⁴³⁾ 이를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처럼 군중목사는 부대 내 지휘관 및 기독 간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인 제직들과 협력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5. 군중상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공동체를 찾아가 관계를 맺을

41) Charles. Whitfield, 『잃어버린 자아의 발견과 치유』, 김용교, 이인출 역 (서울: 도서출판 글샘, 2000), 73.

42) David Seamands, 『상한 감정과 억압된 기억의 치유』, 송헌복, 송복진 역 (서울: 조이선 교회출판부, 1999), 61.

43) John Patton, 『목회적 돌봄과 상황』, 장성식 역 (서울: 은성, 2000), 41.

수 있는 공식적인 심방의 사역이 있다.

목회적 돌봄은 교회 사역 가운데 특별히 심방에서 아주 잘 행해진다. 목회 돌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방황하는 인간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영혼을 찾아다니는 사역이다. 특히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사들을 찾아 나서는 것은 목회자의 주도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혼 돌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을 돕는 직업이나 직책 중에서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 심령의 형편을 묻는 일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뿐일 것이다.⁴⁴⁾ 목회자는 심리 상담자나 또는 정신 요법자가 가질 수 없는 독특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목사는 직책상 거의 아무 때나 교인들을 심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심방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간 방문의 영광을 성찰하고 잃은 양을 찾으며 죄를 구속하고 고통을 치료하는 한 방법이다.⁴⁵⁾ 다른 전문직에서 이런 주도권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목사의 지속적인 방문과 열려하고 궁금한 마음으로 먼저 물어주는 관심적 행동을 통하여 용사들에게 “함께 있어 주는”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목자의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군중상담의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돌봄적 자세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치유의 힘이며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군중상담은 상담실(사무실)에서 장병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44) 안석모, “목회상담의 특성들,” 『목회상담입문』, 목회상담학회편 (서울: 도서출판 목회상담, 2007), 54.

45) Thomas Oden, 『목회신학』, 오성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0), 326.

수동적인 상담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 양떼의 형편을 살피며 돌볼 수 있는 방문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군대는 군종목사에게 용사들의 사생관 확립, 사고 예방, 사기 함양과 인격 성장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들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 있다. 군종목사가 용사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기독교인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용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구체적인 목회 돌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접착점이 된다.

따라서 군종목사는 방문을 통하여 용사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듣고 용사들의 필요를 기억함으로써 목사가 관심이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다. 특별히 예방적 차원에서의 방문이 요구된다. 심방의 형태로는 방문 계획을 알리고 찾아가는 공식적인 방문과 자연스러운 비공식적인 방문이 있다. 공식적인 방문에는 환자, 수용자, 격오지 방문이 있고, 비공식적인 방문은 용사들의 생활관, 간부들의 사무실 방문이 있다. 특별히 군목회는 목사와 교인들의 생활환경이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진단하고 돌볼 수 있는 특수한 목회 돌봄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군종업무는 종교활동, 교육활동, 선도활동, 대민업무를 담당한다. 이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이고 필수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전시군종활동은 평소 하던 것처럼 현장에 찾아가서 심방해주고, 토닥여주고, 함께 울어주고, 분노하고, 전사자에 대한 추모의식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종목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강단 밖의 시간이라 표현을 한다.⁴⁶⁾ 군종목사는 민

46) Robert A. Sugg, "Profession of Ministry Chaplaincy," *The Military Chaplain* 90

간목사처럼 교회에서 강단(설교)을 중심으로 목회하기보다는 강단 밖(훈련장, 격오지, 참호, 전장터 방문 등)에서 다양한 임무수행을 하는 것을 부각하고, 그 정체성을 강조한 표현이라 하였다. 따라서 군종목사는 모든 부대원들을 위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군종목사는 부대 또는 전투 현장에서 존재할 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할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인식을 갖게 되며 커다란 위안이 되고,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⁴⁷⁾ 하나님의 임재의 대리자로서 군종목사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Ⅲ. 군목회 돌봄의 실제-훈련병들을 위한 설교

설교의 실체는 입대 초기 장병(훈련병)들을 위한 설교 사례이다. 필자는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대 초기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교를 분석하였다. 필자는 공식적인 장병 인성교육(자살예방교육) 시간에 심리검사(교류분석, 문장완성검사, 자존감, 기질, 우울증 검사)를 병행하면서 연구를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었다.⁴⁸⁾

1. 신교대에서 종교를 어떻게 선택하여 참석하였나요? (모든 병사)
2. 입대 전 종교 활동은 어떻게 했나요? (모든 병사)
3. 신병교육대 입소한 다음 날 목사님의 인성교육(성격검사)을 듣고 어떤 느낀 점이 있었나요? 기억나는 단어나 표현들이 있다면 써주세요. (모든 병사)
4. 기독교 종교행사에 참석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억나는 단어나 표현들이 있다면 써주세요. 그리고 느낀 점은? (기독교만)

(2017), 4. 전요섭, “전시 미군 군종활동을 통한 한국군 군종목사의 역할 정체성,” 『군선교 신학』 21 (2022), 236. 재인용.

47) *Ibid.*, 246.

48) 필자가 2004-2005년 태풍부대 신병교육대에서 사역하는 동안 실시한 설문이다.

5. 5주간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라 느꼈나요? 교회 (자기, 하나님)의 이미지가 입대전과 신교대 종교행사 참석 후 바뀐 것이 있다면? (기독교만)
6. 신병교육대에서 받은 세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7. 목사님께 부탁하고 싶은 자신의 이야기는? (고민, 애로사항, 소감 등)

앞에서 분석된 훈련병들의 이야기들을 근거로 5주간의 설교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1주 차에는 이들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감정을 수용하고 공감하면서 죄의 문제를 다루었고, 2주 차에서는 따뜻한 엄마와 같은 교회에 대해서, 3주 차는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4주 차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자존감에 대해서, 5주 차는 세례식과 함께 복음의 능력이란 주제로 구성하였다. 필자의 사역 현장에서 시행한 역기능가정에서 성장한 용사들을 위한 치유적 설교이다.

1.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접촉점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긍정의 힘’의 저자 조엘 오스틴 목사의 설교의 특징 중의 하나는 설교 중에 교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엘 오스틴의 설교는 현대의 청중들의 삶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 할 수 있다. 이문장은 한국 사회에 맞는 설교를 위한 제언에서 설교의 언어가 친화성을 띠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교의 언어와 설교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교회라는 공간 내부에서만 통하는 언어 in-house language가 되면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 소통이 막히게 된다고 분석한다.⁴⁹⁾

49) 이문장, “한국사회에 맞는 설교,” 개혁신학회 제 3 발제 논문. 2005년 9월 24일.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말씀을 전하실 때 특정한 시대와 인물, 특별한 장소와 그 시대의 언어를 통하여 보여주셨다. 찰스 크래프트는 하나님의 의사 전달은 객관적으로 볼 때 전달받는 사람들을 최대한 고려하는 수용자 중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⁰⁾ 그 중에서 무엇보다 텍스트화된 언어를 통하여 다른 시대와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전달하셨다. 필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속에 숨을 쉬고 있는 청년들의 언어와 교회의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언어 사이에 서로 이해하기 힘든 간격에 대한 접촉점의 언어로 모든 인간의 공통의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심리학적 언어로 복음과의 접촉점을 이루고자 했다. 거킨은 부부가 서로를 비난하는 부부상담의 현장에서 목회자는 비난과 그에 대응하는 비난으로 점철된 언어세계로부터 뜨거운 수용과 용서의 언어로 건너뛴다는 것은 단순한 의지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큰 과제임을 설명하면서 두개의 서로 다른 이해의 지평이 하나로 서로 합해지는 과정을 이룩하려면 일종의 도구가 필요한 법인데, 중간 단계의 언어로 심리학적 언어가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¹⁾

필자는 이들이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자신들이 표현하기 힘든 느낌들을 대신 표현해주면서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설교자들에게 신학의 언어와 젊은이들의 심리와 언어를 다 알아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 영생, 구원, 죄, 은혜 등의 신학적 단어들을 현재 용사들에게 가

50) Charles Kraft, 「복음과 커뮤니케이션」, 김동화 역, (서울: IVP, 2001), 27.

51) Charles Gerkin, 「살아있는 인간문서」, 안석모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213-214.

장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대상인 어머니, 아버지 등의 대상 관계적 언어들과,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용서받기 힘들 거야,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등의 인간 내면의 언어들로 표현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한 주간의 설교를 교회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다, 교회는 버팀목이다, 교회는 카페(이야기 장소)이다, 교회는 산부인과이다” 등의 이미지 언어로 표현하였다.

75번 훈련병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매주 설교를 군대 오기 전처럼 기록하면서 들으면서 기억나는 것을 있었을 텐데 예배했던 지난 몇 주간 워낙 많은 훈련을 받다 보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있다면 ‘초코파이는 엄마의 모유와 같다’라는 것인데 군에 오기 전에는 몰랐지만 초코파이는 정말 대박입니다. 제가 이렇게 초코파이를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곳에 와서 어머니께서 보내시는 편지를 기다리듯 교회에서 받을 초코파이를 기다리는 마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한 설교 중에도 ‘교회는 엄마다’라고 하셨던 것 같으신데 교회 정말 편합니다. 교회에서만큼은 편히 긴장감 없이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 모성적인 설교자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심리상담 및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심리상담 및 치료자 자신이라는 전제를 갖는다. 제럴드 코리는 내담자에게 가장 강력한 것은 심리상담가와 치료자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심리상담/치료자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⁵²⁾ 마찬가지로 사람

52) Gerald Corey,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 제6판』 조현춘, 조현재 공역, (서울: 시

들 간의 의사 전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메시지를 전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주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⁵³⁾

이문장은 한국인의 마음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무조건적 희생적 사랑에 대한 집착적 기억이 강렬하고, 그래서 어머니를 부르면 코끝이 찡하는 정서상의 움직임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군에 입대한 젊은이들에게 어머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군에서 처음 만난 목회자(설교자)의 이미지는 충분히 좋은 엄마로서 품어주고 받아주는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특별히 역기능가정에서 성장한 용사들에게 목사가 보여주는 조건 없는 존중과 공감적 이해와 같은 경험은 진정한 대상이신 하나님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간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위니캣이 말하고 있는 인간 삶의 제 삼의 부분은 경험이 발생하는 중간 영역으로서⁵⁴⁾ 어머니와 유아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시작되는 대인관계적인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⁵⁵⁾ 군중목사와의 5주간의 질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기됨을 느끼고, 창조성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관계 경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회자에게 살아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강력한 은총의 도구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마프레스, 2003), 18.

53) Charles Kraft, *op. cit.*, 21.

54) Donald Winnicott, 「놀이와 현실」,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15.

55) James W. Jones, "The Relation Self: Contemporary Psychoanalysis Reconsider Religion," *Journal of the American of Religion* 59 (1991), 120. 마이클 세인트 클레어, 「인간의 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27. 재 인용.

특별한 은혜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 개입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강단에 서야 한다. 훈련병들에게 군에서 만난 어머니와 같은 대상과의 만남은 기독교 신앙이 있는 훈련병들에게는 하나님 표상 즉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고, 타종교와 종교가 없는 훈련병들에게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내면의 정신세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첫째, 용사들의 마음을 대신 표현하면서 수용적 존중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아래의 내용은 연구자의 설교원고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20대 젊은이들 특히 군에 있는 형제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10년 군복을 입고 형제들을 만나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는 군대가 싫은 것은 자기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둘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내가 잊혀져간다는 외로움, 고독감이 아닐까? 셋째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절대적인 명령과 규정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는 구속감이 아닐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의 존재가 초라해진다는 느낌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군대에 인터넷만 되어도 군대 할만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핸드폰만 사용할 수 있어도 답답함은 사라질 텐데 하는 생각이 납니다. 현대인들에게 길들여진 습관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컴퓨터 켜는 것, 핸드폰 자꾸 만지고 확인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기억되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어 하는 마음의 끝없는 열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설교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공감적 이해의 관계를 맺고자 했다.

1주차 두려움에 대한 설교 중에서 발췌하였다.

몇 개월 전부터 지난 사역지 교회에서 영상장치를 설치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과 동료들 앞에서 설교 실습 이후 보지 못한 설교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길으로는 여유 있고 편안해 보이지만 속에서 권위자 앞에서 주눅 들고 눈치보고 긴장하고 있는 내면의 아이를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참 불쌍하다!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 나중에 커서 뭐 할래 비웃고 조롱하였을 텐데, 제 마음이 성숙했는지 화면 속 아이에게 “남기야! 괜잖아! 너는 잘하고 있어…” 하면서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칭찬해보기도 했습니다. 남기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보이고, 내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에 대해 설교자는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교자는 설교자 자신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솔직한 고백과 이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해석과 이들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공감적 표현들을 통하여 설교자에게 좋은 대상의 이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선임 기수 중에서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의 편지를 읽어줌으로 강한 카타르시스 효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제 마음속에서 아버지께 하고 싶은 때가 군입대 전 훈련소에 입소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아 보이고 미웠습니다. 왜 그때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며 전 아버지께 이런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절 사랑하시나요? 엄마와 동생도 사랑하시나요? (중략) 전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작은 관심, 작은 사랑을 느

껴보고 싶습니다. 무뚝뚝하게 마음으로만 아닌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 외에 예배 중 헌금시간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없기 때문에 작은 쪽지를 나누어 준 후 하나님께 감사한 것, 마음의 소원, 교회에 참석하고 설교를 들은 후의 소감, 목사에게 바라는 힘들과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리적이고 영적인 욕구를 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또한 축도 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아들이 내가 너를 잘 아노라”의 찬양을 일어나서 함께 부르면서 용사들을 품고 사랑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찬양은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신앙적 의식이 될 수 있다.

3. 이야기 설교 양식을 사용하라

이우제는 포스트모더니즘 세계를 향한 적절한 설교의 방향성으로 정보전달식의 스타일을 피하고 대화식(이야기식) 스타일로 감동을 주는 설교로 나아가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⁵⁶⁾ 특별히 군입대로 인해 복잡한 심리적 갈등적 구조에 있는 병사들에게 지식이나 교리와 같은 설교보다 수용과 공감적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과 같은 설교가 필요한 것이다.

이야기치료 기법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내담자의 지나온 지배적인 삶의 이야기에 대하여 해체적인 질문을 던짐으로 삶의 이야기 속에 독특한 결과들을 발견하여 새로운 대안적 이야기로 다시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필자는 상담현장이 아닌 설교 중에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의 틀 안에서 설교 중 이야기치료에서 활용하고 있

56) 이우제, “포스트모더니즘 세계를 향한 적실한 설교의 방향성,” 『그 말씀』 (2006), 230.

는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짐으로 복음과의 만남을 시도했다.

필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치료는 종결로 나아간다는 명제를 가지고 한 주간 설교한다. 예를 들어 술을 먹고 외도를 한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와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들의 대처방식에 대하여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설명을 한다. 어떤 아들은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런 장면을 보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아버지에게 반항하며 “아버지 그만 하세요!” 하고 소리치는 역할을 목사가 대신 표현하기도 한다. 어떤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 없는 경우 문을 쾅 닫고 집을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그때의 가출은 인생의 이야기 속에 성장하는 과정으로서의 하나의 사건이라고 수용하는 해석을 한다. 또 다른 아들은 집을 나가고자 하나 나갈 용기도 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친구가 없어 나가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설명한다.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가 잠을 자거나,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울면서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군대에서는 이런 자신만의 공간을 갖기가 어려워 더욱 답답할 것이라는 공감적인 표현들을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한다.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대처 유형들을 들으면서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치료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특히 무교인 용사와 타종교의 용사들에게 목사와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복

음과의 접촉을 이루어나가는데 성령의 개입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방식들은 다르지만 내면의 감정들은 유사한 것들이라 설명하면서 느낌은 평가할 수 없다는 명제를 감정에 “화가 나면 질이 나쁜 사람인가요? 가출한 것이 죄입니까? 마음에 슬픔이 느껴질 때 눈물이 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등의 해체적 질문들을 던진다. 더 나아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는 근거로 “목사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의 질이 다른가요?”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 모든 사람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미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인간론에 대하여 복음과의 접촉점을 갖고 있다.

47번 훈련병은 4번 질문에 대하여

솔직히 첫날 목사님의 진심어린 연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울컥했던 감정이 쏟아지면서 그때의 일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힘이 없는 아들, 말 못 하는 아들, 두려워하는 아들, 지난날 무능력했던 제 자신, 목사님께서 아들 역할을 하시며 아버지 먹살을 잡는 부분이 있었는데…제가 군에 오기 전 바로 한 달 전 아버지의 먹살을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 딱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무척 무섭고 떨렸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한 저를 알아주시는 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IV. 돌보는 자로서의 군종목사

전요섭은 미군 군종목사의 전시 군종활동을 참고로 한국군 군종목사의 역할 정체성으로 다섯 가지로 정의하였다.⁵⁷⁾ 첫째, 특수목

57) 전요섭, “전시 미군 군종활동을 통한 한국군 군종목사의 역할 정체성,” 『군선교, 청년』 21 (2022), 227-258.

회자로서 군종목사, 둘째, 심리·영적 전문가로서 군종목사, 셋째, 하나님 임재의 대리자로서 군종목사, 넷째, 정의로운 전쟁 지지자로서 군종목사, 다섯 째, 죽음신학자로서 군종목사라 하였다. 본 글에서 군종목사는 신학교육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사역 안에서와 야전 군중활동을 통해서 상담적 견해를 가지고 군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들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소유하고 있는 성직자들이다. 김상만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용사들의 가슴 아픈 현실이 지금도 병영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단 전문적인 상담훈련을 받은 군성직자가 할 때 극단적 결단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⁵⁸⁾ 그뿐만 아니라, 군종목사는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가정과 학교와 군에서 의미 있는 대상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여 상처받고 방황하는 젊은 용사들과의 만남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상담적 환경 속에서 용사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의미 있는 대상들이다. 이미 몸에 밴 사람에 대한 관심과 모성적인 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군복을 입혀주신 특별한 소명과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는 존재로서의 정체감, 특별히 영혼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정체감을 갖는다.

나가는 말

본 글에서 필자는 군선교 현장이 단순히 씨를 뿌리는 선교 현장 이해를 넘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치유하고 돌보고 가르치는

58) 김상만, “군상담의 이해와 발전적 제안,” 『군선교신학』 11 (2013), 385.

중요한 목양지라는 이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의 군종목사의 경험과 신학적 반추로 목회적 돌봄의 현장인 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공식적인 목회 돌봄을 시행할 수 있는 군종목사의 역할과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다. 군종목사들은 은혜의 방편이라 할 수 있는 영적 자원들을 목회 돌봄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더불어 지속적인 신학적, 신앙적, 상담심리학적, 인격(성품)훈련이 요구되며, 상처 입은 치유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는 좋은 대상, 영혼을 돌보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무엇보다 군종목사들은 종교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비종교적인 언어인 인격과 성품 등 진실한 관계를 통해 접촉하면서 장병들의 치유와 성장을 위해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Pastoral care for Healing of Soldier in early adulthood

Nam Gi Ahn

This study sought pastoral care for the healing of warriors in early adulthood, especially those who grew up in dysfunctional families.

In Chapter 1, it was assumed that most of the soldiers who showed symptoms of maladaptation to service at the beginning of their military service did not experience safe relationships with good people in the early stages of their lives. At the beginning of their enlistment, they feel absolutely lonely, suppress their emotions, complain of pain that makes it difficult to breathe, feel vague anxiety, and depression may appear as a somatized symptom. For warriors with these symptoms, meeting with a military chaplain, who can be considered a safe and warm person, can be an opportunity for healing and change.

In Chapter 2, the characteristics of chaplaincy care by military chaplains are described. The researcher defined pastoral care as chaplain counseling in a broad sense that goes beyond the realm of pastoral counseling. It is said that the characteristic that distinguishes it from general counseling is that it has five spiritual resources. Counseling by a military chaplain is something special compared to general counseling, where sermons, prayers, Bibles, churches, and public visits can be considered means of grace. Military chaplains must be able to utilize these resources and be used as a tool to heal the souls of warriors through personal counseling and character training.

In Chapter 3, the researcher presented a sermon for trainees in the early stages of enlistment as an actual pastoral care program. A

sermon with a counseling flow helps warriors face their own problems, counseling for help becomes a point of contact, and it has a preventive function to overcome problems wisely.

In Chapter 4, the identity of the military chaplain who cares for souls was emphasized. A military chaplain's pastoral care can be implemented by taking on the dual role of a priest and staff officer and utilizing religious resources and resources from official military chaplain activities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soldiers. Above all, it has an identity as a being who cares for wounded and wandering warriors who do not receive sufficient care at home, school, and in the military.

Through theological reflections on the care programs and care ministries implemented during his ministry as a military chaplain, the researcher argued that the military is a field of pastoral care for healing beyond the understanding that it is a field of missions.

Key Words

Pastoral care, Counseling by a military chaplain, spiritual resources, dysfunctional warrior, healing

논문 기고자 Email

ankjesus@hanmail.net

안남기의 “초기 성인기에 있는 용사들의 치유를 위한 목회적 돌봄”에 대한 논찬

Comment: Pastoral care for Healing of Soldier in early adulthood

» 김택조 D.Min.*

1. 들어가며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양한 환경과 배경을 가진 용사들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입대한다. 군종목사는 군복을 입은 성직자로서, 용사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며, 전사에는 함께 하는 군중활동을 전개해야 할 책임자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군종장교에게 군인의 신분을 보장해 주고, 장병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안남기의 “초기 성인기에 있는 용사들의 치유를 위한 목회적 돌봄”은 군종목사가 돌보아야 할 용사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아울러 역기능 가정의 배경을 가진 용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다루고 있다. 또한 저자의 실제 군중활동의 경험을 반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설득력에 큰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담자로서의 군종목사가 수천 년 내려온 기독교의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종목사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귀

• 논문 투고일: 2023년 10월 15일 • 논문 수정일: 2023년 10월 15일

• 게재 확정일: 2023년 10월 16일

* 군종 58기 대령, 통합총회 군종목사단장

한 논문으로 군종목사의 새로운 지평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필자에게 감사를 전한다.

2. 비평적 요약

1)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용사들의 입대 초기 심리 이해

가야마 리카는 현대 청년들을 ‘자기불안 세대’로 본다. 이들은 자기 주관성을 중요시하는 포스트모던 문화에서 자라나 군대의 집단적 특성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한국 청년들은 학업의 압박으로 인해 청소년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지연되며, 군대에 입대하면서 그 압박이 갑자기 풀리면서 강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대다수는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하며 그 중에서도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용사들은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역기능적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순응의 유혹에 더 쉽게 끌린다. 이들은 과도한 긴장, 우울, 신체화의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용사들은 자해 및 탈영을 생각하기도 한다.

2) 군목회 돌봄의 특징

목회적 돌봄은 목회상담을 포함한 광범위한 활동으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기도와 목회 기법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군종목사는 군대 내에서 고유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며, 군 선교를 위한 특별한 부르심을 가진 목회자다. 이들은 신앙적 자원과 군의 공식 활동을 결합해 용사들의 다양한 필요에 응답한다. 목회상담과 일반상담은 유사하나, 목회상담에는 신앙적 요소가 핵심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전투 환경에서, 종교적 자원은 용사들의 사

기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군종목사의 역할은 군내에서 영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강조된다.

설교는 삶의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상담으로 볼 수 있으며, 목회 돌봄의 중요한 방식이다. 신학적으로, 상담과 설교는 공통된 기반을 지니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함께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군대는 용사들의 다양한 신학적, 도덕적 문제와 갈등을 직면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설교가 필요하다. 설교는 용사들에게 문제 해결의 힌트를 제공하며, 치유와 돌봄의 관계를 유도하게 한다. 필자는 군대에서 고민을 가진 용사들과의 개인적 상담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돌보았다. 설교는 예비 상담적 관계 형성의 중요한 도구로, 좋은 목회자는 회중의 심리와 욕구를 잘 이해하고 반영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기도는 자기 표상 형상에 도움을 주며 심리치료의 목적이 아님에도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준다. 기도는 목회상담자만의 독특한 도구이다. 기도는 영혼의 상담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를 통한 경험이다. 인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 문제의 해결을 찾는다. 장례식에서 목회자의 기도는 슬픔을 견디는데 큰 도움이 된다. 기도는 신비스러운 기적적인 효과를 가진다. 군종목사는 군대에서 슬픔의 중재자로 인식되며, 상담 중 기도는 여러 역할을 감당한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공감, 문제의 증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등. 기도는 무턱대고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상호관계와 적절성을 고려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이는 영적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군종목사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공활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진리의 경계를 제시하며, 군중상담에서 중요한 치유 요소로 작용한다. 성경은 직접적인 심리치료 교과서는 아니지만, 다양한 심리 문제의 해결 원리를 제공한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현대 크리스천들의 삶과 연관이 있으며, 목회상담에서는 문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근거로, 하나님을 아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다. 목회상담자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도구로, 상담과정에서 큰 은총의 도구로 작용한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성경의 권위를 함께 인정할 때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다. 군인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임마누엘 묵상치료나 임마누엘 접근방식이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서구 연구에서는 성경 공유가 외상 및 트라우마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회는 군중목사와 같은 돌봄의 사역을 수행하는 공동체로, 구성원들이 상처와 학대를 공유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인간은 타인의 수용과 사랑 속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된다. 교회는 이러한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이며, 그 목적은 서로의 짐을 나누고 사랑하는 사역을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상호 용납과 참여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중목사는 부대 내의 여러 구성원과 협력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군중상담은 교회의 목회적 돌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심방, 즉 방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목회 돌봄은 선한 목자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을 반영하며, 목회자는 다른

전문가들이 가질 수 없는 독특한 기회로 심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문은 군대 환경에서도 군종목사에게 허용되며, 이를 통해 용사들의 심리적, 영적 필요를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군종목사의 활동 범위는 종교, 교육, 선도, 대민 업무에 이르며, 평시나 전시 상황에서도 필수적으로 수행된다. 군종목사는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군대의 다양한 환경에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들의 존재는 용사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제공한다. 이렇게 군종목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대리자로서 군대 내에서 중요한 정체성을 가진다.

3) 군목회 돌봄의 실제-훈련병들을 위한 설교

설교 시,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 그런 점에서 교회의 전통적인 언어보다는 현대 청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소통이 용이해진다. 신학적인 용어 대신 일상적이고 심리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청중과의 접촉점 형성이 중요하다.

목회자는 군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어머니 같은 따뜻한 이미지로 다가가야 한다. 특히 역기능적 가정에서 온 젊은이들에게는 이러한 목회자의 접근이 특히 중요하다. 군종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훈련병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창조성을 인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며, 그 은혜의 중요성을 전달해야 한다.

이우제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설교에서 정보 중심보다는 대화와 이야기의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군입대로 인해 복잡한 심리를 가진 병사들에게는 교리 중심의 설교보다는 공감과 이

야기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야기치료의 방식을 활용해, 내담자의 과거 삶의 이야기를 분해하고 새로운 대안적 이야기를 작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설교에서도 이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개개인의 감정과 경험을 공감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시도한다. 이런 접근법은 군대의 병사들, 특히 다른 종교나 무교인 병사들에게 복음과의 접촉점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4) 돌보는 자로서의 군종목사

전요섭은 미군 군종목사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국군 군종목사의 역할을 다섯 가지로 정의하였다: 특수목회자, 심리·영적 전문가, 하나님의 대리자, 정의로운 전쟁 지지자, 그리고 죽음신학자. 군종목사는 군 내에서 특별한 돌봄의 역할을 하는 성직자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김상만은 군종목사가 군복과 계급장을 착용하며 전문적인 상담훈련을 받아 극단적인 결정에서 용사들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군종목사는 상처받고 방황하는 젊은 용사들과의 만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모성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존재로,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며 영혼을 돌보는 목자의 정체감을 가진다.

3. 질문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난 용사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군대 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로 인해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종목

사들은 이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절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이 긍정적인 자기 표상을 형성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군종목사가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자원들로 설교, 기도, 성경, 교회공동체 등을 들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자원들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아울러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공유하여 기독교가 가진 효과적인 자원들이 초기 성인기 용사들의 치유를 위한 목회적 돌봄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 되기를 바란다.

첫째, 저자는 논문의 대상이 초기 성인기 용사들을 향한 것으로 인지하였다. 초기 성인기의 용사들 중에 부대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용사들의 상당수는 역기능 가정의 용사들이다. 억압적 상황 속에서 거짓자기를 발달시켜 자신을 순응으로 위장시키거나 결국 안타까운 결말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난 용사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목회적 돌봄의 사례나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둘째, 설교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방적 선포가 아닌 청중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공감적 설교가 되어야 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초기 성인기에 들어선 청년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 양에 가깝다. 특히나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상처 입은 심령은 사랑의 하나님을 대할 때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들어서게 된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과 자애로운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감적 설교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죄인이라는 존재인식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자신의 상황의 합리화의 근거로 제시되지 않고 회심과 성화로 이끄는 설교의 제시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셋째, 28사단 사고에 따른 장례식장에서 드린 기도는 공감적 기도이자 신원적 기도에 가깝다. 목회자는 유족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을 직시한다. 군중목사는 유족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어루만지며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언자가 되어야 한다. 깊이 공감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기도의 역할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마음의 평안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정론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자기 합리화와 자기 상황에 대한 긍정으로서의 하나님 이해를 넘어서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하심에 대한 소개는 가능할 수 있는가?

넷째, 성경이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의 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성경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한다. 성경의 무수한 이야기는 존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며 성장하는 성장이야기에 가깝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간략히 언급한 임마누엘 묵상치료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좋겠다.

다섯째, 교회공동체의 중요성이다. 교회는 ‘안아주는 공동체’(holding environment)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안전하고 지지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용사들은 이러한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와 연계하여 군종목사가 부대 내 지휘관 및 기독간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역설한 것은 코로나 이후의 무너진 공동체의 중요한 해법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교회의 공동체적 면모를 일굴 수 있는지 경험적 사례를 들어 논의하면 좋겠다.

논문 기고자 **Email**

taikjokim@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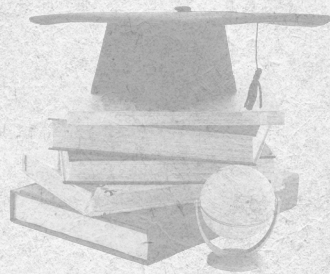
연구위원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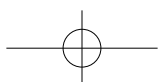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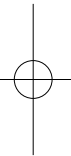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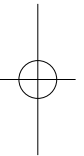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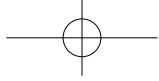
바이킹의 회심에 함유된 신학적 시사점

| 이규철 |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

| 전요섭 |







바이킹의 회심에 함유된 신학적 시사점

Theological Implications of Viking's Conversion

» 이규철 Ph. D.*

국문초록

이 연구는 급습과 침탈의 대명사인 바이킹이 그리스도교에로의 개종에 담긴 신학적 함의를 살펴본 것이다. 바이킹의 개종은 바이킹 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북유럽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며 유럽 문명사적 전환이라는 시사점을 함의한다.

바이킹이 토르를 버리고 하나님을 최고신으로 인정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기까지 유럽은 참으로 고통스러웠고, 북유럽의 선교 열망은 지난했다. 바이킹의 개종은 바이킹의 군소 왕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면서 각 바이킹 부족들도 함께 집단 개종의 특성을 보인다.

바이킹 개종은 바이킹의 회심을 위한 선교사들의 선교 열의에 힘입은 바가 크며, 야만적 바이킹의 침탈을 종식하고 선진화된 유럽의 그리스도교 문화를 수용하여 유럽과 스칸디나비아가 그리스도 문화와 문명으로 결속되었다는 문명사적 의의가 지대하다. 이런 점에서 바이킹의 회심은 기독교 선교적 의의를 넘어 중세 사회의 변혁을 촉진하는 문명의 변환기제로서 자리매김한다고 평가된다.

중심단어

바이킹의 개종, 급습, 토르, 알프레드 대제, 하랄드 부루투스

• 논문 투고일: 2023년 8월 5일 • 논문 수정일: 2023년 8월 7일

• 게재 확정일: 2023년 8월 8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신학연구위원장, 안동성결교회

1. 들어가는 말

790년 북유럽의 해안항구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스칸디나비아 바이킹들의 해상 출현은 유럽 그리스도교권(圈)의 충격과 전율 그 자체였다.¹⁾ 따라서 서유럽 그리스도교권(圈)의 중추인 프랑크 왕국과 영국은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바이킹 세력을 제압하고 동시에 그 바이킹을 회심시켜 그리스도교화되게 하는 선교 사명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바이킹을 개종시켜 그리스도교화한 것은 바이킹 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유럽 문명의 대전환을 촉진했다.

주디스 코핀과 로버트 스테이시는 바이킹이 유럽 역사와 문명에 끼친 직간접적 영향을 이렇게 집약한다.

바이킹이 무질서의 근원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아일랜드와 동부 잉글랜드에서 바이킹은 새로운 도시들을 건립했고, 그 지역에서 로마 시대 이후 처음으로 고품질 도기의 대량생산을 시작했다. 원거리 상인으로서 바이킹은 처음에는 9세기 초에, 다음으로 10세기 전반에 다량의 은을 서유럽에 반출했고 이를 통해 유럽 경제에 활력을 주었다. ...바이킹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한 유럽 여러 지역의 지배자들은 승리를 통해 얻은 높은 위상에 힘입어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왕국과 공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바이킹은 수도원에 무수히 많은 공격을 가함으로써 카롤링거 르네상스의 지적, 예술적 업적을 상당 부분 파괴했다. 그러나 바이킹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영향력은 그들의 그리스도교로의 개종과 결합하여, 유럽의 문화적, 정치적 결속을 긴밀히 함으로써 유럽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데 기여했다.²⁾

1) 주디스 코핀(Judith G. Coffin)과 '로버트 스테이시'(Robert C. Stacey)에 따르면, 790년 스칸디나비아 바이킹들이 북유럽의 해안항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는 프랑크 왕국 카롤링거 왕조의 제1대 왕인 피핀(Pippin, 751~768년 재위)의 뒤를 이은 샤를마뉴(Charlemagne)의 치세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을 때였다. 814년 샤를마뉴가 임종할 무렵, 샤를마뉴의 통치영역은 서쪽으로 에스파냐의 우마미야 지배자와 마주했고, 북쪽으로는 바이킹과 마주했다. 주디스 코핀·로버트 스테이시, 『새로운 서양문명의 역사』, 박상익 역 (서울: 소나무, 2014), 406.

2) *Ibid.*, 408.

주디스 코핀과 로버트 스테이시의 지적처럼, 초기의 바이킹은 침략과 파괴의 대명사였다. ‘최재수’는 그런 바이킹이 중세사회의 변혁을 촉진하는 문명의 변환기제로서 자리매김하였다고 이렇게 강조한다.

우리는 바이킹이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해적을 연상한다. 사실 바이킹의 역사는 해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생업이 바로 해적의 활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류의 해양활동사(海洋活動史)뿐만 아니라 유럽의 역사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매우 크다. 우선 그들은 고대에서 중세로 이어지는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을 종횡무진으로 휩쓸고 다니면서 활동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의 유럽사회 형성의 근간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러시아를 형성하는 동부유럽지역 일대도 그들의 큰 활동무대였다. 이렇게 유럽 역사를 거슬러 오르면, 바이킹과 관련되지 않은 역사가 거의 없다는 것이 쉽게 짐작된다.³⁾

주디스 코핀과 로버트 스테이시, 그리고 최재수가 공히 지적한 것처럼 폭력적 해적의 대명사인 바이킹이 중세 유럽 사회와 문명을 변혁하는 기제(機制)가 된 결정적 동인은 바이킹이 그리스도교로 돌아서는 개종에 있다고 사료된다. 바이킹의 개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바이킹의 침탈이 자행된 유럽에 끼친 지정학적 파괴를 넘어 유럽의 문화적 정치적 결속을 이루는 문명사적 의의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침략자 바이킹과 그 바이킹의 개종이 유럽 사회에 두드러진 영향을 끼쳤지만, 학계는 바이킹을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최재수의 분석에 따르면, 바이킹은 문자를 가진 민족이 아니었

3) 최재수, “바이킹의 용기의 원천,” 『해양한국』 9 (2005), 87.

고 뚜렷한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들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고 후대에도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⁴⁾ 바이킹에 대한 연구의 부재는 우리나라 학계도 예외가 아니다. 바이킹에 대한 우리나라 학계의 연구는 주로 역사 속에 두드러진 바이킹의 특성과 유럽 침탈과 관련되어 있다.⁵⁾ 이처럼 바이킹의 개종과 관련한 사계(斯界)의 연구⁶⁾는 매우 빈약하다. 바로 이 점에서 바이킹의 개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자리한다.

이에 논자는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해명하고 규명함으로써 ‘토르’(Thor)와 ‘오딘’(Odin)을 철저히 숭배했던 바이킹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귀결에 함유된 신학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바이킹이 출현할 즈음의 시대상은 어떤 형국인가?

둘째, 바이킹의 신관(神觀)에 축약된 세계관의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바이킹의 유럽 침탈 양상은 어떠한가?

넷째, 바이킹의 그리스도교로의 개종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바이킹의 개종이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본고는 이상의 질문들에 대한 통전적 검토를 통해 바이킹의 침

4) *Ibid.*, 408.

5) 학위논문은 제외하고 바이킹과 관련한 학술논문은 다음과 같다. 최재수, “바이킹의 활동과 북유럽의 해양활동의 개시,” 『해양한국』 8 (1996. 8): 90-99; 김광수, “바이킹과 북유럽상업권,” 『경영사연구』 16 (1997. 12): 45-70; 박영배, “바이킹족과 스칸디나비아어,” 『어문학논총』 19 (2000): 189-220; 삼재윤, “스칸디나비아인의 앵글러-색슨 잉글랜드 침입과 정주,” 『東國史學』 40 (2004. 12): 594-633; 최재수, “바이킹의 용기의 원천,” 『해양한국』 9 (2005. 9), 67; 김동연, “아일랜드 켈트족의 생태와 문화,” 『문명연지』 21 (2008): 109-143; 김주석, “바이킹 해적을 통해서 본 역사상 해적과 국제법상 해적의 차이,” 『전남대학교 글로벌다문화포럼 국제학술회의』 (2012): 181-200; 심종성, “바이킹 시대,” 『대한토목학회지』 70(1) (2022): 118-122.

6) 기훈,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그리스도교화-프랑크 왕국의 역할의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2021), 1-116.

탈에 따른 유럽의 정황을 파악하고, 그 바이킹이 개종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함유된 신학적 시사점을 규명해 보는 데 주력한다.

2. 바이킹의 개종과 관련한 전이해

1) 바이킹이 출현할 즈음의 시대상

‘덴마크 국립 박물관’(The National Museum of Denmark)이 ‘2022-2023 바이킹 특별 전시회’를 열면서 설정한 주제어는 “The Raid”(급습, 습격)이다.⁷⁾ 그만큼 역사 속에 각인된 바이킹의 특성은 기습적인 침략과 약탈이기 때문이다.

바이킹의 기원에 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유럽을 급습하여 충격과 공포를 가중시킨 바이킹은 게르만족을 주의 깊게 살핀 ‘타키투스’(Publius Cornelius Tacitus)의 『게르마니아』(Germania)에도 세밀히 소개되지 않는다. 단지 “넓은 반도와 큰 섬들을 포함하는 나머지 부분들은 대양에 둘러싸여 있다”⁸⁾는 정도로만 소개된다. ‘이희숙’에 따르면, 스칸디나비아에 관한 첫 기록은 로마의 철학자 ‘플리니’ (Pliny, 23 79 A.D.)의 『자연역사』(Naturalis Historia)인데 플리니는 스칸디나비아를 ‘물 위의 위험한 나라’로 묘사했다.⁹⁾ 이처럼 바이킹의 주 근거지인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고대 로마인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바이킹이 출현할 당시의 유럽인에게는 더더욱 생소한 족속들이었다. 그러기에 직접적으로 바이킹의 침입을 당한 프랑크왕국과 영

7) “Join a Viking Raid,” *Explore-Copenhagen & Danish Destinations 2022-2023* (2022), 86.

8) 타키투스, 『게르마니아』, 천병희 역 (일산: 도서출판 숲, 2012), 25.

9) 이희숙, 『바이킹 시대의 탄생과 업적』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7), 10.

국은 이들을 ‘북부인’을 뜻하는 ‘노르만’(Norman)으로도 불렀다.¹⁰⁾

중세 유럽 역사의 제2의 암흑기라 불리는 바이킹이 출현할 당시 유럽 대륙은 ‘카롤링거 왕조’(Carolingian dynasty)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광순과 이용원’에 따르면, 카롤링거 왕조의 제2대 프랑크 국왕인 ‘샤를마뉴’(Charlemagne) 대제 치하에서 서부 유럽의 통합이 이루어지자마자 곧바로 평화와 안정을 깨는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는데 바로 바이킹의 침탈이다.¹¹⁾

‘브라이언 타이어니’(Brian Tierney)와 시드니 페인터(Sidney Painter)에 따르면, 당시 샤를마뉴 대제는 프랑크 왕국과 롬바르드를 통치하였는데 피레네 산맥 아래의 스페인 변경으로부터 덴마크 반도 기슭까지 대서양과 북해 연안 지대를 지배했다.¹²⁾ 브라이언 타이어니와 시드니 페인터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바이킹이 침탈을 개시할 때 기독교인 게르만족인 앵글로-색슨족과 웨섹스의 ‘에그베르트’(Egbert)가 주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브레타뉴, 콘월, 웨일즈, 아일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에는 기독교인 켈트족이 거주하고 있었다.¹³⁾ 또한 브라이언 타이어니와 시드니 페인터는 “엘레강과 보헤미안 삼림 동쪽에는 슬라브족이 있었고, 아바르족은 헝가리 평원을 주도했으며, 이슬람은 스페인과 북아프리카를 장악한 가운데 강력한 함대로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었다”¹⁴⁾고 당시의 정세를 정리했다.

10) 김동주,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용인: 킹덤북스, 2012), 328.

11)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109.

12) 브라이언 타이어니 시드니 페인터, 『西洋 中世史-유럽의 형성과 발전』 (서울: 집문당, 2012), 42.

13) *Ibid.*, 142.

14) *Ibid.*, 142.

‘수잔 피터슨’(Susan Lynn Peterson)에 따르면, 바이킹의 침략이 개시될 무렵 ‘아드리아안 1세’(Hadrian 1)가 로마 교황으로 재직하고 있었다.¹⁵⁾ 이 무렵 샤를마뉴 대제는 ‘알쿠인’(Alcuin)을 왕자들의 스승으로 삼고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하여 학문을 크게 신장시켰다. ‘요안나 스토리’(Joanna Story)에 의하면, 샤를마뉴는 알쿠인을 프랑크 왕국 궁정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고 제국의 교육정책을 총괄하게 했다. 알쿠인은 짧고 간결하게 기록하는 라틴어를 도입하고 문법을 통일하여 영어와 프랑스어, 그리고 독일어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¹⁶⁾

이처럼 바이킹의 유럽 급습이 시작될 무렵의 유럽은 샤를마뉴의 강력한 치세 아래 프랑크 왕국의 극대화를 이루었다. 그런데 샤를마뉴가 이룬 국력의 최대 신장은 샤를마뉴 대제의 수명(壽命)과 함께 언어와 법과 전통이 제각기 다른 다양한 종족들이 각자의 세력 신장을 도모하며 프랑크 왕국의 안전성을 크게 흔들 개연성으로 상존했다. 브라이언 타이어나와 시드니 페인터는 샤를마뉴 대제 사후 전개된 상황을 이렇게 집약했다.

제국은 언어와 법과 전통이 제각기 다른 잡다한 종족을 포괄하고 있었다. 샤를마뉴 자신의 사람됨 이외에는 그들을 하나의 정치적 통일체로 규합해 줄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다. 제국의 잡다한 민족이 공통된 종교를 신봉하였고, 소수 지성적인 성직자들이 질서 잡힌 통일된 ‘기독교 왕국’(Christendom)의 이상을 제

15) Susan Lynn Peterson, *Timeline Charts of the Western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1999), 68.

16) Joanna Story, *Carolingian Connections: Anglo-Saxon England and Carolingian Francia, c. 750-870* (New York: Routledge, 2003), 7. 요안나 스토리에 의하면, 알쿠인이 세운 교육 목표는 “라틴어를 읽고, 시편을 암송하고, 구 계산을 하며, 문법에 맞게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알쿠인의 묘비명은 이렇다. “내 이름은 알쿠인이며 나는 늘 지혜를 사랑하였다”(Alcuin was my name, I always loved wisdom).

시하긴 하였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그런 이상이 프랑크 귀족들에게 주입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제국의 이러한 내재적인 해체 성향은 잦은 내란과 외적의 침입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¹⁷⁾

바이킹들이 유럽 깊숙한 곳을 향해 공격적으로 다가서던 9세기 초엽, 이슬람 세력들도 유럽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프란체스코 스토르티’(Francesco Storti)에 따르면, 바다에서 새로운 부와 재화를 찾기 위해 떠난 아랍족들은 뱃길을 통해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하여 약탈을 자행했다. 이탈리아에 정주하던 민족들은 이들 세력들을 아랍 민족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사라센’(Saracen)이라고 불렀다. 에스파냐, 아프리카, 시칠리아 해안에서 출항하여 이탈리아 남부와 프로방스 지방에 거점을 두었던 사라센인들은 9세기부터 10세기까지 집중적인 약탈을 감행했다. 사라센의 침탈은 단순히 해안 지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켄노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에 있는 부유한 수도원들을 약탈했던 것처럼 내륙 깊숙한 지역까지 이르렀다. 특히 프란체스코 스토르티에 의하면, 유럽을 침탈한 약탈자인 바이킹과 사라센의 행로는 서로 겹치기도 하고 서로 뒤섞이기도 하면서 폭력적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었다.¹⁸⁾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바이킹이 출현할 즈음의 유럽 천하는 매우 혼란스러워서 다양한 정세변화를 초래할 유동적 역동성이 배태(胚胎)되어 있었던 시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바이킹의 신관(神觀)

바이킹은 게르만족들의 전통적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 타키투스

17) *Ibid.*, 142.

18) 프란체스코 스토르티, “9-10세기의 약탈과 침략,” 움베르코 에코 편, 『중세1-야만인,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도의 시대』, 김효정 등 역 (서울: 시공사, 2015), 244.

는 게르만족들의 전통적 신관을 이렇게 전한다.

게르만족은 신들 가운데 ‘메르쿠리우스’(Mercurius)를 가장 숭배하며, 정해진 날들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그를 달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헤라클레스와 마르스에게는 허용된 종류의 동물을 제물로 바쳐 호감을 산다. …그들은 신들을 벽안에 가두거나 인간을 닮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천상의 신들의 위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숲과 원시림을 신들에게 바치며, 신앙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신비로운 존재에게 신들의 이름을 붙인다.¹⁹⁾

‘천병희’에 의하면, 타키투스는 게르만족들의 신들을 라틴어 이름으로 칭했다. 예를 들면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전령인 메르쿠리우스는 게르만족 최고의 신 ‘오딘’(Odin)을 가리키고, 그리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는 게르만족의 ‘토르’(Thor, 또는 Donar)를 칭한다.²⁰⁾

‘케빈 크로스슬리-홀런드’(Kevin Crossley-Holland)에 따르면, 고대 북유럽의 바이킹들은 “우주를 각각의 수평면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며, 하나의 수평면 위에 다른 수평면이 놓인 형태의 세 개의 중추적인 구조로 형상화시킨”²¹⁾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케빈 크로스슬리-홀런드는 바이킹의 세계관을 이렇게 집약한다.

가장 높은 수평면에는 에시르 신들 혹은 전사 신들의 영역인 ‘아스가르드’(Asgard)가 있다. …두 번째 수평면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 ‘미르가르드’(Midgard)가 있다. 미르가르드는 매우 광활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바다를 건너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졌다. …세 번째 수평면에는 미르가르드 북쪽으로, 그리고 지하로 9일을 달려가야만 도착하

19) 타키투스, *op. cit.*, 40-41.

20) 천병희, “신들과 종교,” 타키투스, *Ibid.*, 40 재인용.

21) 케빈 크로스슬리-홀런드, 『북유럽의 신화』, 서미석 역 (파주: 현대 지성, 2021), 20.

는 죽은 자들의 세상인 ‘니플하임’(Niflheim)이 있었다. 니플하임은 몹시 추운 곳이며 영원히 밤만 지속되는 곳이다. 그곳의 성채는 우뚝 솟은 방벽과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문이 있는 헬(Hell)이 있고, 같은 이름을 지닌, 반은 희고 반은 검은 끔찍한 괴물 여인이 다스리고 있었다. …세 개의 수평면과 아홉 세상의 축은 거대한 물푸레나무 ‘이그드라실’(Yggdrasill)이다. 어디서 생겨났는지 기원도 알 수 없고 라그나로크에서도 살아남는 이 거대한 나무는 몹시도 광대해서 하늘까지 닿아있다.²²⁾

케빈 크로슬러-홀런드가 축약한 바이킹의 세계관의 일단(一端)은 바이킹이 속한 게르만족들 사이에서 끝없이 벌어지는 분쟁과 쟁투라는 ‘삶의 정황’(Sitz im Leben)이 반영된 것이다. 케빈 크로슬러-홀런드는 종식되지 않는 게르만족의 종족 간 분쟁 정황에서 바이킹이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오딘 신의 위치를 이렇게 평한다.

게르만이 지배하는 유럽은 가족과 가족 간에, 부족과 부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문화는 모름지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신을 찾게 마련이므로 북유럽 세계도 자신의 여러 특징 가운데 하나인 폭력을 정당화시켜 줄 신이 필요했다. 오딘은 초기 게르만의 전쟁 신인 ‘보단’(Wodan)과 ‘티와즈’(Tiwaz)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아 무엇보다도 전투의 신(神)으로 나타났다. 무섭고 오만하며 변덕이 심한 오딘은 발키리들에 의해 선택되어 그곳까지 오게 된 죽은 전사들에게 여흥을 베푼다. 전사들은 라그나로크에 오딘과 함께 싸울 사람들이다. 그리고 오딘은 인간과 동물을 속죄하는 제물로 바치기를 요구한다. 오딘은 전투에서 이기도록 영웅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한편, 시인에게도 시를 짓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준다.²³⁾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게르만족의 세계관을 지닌 바이킹의 신관은 바이킹이 분출하는 강력한 호전성의 바탕이 된다. 특히 바

22) *Ibid.*, 20-24.

23) *Ibid.*, 30.

이킹들은 전투 중 용맹하게 전사한 용사들이 신들의 영역인 아스가르드에서 용승한 여흥을 즐기게 된다고 확신한다. 이는 바이킹들이 전쟁과 죽음을 두려움의 요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영예로 삼는 기회가 되는 결정적 배경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바이킹의 신관은 바이킹 전사들의 현실 세계와 사후 세계가 연결되는 구심적 역할을 한다고 판단된다.

3. 바이킹의 유럽 침탈

유럽을 침탈한 바이킹의 침공 양상은 어떠했는가? 프란체스코 스토르티에 따르면, 독일어 ‘비크’에서 파생한 바이킹(Viking)은 일반적으로 스칸디나비아에서 활동하던 해적들을 가리켰으며, 종종 ‘북쪽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노르만 민족을 의미했다. 바이킹들은 무역과 약탈에 차이를 두지 않았고, 9세기 초엽부터 약탈자로서 활약하기 시작했다.²⁴⁾

‘라스 브라운워스’(Lars Brownworth)의 입장도 프란체스코 스토르티에의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 라스 브라운워스에 따르면, 바이킹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9세기의 기록에는 바이킹들을 ‘북방인(Northmen), 데인인(Danes), 노르드인(Norse), 이교도(Heathen)’라 불렀다. 11세기 이후 앵글로색슨족은 ‘바다 침략자’라는 뜻의 ‘wic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옛 스칸디나비아어 ‘vic’은 후미(後尾), 만(灣)이라는 뜻이다.²⁵⁾

24) 프란체스코 스토르티에, *op. cit.*, 243.

25) 라스 브라운워스, 『바이킹의 역사-바다의 늑대』, 김홍욱 역 (서울: 에코리브르, 2018), 18. 라스 브라운워스에 의하면, 오슬로 피오르드(fjord)만은 칼을 주조하는 철의 주요 생산지였다. ‘바이킹’이라는 말은 그 만의 지역민을 일컫던 데서 비롯되어 점차 모든 스칸디나비아의 침략자를 아우르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아라스(Arras)의 ‘성 바스트’(St. Vaast) 수도원에서 10세기 초에 작성된 일련의 연대기(Annals of St-Vaast)는 바이킹족의 살벌한 침공 현장을 이렇게 집약한다.

북방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살육하고 끌어가기를 그치지 않고 교회를 파괴하고 동네를 불태우는 것을 쉬지 않는다. 어느 곳이나 성직자, 귀족, 평신도, 평민, 그리고 여자들의 죽은 시체들만 즐비하다. 시체로 땅에 덮이지 않는 길이나 장소가 거기에는 없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파멸의 광경 앞에서 조심과 걱정 가운데 산다. 이는 암흑의 시기이다.²⁶⁾

‘사이먼 쿠프랜드’(Simon Coupland)는 “유럽 각국에 대한 바이킹의 침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강력한 요인은 ‘재빠른 기습’에 있었다”²⁷⁾고 분석했다. 바이킹들은 방비가 허술한 주거지역들을 기습한 후 토벌군이 편성되기 전에 신속하게 후퇴했다. 초기 바이킹의 약탈 지역이 주로 해안 지역이었던 것은 바이킹의 이러한 전략 때문이었다. 그런데 점차 대담해진 바이킹들은 내륙 깊은 곳까지 진출을 모색하여 그들이 점령한 지역을 장기간 점유하기도 했다. 그럴 경우 바이킹들은 적당한 장소에서 휴지기를 보내고 그 이듬해에 약탈에 나서기도 했다.²⁸⁾

약탈자 바이킹의 비약적인 해상 진출의 원동력은 뛰어난 선박 건조 기술에 기반한 항해술에 있다. 라스 브라운워스는 바이킹의 선박 건조 기술 능력을 이렇게 집약한다.

26) Steve Bivans, *Vikings, War, and the Fall of the Carolingians: A Critical English Translation of the Annals of Saint Vast* (LONDON: Shireness Pub., 2017), 69.

27) Simon Coupland, “The Vikings in Francia and Anglo-Saxon England to 911,” *THE NEW CAMBRIDGE MEDIEVAL HISTORY*, Vol. II c.700-c.900, Ed., Rosamond McKitteric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190.

28) *Ibid.*, 196.

초기의 바이킹 선박은 로마와 켈트족의 디자인을 본뜬 것이었다. 여느 선박과 마찬가지로 바이킹의 배도 속도가 느리고 거친 바다에서 잘 뒤집혔다. 그러던 8세기 어느 때쯤 이들은 용골(龍骨)을 창안해냈다. 이 단순한 구조물이야말로 항해술의 발전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 육지를 벗어나 멀리까지 모험을 나서는 유럽인이 거의 없던 시절에 바이킹은 목재·동물·식량 등을 싣고 대서양을 중형무진 누비고 다녔다. 특히 군함인 '롱십'(longship)은 힘과 유연성과 속도가 기막히게 어우러진 결과물이었다. 해수면에서 미끄러지듯 나아가도록 고안된 롱십은 특수 기술 없이도 지역에서 확보한 재료만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 이때는 참나무 널빤지를 겹 붙여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배가 파도 속에서 방향을 틀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바이킹의 롱십은 해양을 횡단하는 큰 배에 달린 용골이 없었으며, 상대적으로 흘수가 얕아서 깊은 항구가 필요한 다른 선박들과 달리 사실상 어느 물에든 뱃 수 있었다. 따라서 롱십은 강 위쪽까지 항해하는 것이 가능했다. 게다가 일부 롱십은 들고 나를 수 있을 만큼 가볍기까지 했다. 바이킹 시인들은 롱십을 '파도 타는 준마'라고 불렀지만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늑대'라고 표현하는 게 더 알맞았다. 하지만 롱십과 관련하여 가장 놀라운 점은 속도였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4노트로 항해했고, 최대 8~10노트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그 덕에 바이킹은 거의 실패 없이 기습 공격에 성공했다.²⁹⁾

라스 브라운워스에 따르면, 바이킹의 주 근거지인 오늘날의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가 자리한 스칸디나비아는 극한의 땅이었다. 이들 중 그나마 기후가 좋은 땅은 덴마크였다.³⁰⁾ 덴마크는 서부 연안을 오늘날의 독일과 공유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서쪽 방향으로 탐험에 나섰다. 덴마크 바이킹은 저지대 국가와 프랑스 각지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영국해협을 건너 영국까지 진출했다. 이들은 거기에서

29) 라스 브라운워스, *op. cit.*, 43-46.

30) *Ibid.*, 31.

부터 에스파냐와 이탈리아도 공략했다.³¹⁾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덴마크보다 기후가 한층 더 험악하다. 이 지역의 동부 해안은 러시아 쪽을 바라보고 있기에 스웨덴 바이킹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러시아 쪽으로 향했다. 스웨덴 바이킹은 침략만이 아니라 통상을 위해서 진군했다. 바이킹 땅에서 가장 험준한 곳은 노르웨이다. ‘북쪽 길’(Northern way), 노르웨이(Norway)라는 이름이 암시하듯, 노르웨이는 영토의 약 3분의 1이 북극권보다 더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특히 노르웨이의 기다란 서부 연안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섬들을 이루는 피오르드들이 마치 장벽처럼 차가운 대서양의 파도를 절묘하게 막아준다. 이런 지형에 익숙한 노르웨이 바이킹은 북해로 모험을 나설 때면 당연히 서쪽을 택했다.³²⁾

‘데니스 더신’(Denise Dersin)에 따르면, 바이킹의 이런 놀라운 팽창의 추진력은 부분적으로 스칸디나비아의 정치적 불안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렇게 집약한다.

노르웨이의 ‘금발 왕 하랄’은 무력으로 왕국들을 통합하면서 라이벌 수장들을 제거했다. 수장들 중 일부는 앞서서 당하기보다는 지지 세력을 이끌고 해외모험에 나서게 되었다. 금발왕 하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스칸디나비아인(이들 중 대부분은 노르웨이인)은 870년과 930년 사이에 대서양을 건너가 아이슬란드에 정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바이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982년 아이슬란드인 ‘붉은 머리 에리크’는 서쪽으로 모험을 떠나 그린란드를 탐험했고, 몇 년 뒤에는 그 곳에 식민지를 건설했다. 아버지의 탐험 정신을 물려받은 에리크의 아들 ‘레이브 에릭슨’(Leifr Eiriksson)은 1000년경에 그린란드를 출발해 북아메리카에 고대 노르드어로 ‘빈랜드’(Vinland) 곧 오늘날의

31) *Ibid.*, 32.

32) *Ibid.*, 32-33.

‘뉴펀랜드’(Newfoundland)를 발견하여 정착촌을 건설했다.³³⁾

전반적으로 바다의 침략자 바이킹들이 유럽을 침탈한 과정은 매우 치열했고 폭력적이었다. 특히 ‘이광순’과 ‘이용원’은 “바이킹족들이 학문과 경건의 센터였던 수도원에 자석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몰려와서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의 목숨을 칼날의 이슬로 보내며 수도사들을 노예로 파는데서 희열을 얻었다”³⁴⁾고 지적한다.

바이킹은 노르웨이로부터 아프리카 북부 해안과 대서양에서 카스피 해에 이르는 매우 넓은 지역에 수시로 출몰하여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나갔다. 프란체스코 스토르티에 의하면, 911년 바이킹의 지도자였던 ‘롤로’(Rollo, 846-931)가 ‘단순왕 샤를’(Charles the Simple, 879-929)에게서 노르망디 지역의 영주 지위를 받으면서 바이킹족의 공격적인 성향이 많이 둔화되었다.³⁵⁾ 이와 동일하게 프랑스인화된 바이킹 전사들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안정적 기획들을 실천에 옮겼다. 그 결과 영국과 시칠리아에서 노르망디 왕국을 구성했다. 이로써 바이킹들의 영역은 서유럽으로 확대되었다. 프란체스코 스토르티는 스칸디나비아 바이킹들이 자행한 침략 양상을 이렇게 정리했다.

덴마크인들은 북해의 해안 지역과 영국 해협에서 활동했고 큰 강을 따라 대륙으로 진출했다. 노르웨이인들은 서쪽으로 나아갔으며, 태평양의 제도,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연안을 거쳐 아일랜드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린란드와 알래스카에 도착했다. 스웨덴 사람들은 종종 ‘바랑기아인’(Varangians)이라고도 불리며 슬라브어로는 ‘루스’(Rus)라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들은 주로 동쪽을 향해 나아갔다. 이들은 발트 해를 지나 볼가 강, 드비나 강, 드네프르 강을 거쳐 슬라브족과 섞이기 시작했고, 이후 카

33) 데니스 더신, 『바이킹의 역사』, 이종인 역 (서울: 가람기획, 2004), 11.

34) 이광순·이용원, *op. cit.*, 109.

35) 프란체스코 스토르티, *op. cit.*, 243.

스피해와 흑해로 진출해서 비잔티움 제국과 연합해 아랍과 무역 경쟁을 벌였다.³⁶⁾

그렇다면 바이킹의 폭거에 대항하는 유럽 각국의 대응점의 특성은 무엇일까? 프란체스코 스토르티는 유럽 각국이 바이킹의 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정치적 특이점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약탈의 위험에 대항했던 민족에게서 군사적인 요소가 발전했으며, 공격을 막기 위해 지역 단위로 구성되었던 공공의 권력은 분할되기 시작했다. 이미 이런 일들이 카롤링거 왕조 시대에 일어났으며, 점차 영토의 분할이 이루어지고 이는 다시 유럽을 봉건 제도에 따라 재편하도록 했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바이킹의 폭력적 침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바다의 항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³⁷⁾

4. 바이킹의 개종과 신학적 시사점

1) 바이킹의 개종 과정

바이킹의 개종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바이킹의 개종 과정은 바이킹의 부침(浮沈)과 궤를 같이 하는 특성을 띤다. ‘허버트 케인’(J. Hebert Kane)에 따르면, 스칸디나비아의 바이킹은 9세기의 영국과 유럽 대륙에게 재앙과도 같은 존재였다. 바이킹들의 습격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수도원과 교회는 많이 파손 되었고 한동안 영국교회의 선교사역이 종식을 고할 것 같은 위협을 느꼈다.

그런데 898년에 ‘알프레드 대제’(Alfred the Great, 849-899)가 바이킹에게 결정적 승리를 거두자 바이킹의 거친 공세에 변화가 왔고, 거

36) *Ibid.*, 244.

37) *Ibid.*, 247.

의 30여 명의 바이킹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³⁸⁾ 이즈음 몇몇 대담한 선교사들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선교 열매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왜냐하면 스칸디나비아 바이킹들은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지속했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³⁹⁾ 그렇다고 해서 바이킹에 대한 복음 선교가 멈춘 것은 아니었다. 허버트 케인에 의하면, '경건왕 루이스'(Louis the Pious, 778-840)는 유럽 북부 지역에 기독교를 확대시키려고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허버트 케인은 바이킹족 선교를 위한 경건왕 루이스의 노력을 이렇게 집약한다.

823년 경건왕 루이스는 라임즈의 대주교인 '에보'(Ebo)를 덴마크에 파송하였다. 경건왕 루이스는 군대의 힘을 빌려 선교하지 않았다. 그래서 즉각적인 선교 결과는 거의 없었다. 이에 경건왕 루이스는 두 번째 선교사로 일찍이 '콜럼바'가 코비에 세운 유명한 수도원에서 훈련을 받은 프랑스 수도사 '안스카'(Anskar, 801-865)를 파송했다. 하나 바이킹들의 극심한 적대심 때문에 선교 결과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후에 그 안스카는 루이스 왕의 명령에 따라 스웨덴을 두 번 방문하였다. 그 중 한 번은 올라프 왕의 초청에 따른 것이었는데, 선교 여정 중 안스카는 해적들의 습격을 받아 소지품을 모두 탈취당했다. 그럼에도 안스카는 두려움 없이 스웨덴에 도착하여 8개월을 지내는 동안 많은 귀족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했고, 스웨덴 최초의 교회를 설립했다. 경건왕 루이스는 교황 그레고리 4세와 협력하여 귀국한 안스카를 전(全) 스웨덴, 덴마크, 북부 유럽의 슬라브족에 대한 교황 사절로 임명하였다. 832년경 안스카는 함부르크의 대주교로 위임되었다. 안스카는 즉각 자기의 사역지가 바이킹 선교의 방대한 연결망을 형성하는 본부가 되게 하였다. 안스카는 스칸디나비아 전역에 파송할 선교사 훈련을 지원하고자 과거 그와 함

38) 허버트 케인, 『기독교 세계 선교사』,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64.

39) *Ibid.*, 65.

게 했던 수도사들을 불러 선교 팀을 꾸렸다. 안스카의 이 같은 노력과 지혜는 덴마크 왕 ‘호릭’(Horic)으로부터 전적인 신임을 받았다. 그로인해 원래 기독교를 신랄하게 대적하던 호릭은 덴마크에 두 곳의 교회를 설립하도록 조치했다.⁴⁰⁾

바이킹 전도에 심혈을 기울인 안스카의 사역은 신앙의 확장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 전개되었다. 그런 점에서 안스카가 거둔 선교 사역의 열매는 일명 독일의 사도라 칭하는 ‘보니페이스’(Boniface, 675-754)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스칸디나비아 바이킹들이 궁극적으로 개종하도록 한 안스카의 수고는 바이킹 선교의 원초적인 계기가 된다고 사려된다.

덴마크 바이킹의 개종은 “관제처럼 부여진”(빌립보서 2: 17) 안스카의 헌신이 있던 지 약 70년 뒤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허버트 케인에 의하면, 934년 ‘독일의 사냥꾼’이라고 하는 ‘헨리 왕’(Henry the Fowler)이 덴마크를 예속시키고 난 뒤 선교 환경에 극적인 변화가 찾아 왔다. 함부르크의 대주교 ‘운니’(Unni)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약 70년 전 안스카가 정초를 놓은 바이킹 선교를 다시 강화했다.⁴¹⁾ 허버트 케인에 따르면, 덴마크의 교회는 덴마크 통치자의 성향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곧 ‘하랄드 블루투스’(Harald Bluetooth) 치하에서 기독교는 융성했다. 하지만 하랄드의 아들인 ‘스웨인’(Sweyn) 치하에서는 다시 쇠퇴했다. 덴마크의 개종은 1018년에서 1035년 사이 덴마크와 영국을 지배했던 ‘카누테’(Canute)때에 이루어졌다. 곧 11세기말 카누테 왕의 초청으로 12명의 영국 선교수도사가 덴마크에 가서 수

40) *Ibid.*, 65-66.

41) *Ibid.*, 66.

도원을 세웠다. 이에 허버트 케인은 1104년 덴마크에 대주교 제도가 생김으로써 덴마크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⁴²⁾

허버트 케인에 의하면, 노르웨이에 복음이 전달된 것은 덴마크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영국 왕 ‘하아콘’(Haakon) 때였다. 노르웨이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게 한 것은 ‘올라프 트리그바슨’(Olaf Tryggvason, 963-1000)이 영국을 통치할 때였다. 기독교가 노르웨이의 국교가 된 것은 올라프 트리그바슨의 후계자인 ‘올라프 하랄드슨’(Olaf Haraldson)이 복음에 적대적인 이교도를 척결함으로써 11세기 경에 성사되었다.⁴³⁾

허버트 케인은 스웨덴 바이킹에 대한 선교의 경우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덴마크의 영향보다는 영국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10세기 스웨덴에는 많은 영국인 선교사들이 진출해 있었다. 그 선교사들의 헌신 속에 스웨덴 왕 ‘올라프 스코트코닝’(Olaf Scotkonung, 993-1024)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의 전진을 도왔다. 그런데 스코트코닝은 강제력을 동원하여 개종을 강요한 노르웨이의 제왕(諸王)들과는 달리 강제적 개종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올라프의 아들 ‘아누드 야곱’(Anund Jacob, 1024-1066)은 스웨덴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통치하면서 스웨덴 전역에 기독교를 확산시켰다. 이윽고 1164년 ‘옵살라’(Uppsala)에 최초의 감독제가 시행되면서 스웨덴은 기독교 국가로서 존립하게 된다.⁴⁴⁾

‘안데르스 윈로스’(Anders Winroth)는 이상에서 살펴 본 스칸디나

42) *Ibid.*, 67.

43) *Ibid.*, 67.

44) *Ibid.*, 67-68.

비아 바이킹들의 그리스도교에로의 개종 과정을 세 단계로 집약한다. 첫 번째 단계는 선교사들이 스칸디나비아에 선교 개척을 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대한 안데르스 윈로스의 평가에 따르면, 당시 몇몇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교가 스칸디나비아 전역에 정착하지는 못했다. 두 번째 단계는 10-11세기 '스칸디나비아의 왕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때이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바이킹족 왕들은 그들이 다스리는 자국의 이교(異敎) 신앙을 타파하고 그리스도교를 유입하고자 했지만 그 수용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으며 심지어 왕이 살해되기도 했다. 세 번째 단계는 바이킹들이 개종을 하고 바이킹의 주 거주 지역에 '정식으로 교회의 제도가 자리 잡은 것'이다. 안데르스 윈로스는 이로써 바이킹의 그리스도교에로의 개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⁴⁵⁾

2) 바이킹 개종의 신학적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스칸디나비아 바이킹들의 개종이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재앙과도 같았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바이킹들의 점진적 개종 과정 속에 함유된 신학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자.

첫째, 바이킹의 회심을 위한 선교사들의 선교 열의

스칸디나비아 바이킹들의 개종은 바이킹들의 회심을 위한 선교사들의 희생적 선교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 '닐스 룬드'(Niels Lund)에 따르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첫 번째 선교사로 나선 이는 '우트레히트의 빌리브로드'(St. Willibrord of Utrecht)로서 덴마크의 아칸디르(Agantyr) 궁전을 다녀간 것으로 전해지나 사료가 부족하여 눈에 띄

⁴⁵⁾ Anders Winroth, *The Conversion of Scandinavia: Vikings, Merchants, and Missionaries in the Remaking of Northern Europe*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4), 104.

는 업적을 파악하기는 힘들다.⁴⁶⁾ 안데르스 윈로스에 의하면, 빌리브로드에 이어 스칸디나비아 선교에 나선 이는 경건왕 루이의 소꿉친구로 알려진 ‘에보’이다. 813년에 랭스(Reims)의 대주교로 임명된 에보는 교황 ‘파스칼 1세’에 의해 북쪽 땅의 그리스도교화를 위한 교황 특사로서의 권한을 받았다.⁴⁷⁾ 에보 다음으로 스칸디나비아 선교의 주역이 된 이는 프랑크 왕국 출신 안스카이다. ‘강창헌’에 의하면, 안스카는 826년 경건왕 루이의 명에 따라 데인족 ‘하랄드 클라크’와 함께 데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지만 그리 의미 있는 활동은 하지를 못했다. 그런데 829년 스웨덴 지역을 통치하던 ‘비외른’(Birni)이 프랑크 왕국에 선교사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경건왕 루이는 안스카를 스웨덴 선교사로 파송했다. 안스카는 동행한 ‘비트마르’(Witmar)와 함께 많은 이들을 개종시켰고, 비르카에 교회를 세우는 등 나름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펼쳤다.⁴⁸⁾

그런데 9세기 중반 무렵부터 프랑크 왕국의 정세가 매우 복잡해졌다. 또한 스칸디나비아 지역에도 강력한 권력 투쟁이 벌어져 안스카의 선교 활동 또한 난맥상에 처했다. 더욱이 840년 경건왕 루이가 사망하자 프랑크 왕국은 분할 통치되면서 내적 일치가 흔들렸다. 설상가상으로 845년에는 함부르크가 바이킹의 습격을 받아 파괴되었다. 이 무렵 스웨덴에 세워져 있던 교회들도 파괴되어 버렸다.⁴⁹⁾ 그

46) Niels Lund, “Scandinavia, c. 700-1066,” *The New Cambridge Medieval History*, Vol. II, C.700-C.900, Ed., Rosamond McKitterc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08-209.

47) Anders Winroth, *op. cit.*, 105.

48) 강창헌, “안스카리오,” 『한국가톨릭대사전』 Vol. 8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5814.

49) Niel Lund, *op. cit.*, 210.

런 험악한 상황에서도 안스카는 데인족 선교에 심혈을 기울였다. ‘림베르테’(B. Rimberte)는 바이킹 데인족에 대한 안스카의 선교 열의를 이렇게 집약한다.⁵⁰⁾

함부르크 교구가 파괴되자 848년 안스카는 브레멘(Bremen)의 주교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선교를 재개했다. 그리고 850년에는 데인족의 지도자 ‘호릭’(Horik)의 허가를 얻어 다시 스칸디나비아 지역으로 향할 수 있었다. 안스카의 선교 활동은 특히 데인족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호릭이 그리스도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으며 이에 안스카리우스는 교역지였던 ‘헤더비’(Hedeby)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 시기에 안스카는 프랑크 왕국의 보호와 호릭의 도움으로 스웨덴 지역의 지도자 ‘올레프’(Olef)로부터 선교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과거 선교 활동을 펼쳤던 ‘비르카’를 다시 방문하여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재건했다.⁵¹⁾ 안스카가 비르카로의 두 번째 여행을 마치고 브레멘 교구로 돌아왔을 때 호릭이 죽고 그의 친척 ‘호릭 2세’(Horik II)가 그 자리를 이었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헤더비의 교회가 폐쇄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호릭 2세는 헤더비 교회의 유지뿐 아니라 유탄란드 반도에 위치했던 교역지 ‘리베’에도 교회의 설립을 배려했다.⁵²⁾ 안스카는 호릭 2세가 집권하자 마지막으로 스칸디나비아를 향했다. 이후 함부르크와 브레멘 두 지역 모두 독일왕 루이의 영토에 속하게 되자 교황 ‘니콜라오 1세’(S. Nicolaus I, 858-867)의 승인으로 두 교구가 합쳐져 함부르크-브레멘 대교구를 창설했다. 864년 안스카는 함부르크-브레멘 교구의 초대 대주교로 임명되었는데, 안스카는 대주교로 임명된 다음 해인 865년 세상을 떠났다.⁵³⁾

50) B. Rimberte, *Vita Anskarii*, Tr., Charles H. Robinson, *Anskar, the apostle of the North, 801-865* (London: The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in foreign parts, 1921), 77-82.

51) *Ibid.*, 85-91.

52) *Ibid.*, 102-103.

53) *Ibid.*, 77-82.

이처럼 안스카가 북유럽에서 바이킹을 상대로 한 선교활동은 스칸디나비아 선교 역사의 전환점을 형성하였다. 이런 점에서 안스카는 ‘스칸디나비아의 사도’라는 칭호를 받기에 충분하다. 함부르크브레멘 교구는 안스카 사후에도 계속해서 스칸디나비아 지역 선교의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한다.

안테르스 윈로스에 따르면, 안스카 사후 스칸디나비아 선교에 힘을 기울인 선교사는 ‘아달가르’(Adalgar, 909)와 ‘운니’(Unni)이다. 특히 운니는 덴마크와 스웨덴 지역을 다니며 선교에 힘썼고 936년 비르카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로 보건데 안스카 사후(865년)부터 운니가 생을 마감한 936년까지 스칸디나비아 바이킹들의 개종을 위한 선교 노력이 계속되었다고 판단된다.⁵⁴⁾

종합적으로 보면, 스칸디나비아 바이킹들에 대한 선교는 스칸디나비아 바이킹들의 침탈 상황에서 프랑크 왕국의 선교사들의 열렬한 열의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바이킹에 대한 초기 선교는 소기의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그런데 10세기에 들어서서 스칸디나비아 바이킹들의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바이킹 개종의 새로운 전기가 주어졌다. 곧 바이킹의 군소 왕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면서 각 바이킹 부족들도 함께 개종을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적 열의를 가진 선교사들이 바이킹을 향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은 마침내 발아하여 스칸디나비아 전역의 바이킹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바이킹 개종은 바이킹의 회심을 위한 선교사들의 선교 열의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54) Anders Winroth, *op. cit.*, 111.

둘째, 바이킹의 왕들의 개종에 이은 바이킹 부족들의 집단적 개종

바이킹족들의 개종은 바이킹족들의 왕이 먼저 개종을 하고 이어 바이킹 부족들이 집단적 개종(a mass conversion)⁵⁵⁾을 하는 특성을 보인다. 안데르스 원로스에 의하면, 10세기부터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왕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왕들은 그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⁵⁶⁾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바이킹 왕들은 바이킹들의 내부적 반대에 직면하면서도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에 그리스도교를 정착시켜 나갔다.

스칸디나비아 바이킹들의 개종과 관련한 ‘케니스 래토레트’(Kenneth S. Latourette)의 평가에 따르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거의 같은 때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했지만 좀 더 정밀히 살펴보면 노르웨이 바이킹보다 덴마크 바이킹이 좀 더 일찍 개종하기 시작했다.⁵⁷⁾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덴마크 바이킹의 ‘하랄드 블루투스’(Harald Bluetooth) 왕을 꼽을 수 있다.

안데르스 원로스에 따르면, 하랄드의 아버지이자 선대(先代) 왕인 ‘고름’(Gorm)은 철저히 반(反)그리스도교적 행보를 하였다. 때문에 하랄드 블루투스 또한 스칸디나비아에서 행해지던 바이킹의 엄혹한 종교 관습을 준수했다. 하랄드 블루투스는 고름이 세상을 떠나자

55)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에 따르면, 집단개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새로운 백성 중에서 자기 집단으로부터 기독교신앙으로 옮겨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집단을 통해 연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하신” 것이다. Donald A. McGavran, *The Bridge of God: A Study in the Strategy of Mission* (New York: Friendship Press, 2005), 23.

56) *Ibid.*, 112.

57) 케니스 래토레트, 『基督教史』, 윤두혁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577.

(958년) ‘엘링’(Jelling)에 스칸디나비아 양식을 준용한 웅장한 무덤을 건설했다.⁵⁸⁾ 그런데 이토록 바이킹의 관습을 중시했던 하랄드 부루투스는 고름의 사망 이후 10년도 안 되어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리고 하랄드 부루투스의 아들들은 “아버지 하랄드 부루투스가 덴마크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했다”고 자랑스럽게 소개했다.⁵⁹⁾

하랄드 부루투스가 급격하게 개종을 결심한 동기가 무엇일까? ‘프레벤 죄렌센’(Preben Meulengracht Sørensen)에 따르면, 하랄드 부루투스는 선교사 ‘포포’(Poppo)가 뜨겁게 달군 쇠를 붙잡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혀 요동치 않고 평온하게 그 모든 수난을 감내하는 것에 감명을 받아 개종을 결심했다.⁶⁰⁾ 여기에 라스 브라운워스는 하랄드 부루투스의 개종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해석을 한다.

선왕의 유해를 처리하고 난 하랄드 부루투스는 비로소 덴마크 왕국에 자신의 권위를 각인하는 일에 주력할 수 있었다. 고름 국왕이 덴마크 왕국을 건설했다면 아들 하랄드 부루투스는 덴마크를 국가로서 우뚝 세웠다. 그는 이질적인 유틀란트의 여러 부족을 단일민족으로 통합했으며, 그들을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남부 지역과 일시적으로 손잡도록 이끌었다. 하랄드는 백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왕이나 법률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는 모종의 이상(理想)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는 기독교가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판단했고, 965년 자신이 먼저 공식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했다. 하랄드 부루투스는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

58) Anders Winroth, *op. cit.*, 113.

59) 케니스 레토레트, *op. cit.*, 577.

60) Preben Meulengracht Sørensen, “Religions Old and New,” PETER SAWYER ED., *THE OXFORD ILLUSTRATED HISTORY OF THE VIKINGS*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01), 206. 프레벤 죄렌센에 의하면, 하랄드 부루투스는 자기를 도우러 온 노르웨이의 ‘얼 하콘’에게도 세례를 받게 하고 노르웨이 지역에 그리스도교가 전파 되도록 신부와 교사들을 파송하는 등 복음 전파에 적극 협조했다.

해 꽤나 심사숙고했다. 당대의 역사가 ‘비두킨트’(Widukind)는 하랄드 부루투스에 대해 “듣는 데는 열심이지만 말하는 데는 신중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⁶¹⁾

이런 점에서 덴마크 바이킹이 그리스도교화로 집단 개종한 것은 하랄드 부루투스 왕의 개종이 결정적 모멘텀이었다고 평가된다. 뒤 이어 덴마크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를 표방한 나라로서 존립하게 된 것은 바이킹 왕 ‘카누트’(Canute) 치하(治下)에서였다. 케니스 라토레트는 카누트의 친(親)그리스도교 행보를 이렇게 정리한다.

1019년부터 카누트가 죽던 해인 1035년까지 잉글랜드와 덴마크의 왕이었으며, 한때 노르웨이의 지배자였던 크누트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크누트는 특히 1020년부터 그리스도교 운동을 열렬히 뒷받침했다. 카누트는 로마로 순례 여행을 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1년에 세 번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명령을 내렸다.⁶²⁾

노르웨이 바이킹족의 개종은 덴마크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케니스 라토레트는 노르웨이 바이킹의 개종 과정을 이렇게 집약한다.

노르웨이 통일에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한 ‘하랄드 페어헤어’(Harald Fairhair)의 아들 ‘하아콘’(Haakon)은 영국 왕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육을 받은 뒤 그의 백성을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이끌려고 애썼으나 지주(地主)들의 극심한 반대를 받았다. 하아콘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덴마크의 하랄드 부루투스가 스스로 노르웨이의 왕이 되어 그 땅에다 그리스도교를 보급시키려 애썼으나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단명(短命)한 노력이기는 했어도 하랄드 페어헤어의 증손인 ‘올라프 트릭바손’(Olaf Tryggvason)의 노력이 더 효과적이었다. …어린 시절 바이킹에게 포로가 되어 노예로 팔린 올라프 트릭바손은 그

61) 라스 브라운워스, *op. cit.*, 263-264.

62) 케니스 레토레트, *op. cit.*, 578.

의 숙부에 의해 구조되었다. 그러나 바이킹의 습속을 벗어나지 못한 트릭바손은 잉글랜드를 급습하기도 했다. 트릭바손은 잉글랜드 서남해안 '실리군도'(The Scilly Islands)의 한 은둔자에게 세례를 받고 '윈체스트'(Winchester)의 감독에게 견신례를 받았다. 995년에 노르웨이로 돌아가 왕으로 선출된 트릭바손은 모든 노르웨이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게 하고 동시에 세례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를 위해 트릭바손은 설득이 가능한 곳에서는 설득을, 폭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폭력을 통해 그 과정을 성취했다. 때때로 트릭바손은 이교도의 신전을 파괴하고 반대파를 죽이기도 했다. 그렇게 하여 1000년경 노르웨이는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교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트릭바손은 덴마크와 스웨덴이 그를 대적한 노르웨이 사람들과 일대해전(一大海戰)을 벌이던 중 전사했다.⁶³⁾

'김선미'에 따르면, 9세기부터 스웨덴 바이킹들에게 서서히 복음이 증거 되기 시작했으나 바이킹들은 그리스도교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웨덴 바이킹의 개종은 안스카의 사역 이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11세기 초 '올로프 셋코농'(Olof Skötkonung, 980~1022년) 왕이 세례를 받은 뒤부터 스웨덴 지역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교화되어갔다. 올로프 셋코농의 집권 기간에 '베스터괴틀란드'(Västergötland) 지역에는 교구가 설립되기도 했다.⁶⁴⁾ 그런데 올로프 셋코농 치하 때 베스터괴틀란드에 교구가 설립되었다고 해서 스웨덴 지역 전체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것은 아니었다. 스웨덴 바이킹들이 읍살라에 있는 이교 사원을 파괴한 것은 1080년이었기 때문이다. 김선미에 의하면, 스웨덴 바이킹의 그리스도교화는 지난날 바이킹의 신전이 있던 읍살라에 그리스도교의 자치적이고 독

63) *Ibid.*, 578-579.

64) 김선미, "스웨덴," 『한국가톨릭대사전』 Vol. 8, 5227.

립적인 지역교회들의 연합인 ‘관구’(管區, provincia)가 설립된 1164년부터이다.⁶⁵⁾

이처럼 스칸디나비아 바이킹들의 개종은 스칸디나비아 각국의 왕들이 먼저 개종을 하고 뒤이어 신민(臣民)이 개종을 하는 순차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스칸디나비아의 이 같은 개종의 과정은 스칸디나비아의 그리스도교회가 국가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특화된 집단개종의 특성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각 바이킹족 왕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것은 행정과 학문과 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성직자들의 지성이 원활하게 유입되어 스칸디나비아 바이킹 왕들의 통치에도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는 상생기제가 되었다고 사려 된다.

셋째, 바이킹 개종의 문명사적 의의

바이킹의 그리스도교로의 개종은 문명 결속이라는 문명사적 의의를 내포한다. 무엇보다도 침탈을 위한 바이킹의 놀라운 항해술은 로마의 멸망 이후 단절된 유럽사회를 다시 연결하고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발레리 한센’(Valerie Hansen)에 따르면, 바이킹들은 A.D. 1,000년경 바이킹의 본거지 스칸디나비아를 뒤로 하고 북대서양을 넘어 유럽인으로서 처음으로 캐나다 북동해안에 있는 뉴펀들랜드 섬에 도착했다. 바이킹의 이 여정은 ‘아프로-유라시아’(Afro-Eurasia)로 불리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와 연결하는 탐험이었다.⁶⁶⁾ 이처럼 바이킹의 침탈 항해에 의해 대륙들이 연결되어 사람들뿐 아

65) *Ibid.*, 5227. 스칸디나비아에 그리스도교 관구가 설립된 것은 덴마크의 룬드(1104년), 노르웨이의 트론드하임(1152년), 스웨덴의 옘살라(1164년) 순이다.

66) 발레리 한센, 『1000년-세계가 처음 연결되었을 때』, 이순호 역 (서울: 민음사, 2022), 19. 발레리 한센은 1000년의 세계화를 이끈 주역에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국, 중동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유럽의 바이킹도 포함된다고 본다.

나라 상품과 메시지가 전 세계를 오갈 수 있는 역사적 토대가 태동했다.

바이킹의 개종은 야만적 바이킹의 침탈이 종식되고 유럽의 그리스도교 문화를 수용하여 유럽과 스칸디나비아가 그리스도 문화와 문명으로 결속되었다는 문명사적 의의를 포괄한다. 크리스토퍼 도슨의 분석에 따르면, 11세기와 12세기 경 바이킹의 주 정주지였던 스칸디나비아에 만연한 그리스도교 문화는 대부분 잉글랜드에서 출발한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의 헌신적 사역의 열매이다. 앵글로 색슨 문화의 몰락과 함께 스칸디나비아 세계는 북유럽 문화의 위대한 대표가 되었다.⁶⁷⁾ 도슨에 따르면, 12-13세기의 학자들은 영국 알프레드 대왕의 학풍을 따랐다. 특히 아이슬란드 사제들과 학교들은 바이킹의 역사와 관련한 방대한 역사 자료(바이킹의 신화, 시 전설, 바이킹의 전통)를 보존하였다.⁶⁸⁾

이처럼 문명의 결속을 낳은 바이킹의 개종은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는 ‘역사 형성’의 기축이 되었다.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는 소위 ‘역사 형성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한다.

문화의 분화는 국민적 개체성의 발흥을 낳으며 역사 속에서 그것이 느껴지도록 인격적, 개인적 잠재성의 길을 개방시킨다. 개인의 인격성은 더 이상 미분화 공동체에 흡수되지 않는다. 그것은 초기에는 문화 활동 전체를 결정했지만, 그 재능과 천성의 자유로운 개현의 기회를 받아들인다. 개인적 역사 형성자들이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이다. 그들의 형식적 활동은 세계적인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⁶⁹⁾

(67) 크리스토퍼 도슨, 『선교와 서구문화의 변혁』, 채은수 역 (서울: 총신대학교부설 선교연구원, 1989), 111.

(68) *Ibid.*, 112.

(69) 헤르만 도예베르트, 『서양 문화의 뿌리』, 문석호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22),

역사 형성자들에 대한 헤르만 도예베르프의 이 평가는 바이킹의 개종에 담긴 함의를 시사해준다고 사료된다. 종합하면, 바이킹의 개종은 야만적 바이킹의 침탈을 종식하고 선진화된 유럽의 그리스도교 문화를 수용하여 유럽과 스칸디나비아가 그리스도 문화와 문명으로 결속되었다는 문명사적 의의가 크다고 사료된다.

5.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이킹이 토르를 버리고 하나님을 최고신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까지 유럽은 참으로 고통스러웠고, 지난한 복음의 선교 열망이 가중되었다. 초기의 스칸디나비아 바이킹들에 대한 선교는 바이킹들의 침탈 상황에서 프랑크 왕국 선교사들의 열렬한 열의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바이킹에 대한 초기 선교는 소기의 큰 성과를 거두기에는 난망했다. 그런데 10세기에 바이킹의 군소 왕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면서 각 바이킹 부족들도 함께 개종을 하기 시작했다. 바이킹 선교는 바이킹 부족의 왕이나 유력자들의 개종이라는 개별화를 통해 바이킹 부족 전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집단개종을 모색하는 특성을 함유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선교적 열의를 가진 선교사들이 바이킹을 향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은 마침내 발아(發芽)하여 스칸디나비아 전역의 바이킹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게 했다.

급습과 침탈의 대명사인 바이킹의 개종은 야만적 침탈을 종식하고 선진화된 유럽의 그리스도교 문화를 수용하여 유럽과 스칸디나비아가 그리스도의 문화와 문명으로 결속되었다는 문명사적 의의

123-124.

가 지대하다. 바이킹에 대한 기존의 역사 서술은 늘 바이킹을 축소하고 왜소하게 만들어 역사의 주변부에 두었지만, 바이킹은 유럽 교회와 역사의 중심부에 충격과 도전을 주었다. 결국 바이킹의 회심은 선교적 의의를 넘어 중세사회의 변혁을 촉진하는 문명의 전환기 제로서 자리매김한다고 평가된다.

Abstract

Theological Implications of Viking's Conversion

Kyu Chul Lee

This study examines the theological implications of the conversion of the Vikings, who are synonymous with raids and invasions, to Christianity. The conversion of the Vikings is a turning point that opens a new chapter in evangelism along with the end of the Viking Age, and implies a transition in the history of European civilization.

Until the Vikings abandoned Thor, acknowledged God as the supreme God, and converted to Christianity, Europe was truly suffering, and the long-awaited missionary aspirations for the gospel increased. The conversion of Vikings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conversion with each Viking tribe as minor Viking kings converted to Christia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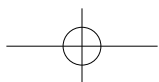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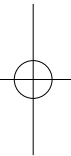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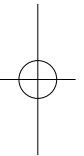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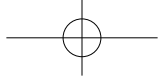
The conversion of the Vikings owes much to the missionary zeal of the missionaries for the conversion of the Vikings. The conversion of the Vikings has great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that Europe and Scandinavia were united through Christian culture and civilization by ending the invasion of the barbaric Vikings and accepting the advanced Christian culture of Europe. In this respect, the conversion of the Vikings is evaluated to be positioned as a transition mechanism of civilization that promotes the transformation of medieval society beyond Christian missionary significance.

Key Words

The Conversion of Vikings, The Raid, Thor, Alfred the Great, Harald
Bluetooth

논문 기고자 Email

revphdlee2365@naver.com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

What Kind of Counselor is A Military Chaplain?

—centering around the US, Military Chaplain's Role and Tendency Analysis

» 전요섭 Ph. D.*

국문초록

이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미군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과 동향 분석을 통해 한국군 군종목사가 군대에서 어떤 상담자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그 타당한 역할을 모색하려는 연구이다. 군종목사는 '군복을 입은 성직자'라는 군인과 목사의 이중적 지위에서 근래에는 '군인,' '목사,' '상담자'라는 삼중적 지위로 인식될 만큼 상담적 임무가 부각되고 있다.

(1) 미군은 종교연락장교로서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2) 심리영적 치유를 위한 상담전문가로서 군종목사는 불안, 공포가 팽배한 군의 극한 상황에서 장병들의 심리영적 문제를 해결하여 비전투손실을 막고,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존재이다. (3) 복음전도를 위한 상담자로서 군종목사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예배와 설교에서는 물론, 상담을 목사 고유의 사명 감당 기회, 전도의 기회, 구원 사역의 기회로 포착해야 한다.

군종목사의 상담역량 강화방안으로 CPE를 더욱 강조, 강화하고, 양성과정(초군반)이나 직무능력향상과정(고군반)에 상담관련 과목과 교육시간의 확장 등 상담자교육 및 임상훈련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

중심단어

군종목사, 기독교상담, 목회상담, 군상담, 정신건강, 미군

• 논문 투고일: 2023년 9월 21일 • 논문 수정일: 2023년 9월 21일

• 게재 확정일: 2023년 9월 22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신학연구위원, 교육학박사, 성결대학교 교수, 예)군종목사

* 이 연구는 2023년 9월 30일 기독교학문연구회에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

I. 여는 글

군종목사와 전쟁/전투는 고대로부터 긴밀한 동반관계를 유지해 왔다.¹⁾ 군종목사 제도가 비교적 일찍 정착되었던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에서는 수많은 전쟁/전투를 겪으면서 군종목사의 역할과 임무를 발전시켜왔다. 군종목사의 핵심적인 임무는 무엇보다도 예배와 설교로 대표되는 다양한 종교활동이다. 하지만 현대 군종목사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종교적 지원만 하는 전통적인(목회적인) 역할과 기능을 넘어 군으로부터 더욱 확장된 역할과 임무를 요구받고 있다. 군종목사가 순수하고, 단순하게 오직 목회돌봄(예배와 설교 등)이라는 영적 활동만 하는 것은 군이 요구하는 바도 아니다. 사실, 군종목사는 군에서 선교/전도를 위해 공식적으로 초빙되었고 할 수 없을 것이다.²⁾

특히, 근래 군종목사의 역할 특징으로는 어느 국가이든 심리정서적 차원의 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³⁾ Grace Davie는 어느 국가의 군종목사이든 현대 군종목사는 심리정서적이며 동시에 신학적인 과제를 동시에 담당하고,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고 진술하면서 군종목사의 심리정서적 기능을 상담으로 이해했다.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근현대에 발생한 전쟁/전투들을 분석해 볼 때 군종목사는 장병들의 심리영적 문제를 다루도록 요구받

1) Marty Mendenhall, "Chaplains in Mental Health," *Annals of the American Psychotherapy Association* 12/1 (2009): 8-13.

2) Ronit Y. Stahl, *Enlisting Faith*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236.

3) Grace Davie, "The Military Chaplai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Christian Church* 15/1 (2015): 39-53.

4) Davie, "The Military Chaplain," 39-53.

아왔고, 또 이에 상당히 기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⁵⁾ 미군의 경우에는 군종목사가 점차 증가하고 광범위해지는 장병들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을 과거보다 더 많이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교연락장교로서 상담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군은 군종목사가 전통적인 목회돌봄의 역할에서 벗어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더하여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부각하여 강조하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역할범주의 확장 과 기능 강화는 군종목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며, 부가가치를 높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일각이 있는가 하면, 군종목사의 본질적인 역할을 희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는 일각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군종목사가 군에서 다양한 상담자 역할을 요구받는 상황을 고려하여 과연 군종목사는 어떤 상담자인가에 대한 역할을 논의를 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미군 군종목사의 역할과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군 군종목사의 상담적 기능과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군종목사에게 요구되는 상담자 역할을 다루면서 역할 내의 역할 갈등, 심리영적 치유상담전문가로서 군종목사, 복음전도 상담전문가로서 군종목사를 살펴보고, 군종목사의 상담역량 강화방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II. 군종목사에게 요구되는 상담자 역할

대한민국 군종목사의 고유 업무는 종교활동, 교육활동, 선도활동

5) Rachel L. Seddon, et al, "The Role of Chaplains in Maintaining The Psychological Health of Military Personnel," *Military Medicine* 176/12 (2011): 1357-61.

동, 대민업무로서 이는 군종제도가 창설되었을 때부터 군이 군종목사에게 요구해온 업무이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임무는 종교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나머지 활동도 공히 힘써야 할 업무인 것은 틀림없지만 종교활동과 대등한 비율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종목사의 상담업무가 강조되고, 장병들을 상담하는 일이 군종목사에게 중요한 일로 강조되고 있더라도 위 네 가지 고유 업무에 군이 다섯 번째로 상담업무를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 것은 이미 상담업무가 네 가지 고유 업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교활동의 범주에서는 신앙상담, 전도상담 등 다양한 목회상담을 시행하고 있고, 교육활동에서도 전입신병상담 등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선도활동에서는 관심장병상담, 수감자상담, 환자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하고 있으며, 대민업무에서도, 미군에서 사용하는 용어 ‘종교연락장교’(liaison office)로서 교단 책임자와 군종활동지원 및 정책관련 상담, 지역 종교지도자들과 종무협조상담, 향토사단에서는 향군종상담 등을 원활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군종목사의 상담기능을 더욱 부각하고, 강조하는 것이 현실이다.

군종목사를 일컬어 ‘군복을 입은 성직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목사이며 군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잘 나타내는 말이다. 미군의 경우에 군종목사는 소속교단에서 군에 파송한 목사임과 동시에 국방부와 각 군에 소속된 군인/장교라는 이중적 정체성에 더하여, ‘상담자’라는 세 번째 정체성을 요구받는 상황이다.⁶⁾ 그래서 군종목사는 목사, 장교, 상담사라는 삼중적 지위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장병

6) Davie, “The Military Chaplain,” 39-53.

들에게도 제3의 정체성인 ‘상담사’로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⁷⁾

1. 종교연락장교로서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 역할 내의 역할 갈등

Davie는 군종목사의 역할을 구성하는 다양한 업무와 업무 간의 서로 호환되는 정도의 문제를 일컬어 ‘역할 내 역할’(the roles within the role) 갈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적하고 있다.⁸⁾ 상담자의 역할도 군종목사의 주요업무라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역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군인교회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목회 상담/신앙상담은 목회돌봄의 본질이기도 하며, 목회의 의미 및 당위성이라 표현해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동일한 군종목사의 상담이라 할지라도 이단 장병상담, 복무부적응 장병상담, 수감자상담, 환자상담, 포로상담, 지역 종교지도자들과의 중무상담, 지원국 군종장교와의 업무협조를 위한 상담 등 상담의 범주가 넓혀지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업무 가중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역할도 군종목사가 해야 하는가?’ 하는 역할 내 역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상담은 치료, 치유, 회복을 통해 사고예방 및 사기진작, 재발방지, 전투력향상 등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군이 상담활동의 범주를 넓히고 군종목사에게 전문성과 적극성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군의 경우, 군종목사에게 부과하는 상담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전문적인 것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⁹⁾ 그 이유는 군종목사가 담

7) Aaron M. Norton & Kristy L. Soloski, “Officer, Chaplain, Therapist,” *Journal of Feminist Family Therapy* 27/1 (2015): 21-39.

8) Davie, “The Military Chaplain,” 39-53.

9) Robert Phillips, “The Military Chaplain in Time of War,” *Quarterly Review* 24/1

당해야 할 상담의 범주가 더욱 광범위해지고, 더욱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군종목사의 고유업무인 종교활동은 대부분 집단적이고 일방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편이다. 설교하는 것, 기도해주는 것, 예배를 인도하는 것, 성례를 집행하는 것, 축도 등이 그러한 사역이다. 하지만 상담은 대부분 개인적이고 양방적인 차원이다. 예를 들면, 내담자(장병)를 개인적으로 만나 문제를 경청해야 하고, 심리영적 문제를 직면시켜야 하고,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주어야 하고, 문제 분석을 위해 기법이 발휘된 적절한 질문을 해야 하고, 상담 내용을 분석, 진단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변화를 위해 다양한 심리영적 기술과 기법의 적용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군종목사의 심리영적 돌봄은 예배, 설교, 성찬, 기도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에 상담을 통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¹⁰⁾

특히, 미군의 경우는 역할 내 역할 갈등이 우리나라 군종목사에 비해서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군종업무 가운데 일부는 더욱 확대되고 점차 특수화되어가고 있다. 이를테면, 미군은 2009년 11월 군종목사에게 공식적으로 종교연락장교 역할을 주문하게 되었다.¹¹⁾ 종교연락장교라 함은 군종장교 가운데 종교연락장교라는

(2004): 47-58.

10) Guy Harrison, *Psycho-spiritual Care in Health Care Practice*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2017), 22

11) 본디, '연락장교'라는 의미는 둘 이상의 조직(국가)이 공식적으로 연락 창구를 두어 소통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연락을 담당하는 장교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는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문제 발생 시 중재, 갈등 해소, 충돌 해소 및 완화, 협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군에는 연락장교라는 직책이 있기도 하고, 정책부서에서는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단기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의 업무에는 '연락장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임무에 따라서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직책(보직)이 아니고,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이슬람 국가에 파병된 미군이 주둔지에서 군사활동을 수행할 때, 지역의 무슬림 주민들을 상대로 종교적인 충돌 없이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 부대가 어떤 작전을 수립하고, 해당지역 종교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종교를 전담하고, 지휘관에게 종교관련 참모조언을 담당하는 군종목사가 일정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종교연락장교의 역할은 파병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종교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 갈등, 위협, 충돌 등을 해소하고 지역 안정화를 꾀하는 군종목사의 확장된 역할이라 할 수 있다.¹²⁾

이런 종교연락장교의 업무는 한국군 군종목사에게도 유사한 구조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대민업무’라 한다. 하지만 현재 규정된 대민업무에 더하여 군이 새롭고, 구체적인 요구를 군종목사에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민업무가 평시에는 심각한 역할 내 역할 갈등요소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파병부대 군종목사에게는 미군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종교연락장교 업무는 이해, 설득, 타협, 조정 등 거의 외교적인 일이고, 협상가에 가까운 상당한 상담능력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심리상담이나 영적 상담과는 아주 다른 차원의 상담업무라 할 수 있다.

‘상담’ 자체를 군종병과 업무라 할 수는 없는데, 종교관련 상담일 경우에만 그 담당부서가 군종병과이며 군종목사의 임무이다. 이를 테면 ‘교육’도 군의 모든 병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교육 등은 주로 공보정훈병과와 그 장교들의 고유 업무이지만 종교관련 교육

12) Stacey Gutkowski & George Wilkes, “Changing Chaplaincy,” *Religion, State and Society* 39 (2011): 111-24.

이라고 했을 때는 응당히 군종업무로 보아야 한다.

지역주민과 종교, 지역종교지도자, 정부조직 및 비정부조직, 민간 자발조직 등과 종교문제의 협력, 협상, 설득, 교육, 상담을 해야 하는 새로운 차원의 확장된 전문가 역할에 대해서 군종목사는 딜레마로 이해하고 당황할 수도 있다. 종교연락장교로서 효과적인 참모역할의 공식화는 군종목사로 하여금 더욱 업무의 긴장도를 높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역할은 일선 여단(연대)에 근무하는 군종목사보다 정책부서에 근무하는 군종목사의 임무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우리 군의 경우, 향토사단에 근무하는 군종부 군종장교(목사, 신부, 법사, 교무)는 지역 종교지도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종교연락장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해외 파병 미군 군종목사는 내부적으로 파병 장병들을 대상으로 종교활동에 주력하지만 대부분 이슬람권에 주둔하므로 종교연락장교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더욱 긴장되고 갈등을 느낄 수도 있다. 미군 군종이맘(무슬림 군종장교)의 종교연락장교 역할은 큰 불편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개신교 군종목사의 이런 역할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해외 파병 부대 종교연락장교 업무는 종교와 관련하여 지역 평화, 인도주의적 관계개선, 종교 갈등 해소 및 화해 구축 등 설득력 있는 미명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미군의 이런 군종목사의 민사임무(군종장교의 종교적 차이, 언어적 한계, 문화적 갈등, 지역파악 정보부족, 분쟁지역의 위험성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여러 무슬림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의 반미 인식감소, 지역주민과의

종교 갈등 해소 및 화해 구축, 적절한 합의 및 협상의 성공 등에 기여했다는 보고들이 많다.¹³⁾ 이런 확장된 업무와 역할로 인해 군종 병과가 국가 및 군의 군사적, 전략적,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비판도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군 군종목사 중령 Lee 등은 “미군에서 군종목사는 군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¹⁴⁾ 이런 역할 확장은 영국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대한민국 군종목사의 경우에도 평화유지군에서 이와 같은 업무 요구가 아직 강력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종교연락장교로서 군종목사의 상담능력 향상은 언제라도 강력하게 요구받을 수 있는 업무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평시에는 주둔지 지역종교지도자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가 요구되며, 전시에는 점령지 주민과 민간종교단체와의 충돌 및 갈등 해소에 기여하는 상담자 역할수행이 요구되므로 이에 적절한 지침이 교리화되어 교범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심리영적 치유를 위한 상담전문가로서 군종목사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문제는 점차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는 군이라 하여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군은 통제된 사회이며, 불안, 공포가 팽배해 있는 극한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젊은이들의 정신력이 더욱 강해지거나 아니면 부적응이 발생하여 문제 상황이 될 수 있다. 군인은 개인화기를 소기하고 있으므로 정신건강

13) Gutkowski & Wilkes, “Changing Chaplaincy,” 111-24.

14) William S. Lee & Christopher J. Burke & Zonna M. Crayne, *Military Chaplains as Peace Builders* (Alabama Maxwell Air Force Base, Alabama: Air University Press, 2005), 1.

이 잘못될 때 그 피해가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군이 비전투손실을 막기 위해 장병들의 정신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장병들의 급증하는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 전문인력(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국방부 훈령 제1818호 제4장 제18조입무 1. “고충을 호소하는 군인 및 장기복부 군인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그 밖에 상담과 관련하여 지휘관이 부여한 업무를 수행”) 채용에 대한 국방부훈령도 있었다. 사고예방과 관련된 병과들에 상담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군종목사의 고유 업무에 상담기능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¹⁵⁾

군에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전문가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장병들의 심리영적 문제를 해소해주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한 상태이다. 여기서 ‘불충분’이라는 의미는 그 인력의 부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내용에 있어서 그들은 장병들에 대하여 영적 지지, 영적 치료 등 영적 접근을 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군 군종목사는 특수목회자로서 모든 군사환경에서 미군에 복무하는 인원에 대하여 영적 지원(spiritual support)을 하는 자로 인정되고 있다.¹⁶⁾ 군의 모든 활동이 전투력 증강에 있다고 볼 때, 군종목사가 장병들이 겪고 있는 심리영적 문제를 해소, 해결해줌으로써 무형전력을 증강하는 차원은 전형적으로 군의 요구에 합당하게 임

15) John Saunders, “Spiritual Readiness,” *Health & Social Care Chaplaincy* 11/1 (2023): 133-35.

16) Eric erson, (ed.) *Military Chaplains in Afghanistan, Iraq, and Beyond*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2014), 19.

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종목사는 모든 군사환경에서 영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전시는 모든 군사환경 가운데 가장 중시되는 위기상황이므로 장병들을 위해 더욱 충분한 그리고 독특한 영적 자원(spiritual resource)을 지원함으로써 장병들이 담대하게 전쟁/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⁷⁾ 군종목사가 ‘장병들을 위해 영적 자원을 지원하는 자’라는 면에서는 미군이나 한국군이나 동일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군의 경우, 종교유무에 관련 없이 대략 64%의 장병들은 영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하지만 일부 장병들은 우울증 등 심리정서적인 문제에서 기독교 신앙, 즉 영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장병들은 군종목사가 제공하는 심리영적 상담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거나, 기독교 신앙이 자신의 문제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군종목사와 상담을 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종교를 가진 장병들 가운데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¹⁹⁾ 다른 종교를 가진 장병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앙이 심리정서적 증상을 막거나 치료, 회복하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수치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군종목사와 상담하는 것을 거리낄 수도 있을 것이다.²⁰⁾ 이런 경우,

17) Jacqueline E. Whitt, *Bringing God to Men*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4), 2.

18) Denise C. Cooper, et al, “Military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Psychological Services* 20/1 (2023): 56-65.

19) Bartoli Eleonoli, “Religious and Spiritual Issues in Psychotherapy Practic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 Practice* 44/1 (2007): 5465.

20) Harold G. Koenig, “Religious versus Conventional Psychotherapy for Major Depression in Patients with Chronic Medical Illness,” *Depression Research and*

종교가 없거나 다르거나, 심리영적 지지를 거부하는 장병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적인 영적 신념을 가진 장병들에게 군종목사의 심리영적 접근은 매우 반가운 일일 수 있다.

군종목사가 활용할 ‘영적 자원’은 이른바 ‘은혜의 방편’(means of grace)이라 하는 예배, 설교, 세례와 성찬, 기도(안수기도, 회개기도), 심방, 상담 등으로서 전시에 이런 요구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이를테면, 전의를 다지고 용기와 담력을 갖도록 하는 설교, 출동 전 기도나 응급세례 및 성찬, 전투현장 방문 등이 요구된다. 심리정서적 증상을 가지고 있는 장병들에게 기도해주는 것이 웬만한 정신건강 증진행위보다 더 나은 경우도 많이 있고, 장병들이 예배와 설교에 빈번히 노출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규범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규범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기독교 신앙의 사고예방, 비전투손실예방, 무형전력 증진 등 신앙전력효과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입증되고 있다.²¹⁾ 종교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사실이다.²²⁾ 교회 출석이 자기 규제 및 자기 통제를 촉진하여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군종목사는 장병들을 군인교회에 출석하도록 독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말티 멘덴홀(Marty Mendenhall)은 장병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67%는 영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

Treatment 460419 (2012): 1-11

21) Karen Mason, *Preventing Suicid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14), 179.

22) Marion L. S. Carson, “Pastor as Counselor,” *Journal of European Baptist Studies* 18/2 (2018): 64-65.

지 못함으로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²³⁾ 여기서 ‘무능’이라는 표현은 군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다소 폄하하는 의미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데니스 쿠퍼(Denise C. Cooper)도 군에서 군의관(정신건강 의학과)들도 영적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며, 이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거의 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 분야에서는 장병들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²⁴⁾

군종목사 입장에서 볼 때, 특별한 영적 문제가 따로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모든 문제는 영적인 차원에서 다룬다는 것은 군종목사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적을 사살한 후, 그 장면을 목격한 장병들의 트라우마는 단순히 심리정서적인 충격만이 아니다. 특히 신자장병에게 있어서 심리정서적 트라우마는 동시에 영적 트라우마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일이다. 또한 죄의 행위가 단지 법률적 위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도덕적 손상, 심리정서적 손상 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죄와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신다는 두려움, 죄의 대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재앙적 사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공포심 등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Guy Harrison은 이를 ‘soul pain’(영혼의 통증)이라고 표현하면서 상담자가 영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어야 한다고 했으며, 영적 고통은 누구보다도 군종목사가 해소해주어야 할 과제라고 했다.²⁵⁾ 단순하게 예를 들면, 죄책감과 용서, 사죄의 확신, 죽음불안과 공포 및 내세의 문

23) Mendenhall, “Chaplains in Mental Health,” 8-13.

24) Cooper, et al, “Military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56-65.

25) Harrison, *Psycho-spiritual Care in Health Care Practice*, 34.

제와 같은 문제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다. 장병들이 겪는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군종목사는 군의관이나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은 활용하기 어려운 은혜의 방안을 통한 목회돌봄의 차원에서 심리영적 상담을 제공한다.²⁶⁾ 따라서 군종목사의 상담은 심리정서적 접근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영적이어서만도 안 되며, 심리영적인 접근이어야 하는데, 이는 군종목사만 할 수 있는 영역이며 기능이다. 미국 국방부(The Department of Defense)는 장병들의 건강에는 심리영적 건강을 더 나은 전인적 건강으로 이해하여 이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²⁷⁾ 군종목사는 심리영적인 문제를 치료, 치유, 회복하는 업무수행을 강하게 요구받아왔으며, 좀 더 ‘숙련된 영적 돌봄(skilled spiritual care)’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⁸⁾

바그다드에 주둔했던 미군 군종목사 Henry Beaulieu는 ‘새벽 2시 쯤에 동료병사 가운데 한 명이 적의 총탄을 맞고 죽거나 폭파되는 악몽을 반복하여 꾸는 증상’으로 군의관(정신건강 의학과)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군종목사인 자신을 찾아온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²⁹⁾ 군종목사는 이런 장병들에게 성경말씀을 들려주고 치료와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줌으로써 심리영적 안정을 갖도록 하고,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도록 하며, 의미 재구성에 대한 상담으로 치유하는 특화된 존재이다.

26) John P. Allen, Jason A. Nieuwsma & Keith G. Meador, “The Role of Military and Veterans Affairs Chaplains in the Treatment of Alcohol Problems,” *Pastoral Psychology* 63/1 (2014): 1-11.

27) Cooper, et al, “Military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56-65.

28) Mendenhall, “Chaplains in Mental Health,” 8-13.

29) Davie, “The Military Chaplain,” 39-53.

신체와 심리가 연결되어 있고, 심리와 영 그리고 영과 신체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은 상식에 불과한 개념이다. 그래서 ‘심신상관’(心身相關)이라는 용어와 의학용어 ‘PNI&E’(Psychology, Neurology, Immunology & Endocrinology)는 영이 강조된 ‘영심신상관’(靈心身相關), ‘SPNI&E’(Spirituality, Psychology, Neurology, Immunology & Endocrinology)로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와 영적인 문제의 상관관계는 개념상 소홀히 여겨진 것이 사실이며, 심리와 영에 대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부여하여 하나는 심리학, 심리치료 및 정신의학의 영역으로, 또 하나는 종교적, 신학 및 영적 치료의 분야로 분리하여 이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영적 개념은 심리적인 것과 별개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영적 분야에서는 심리를, 심리 영역에서는 영적 영역을 배제하거나 소외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인(全人)을 고려한다면 이 둘을 함께 다루는 통합적 입장을 견고히 해야 한다. 심리적인 면과 영적인 차원을 동시에 이해하고, 동시에 다루는 것을 일컬어 ‘심리영적’(psycho-spiritual)이라 하며, 이는 전인건강의 차원에서 추구해야 하는 과제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를 하는 일에 있어서 군의관(정신건강 의학과) 및 심리상담전문가의 독단적인 활동은 장병들의 전인건강 차원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장병들의 진정한 전인건강을 추구한다면 군종목사의 심리영적 접근을 결코 소외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연계/통합 프로그램의 활용이 있어야 한다.

통합병원 및 야전병원 또는 군 상담전문가들과 연계/통합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Cooper

는 미 해군에서 군종목사와 군 정신건강 전문가(군의원, 정신과전문 간호사, 심리치료사 등)가 함께 4주간 실시한 연계/통합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미 해군에서 작전 중 외상00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고 해군병원에 입원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종목사와 군 정신건강 전문가가 통합하여 상담 및 심리영적 치료를 실시한 결과, 군종목사는 군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할 수 없는 기도, 안수기도, 고백, 회개, 용서, 사죄의 확신, 화해, 슬픔에 대한 의미 재구성, 죄책감 해소, 소망 등을 다루었을 때 치료가 촉진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³⁰⁾ 이런 연계/통합 프로그램은 치료에 있어서 이른바 ‘전인적’(wholistic) ‘통합된’(unified), ‘연계된’(collaboration) 접근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Harrison은 군종목사의 이런 역할을 ‘medical ministry’(의료 목회)라고 표현하면서 그 사역의 특수성을 표현한 바 있다.³¹⁾ 직간접적 의료차원이 아니더라도 군종목사는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와 더 많은 협력체계 하에 전인건강에 대하여 전체론적으로 이해하고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군종목사의 개입은 분명한 증상 감소와 회복 및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이 흔히 발견된다.³²⁾

심리영적 차원의 연계/통합모델을 활용한 군대 보건의료지원체계는 전인치유를 위해 향후 더욱 발전해야 할 분야로서 전문화, 특성화시키야 하며, 긴급히 체계화시켜야 할 분야이며, 통합화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다. 이런 협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국방부 군종실

30) Cooper, et al, “Military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56-65.

31) Harrison, *Psycho-spiritual Care in Health Care Practice*, 22.

32) Cooper, et al, “Military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56-65.

및 각군 본부 군종실에서 다양한 심리영적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면밀히 다루고, 교리화된 교범(field manual)이 마련되어야 한다.

Davie는 군종목사의 정체성을 논할 때 ‘사역의 존재’(being of ministry)라는 정체성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존재의 사역’(ministry of being)이라는 정체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즉 전투 현장에서 장병에게 베풀어지는 사역(기도, 안수기도, 성례, 말씀 등)을 치러주는 사역자로서 목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투현장이나 죽음의 현장에서 불안과 공포에 떠는 죽어가는 장병들과 함께 있어주는 존재(ministry of being)로서 목사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³⁾ 이는 언어의 유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군에서 군종목사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는 영국군 군종정책 논의에서 드러난 갈등으로서 영국이 치른 전쟁/전투를 반추, 분석하여 전시 군종활동을 수립함에 있어서 군종목사의 안전유지 및 보호차원에서 전투지역에 군종목사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후방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전선에서 죽음에 임박한 장병들과 함께 있어주는 존재의 사역자로서 군종목사의 역할과 배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³⁴⁾

Harrison은 이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군종목사’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인데 군종목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위기에 처한 장병들의 인식에는 군종목사가 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33) Davie, “The Military Chaplain,” 39-53.

34) Davie, “The Military Chaplain,” 39-53.

단서가 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³⁵⁾ 따라서 군종목사가 주둔지에 장병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여 장병들에게 불안과 공포 등 두려움을 해소하고, 심리영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해군의 경우, 함선에 군종목사가 승선함으로써 수병들이 갖는 심리영적 안정감이 크다는 경험적 진술들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Davie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영국 전투작전을 회고한 영국의 한 사령관의 진술을 인용하여 군종목사의 상담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전투상황은 극심한 스트레스, 불안과 공포, 우울, 슬픔의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장병들의 심리정서를 다룰 수 있는 장교가 군종목사 외에는 없었다. 따라서 군종목사 없이는 장병들을 전투작전에 투입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을 인용하여 군종목사의 신분 및 역할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³⁶⁾ 이는 한국 군 상황이라 하여 다른 양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이 어떤 이유에서 군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down sizing)을 감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사고예방, 사기진작, 군 전투력 유지 및 증강, 극대화를 위해서는 군종목사의 수가 오히려 증가하여 수시로 장병들의 눈에 띄고, 간략하나마 상담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복음전도를 위한 상담자로서 군종목사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이전인 1991년 군 내 기독교 신자가 4%였었는데, 전쟁 중에는 75-80%로 증가한 것을 보면 “참호 속의 무신

35) Harrison, *Psycho-spiritual Care in Health Care Practice*, 22.

36) Davie, “The Military Chaplain,” 39-53.

론자는 없다.”(no atheist in a foxhole)는 말이 맞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는 통계를 볼 수 있다.³⁷⁾ 전쟁의 불안, 공포상황은 장병들로 하여금 종교적 민감성을 갖게 하여, 종교를 갖도록 만드는 영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 하여 전쟁 중 무신론자 장병들이 모두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신자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 군종목사의 전도상담은 대리적 신앙에서 직접적 신앙을 갖도록 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불안과 공포는 신앙을 갖기에 좋은 심리영적 토양이 될 수 있으므로 위기상황에서 군종목사는 상담을 통해 장병들에게 기독교신앙을 갖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긴장의 각도’(the angle of eschatological tension)로 설명된다.³⁸⁾ 이 용어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신앙과 인간 경험 사이의 긴장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종말론적 긴장의 각도는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등 역사적, 우주적 종말개념보다는 기독교 신자들이 개인적 종말(죽음) 앞에 자신의 믿음과 삶의 경험, 희망과 현실 간의 긴장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확고한 인식을 갖고자 하는 성향이 발생하며, 이런 종말론적 상황, 종말론적 인식 등은 장병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기독교신앙을 갖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Davie는 ‘확산적 기독교’(diffusive Christianit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쟁으로 인해 기독교신앙을 갖게 되는 충분한 동기부여와 그

37) Olena Chaika & Olena Dragan, “Chaplain Service Pastor as A Special Kind of Public Service Military Officer In The Ukrainian Army Introduction,” *Kościół I Prawo* 11/24 (2022): 213-29. 우크라이나는 2006년에야 군종제도가 시행되어 215명의 군종목사가 복무하기 시작했다.

38) Davie, “The Military Chaplain,” 39-53.

로써 양질의 기독교신앙 확산을 설명하려고 했다. 이로 보건데, 전쟁이 기독교신앙을 갖도록 하는데 동기부여를 한 것이 명백하지만 장병들의 신앙행태는 소위 ‘속하지 않고 믿는 것’(believing without belonging)으로서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신앙을 갖거나 가지려는 터전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Davie는 어떤 상황에서든 군내 무신론자 또는 반신론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군의 위기상황이나 전쟁/전투 상황에서는 군종목사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상당부분 감소되고, 군종목사에 의한 영적 지지/지원을 무시하지 않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는 지휘관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으로 분석했다. 군종목사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예배와 설교에서는 물론, 상담에 있어서도 목사 고유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 전도의 기회, 구원사역의 기회로 포착해야 한다.

Davie는 개인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든지, 종교적 경험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종교적 행위나 신앙을 통해 종교적 만족을 얻으려는 현상을 일컬어 ‘대리적 종교’(vicarious religion)라고 했다.³⁹⁾ 이 개념은 종교적 신념이나 실천에 대한 개인적인 참여보다는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행위를 통해 종교적 의미를 얻으려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종교적 활동은 개인적인 믿음과 신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나 일부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앙을 갖지 않더라도 종교적인 경험을 추구하거나 종교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이를 대신하려는 심리정서적 성향이 나타난다. 즉, 자신은 기독교신앙에 대해

39) Davie, “The Military Chaplain,” 39-53.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군인교회에 출석하지는 않고 다른 장병들에게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도록 요청하거나,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신앙을 통해 종교적인 지식, 위로, 의미, 희망 등을 얻으며, 자신의 종교적인 필요를 충족시킨다.

III. 군종목사의 상담역량 강화방안

대부분 군종목사의 상담에 대한 이해의 기반은 입대 전, 교회에서의 사역훈련 가운데 몇 차례 경험할 수 있는 상담사역(대부분은 수련감독자에 의한 슈퍼비전이 없는 상담)이 대부분이고, 소속교단의 목사양성과정인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목회)상담학관련 한두 과목을 통해 수립되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 및 수련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신학대학원 교육과정에 임상목회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 CPE) 실습이 포함된 학교가 많아 목사가 되기 전, 임상실습을 통해 상담수련을 받을 기회가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학대학원의 경우는 CPE를 교육과정으로 채택한 학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군종목사로 임관하는 순간까지 CPE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 CPE는 환자, 가족 및 기타 임상 관련된 사람들에게 영적 돌봄을 제공하도록 목사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서 군종목사에게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 수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현재 한국군에는 이른바 'KCPE'라 하여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군종장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CPE 프로그램은 상담기술 향상을 위한 이론적인 학습과 환자상담의 실습

및 수련감독이 모두 포함된다. CPE를 통해 훈련받은 군종목사는 종종 건강관리팀의 일원이 되어 군 병원에 보직을 받아 장병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기도 한다.

군종목사의 상담능력 향상을 위해 초군반, 고군반에 상담관련 과목의 개설 및 교육시간을 확장하는 것과 상담자교육 및 임상훈련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 군종목사가 상담학회와 연계하여 임상 지원체계에 따라 수련감독급 상담사들로부터 수련 받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의사들이 새로운 의학지식 및 기술과 기법향상을 위해 꾸준히 학회에 참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종목사도 우리나라의 공신력 있는 대표적인 상담학회에 참석하여 꾸준히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각 군 본부 군종실에서 비용과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하면, 군종목사들이 전반기에는 일반상담학회(한국상담학회 또는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수련을 받고, 후반기에는 기독교/목회상담학회에 참석하여 자기개발은 물론, 상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학회의 연수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방부 훈령 제1818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교육 및 전문성 제고 등) 제3항에 따르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군내 외 각종 교육 및 회의, 세미나,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교육 등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는 운영부대장의 승인 후 출장으로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군종장교들에게도 이와 같은 보장이 규정화되어야 한다.

미군의 경우, 장병들의 정신건강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군종목사는 ‘비임상 제공자(non-clinical provider)로 분류된다. 군종목사는 일반적으로 정신건강 전문가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심리영적 문제의

전문가로서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강박증, 망상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비롯한 장병들의 임상적인 증상을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⁴⁰⁾ 근래 미육군 군종목사들 가운데는 이런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미국 결혼 및 가족치료협회’(AAMFT)에서 제공하는 가족상담, 결혼상담 및 가족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임상수련을 받은 후,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들이 많이 있다.⁴¹⁾ 군종목사 재직 중, 결혼 및 가족치료사 전문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고, 특별한 경우이기는 해도 장기복무 군종목사들에게는 이런 전문교육과정이 필요하리라 본다.⁴²⁾

국방부나 각 군 본부 군종실 등 정책부서에서는 군종목사가 심리영적 상담전문가로서 장병상담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그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관련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군종목사는 장병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다룰 수 있는 적절한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어설픈 전문가 흉내를 낸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목사라 할지라도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훈련을 받지 않은 목사는 어떤 종류의 상담도 해서는 안 된다’⁴³⁾

40) Seddon, et al, “The Role of Chaplains in Maintaining the Psychological Health of Military Personnel,” 1357-61.

41) Aaron M. Norton & Kristy L. Soloski, “Officer, Chaplain, Therapist,” *Journal of Feminist Family Therapy* 27/1 (2015): 21-39.

42) Frederick, P.; Waynick, T. C.; Duckworth, J. E. & Voyles, J. “The Role of Chaplains in the Operational Army,” in Elspeth C. Ritchie (ed.), *Combat and Operational Behavioral Health* (Fort Detrick, ML: Borden Institute, 2011), 163-70.

43) John Patton, *Pastor As Counselor* (Grand Rapids: Abingdon Press, 2015), introduction.

고 강경한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다. 이는 군종목사가 시간적으로 충분하고 효과적인 임상수련을 받고,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심지어 ‘미국 결혼 및 가족치료협회’의 윤리강령에 따르면, 결혼 및 가족치료사 전문자격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상담 및 치료에 있어서 “자신의 인정된 능력 범위를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진단, 치료 또는 조언하지 않는다.”⁴⁴⁾고 명시하고 있다.

Harrison은 군종목사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으로서 장병의 발달, 성격, 인지, 정서, 행동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 수준이 아니고서는 군종목사의 사역을 원활하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한 바 있다.⁴⁵⁾ 사실, 군종목사는 높은 수준의 심리영적 문제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당한 기법의 상담학적 문제해결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V. 닫는 글

이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미군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과 동향 분석을 통해 한국군 군종목사가 군대에서 어떤 상담자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그 역할을 모색하는 연구였다. 군종목사는 ‘군복을 입은 성직자’라는 군인과 목사의 이중적 지위에서 최근, ‘군인,’ ‘목사,’ ‘상담자’라는 삼중적 지위로 인식될 만큼 상담적 임무가 부각되고 있다.

미군은 종교연락장교로서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군종목사의 종교연락장교는 한국군과는 상황이 많이 다

44) Norton & Soloski, “Officer, Chaplain, Therapist,” 21-39.

45) Harrison, *Psycho-spiritual Care in Health Care Practice*, 33

르지만 한국군 군종목사들도 대민업무에서 더욱 전문성이 강조된 상담전문가로서 종교관련 민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심리영적 치유를 위한 상담전문가로서 군종목사는 불안, 공포가 팽배한 군의 극한 상황에서 장병들의 심리영적 문제를 해결하여 비전투손실을 막고,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존재임을 밝혔다. 복음전도를 위한 상담자로서 군종목사는 심리영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장병들에게 상담능력을 발휘하여 위로와 안위를 제공함으로써 기독교신앙을 수용하도록 목사 고유의 임무수행을 요청하였다. 군종목사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예배와 설교에서는 물론, 상담을 목사 고유의 사명 감당 기회, 전도의 기회, 구원 사역의 기회로 포착해야 한다.

군종목사의 상담역량 강화방안으로 CPE를 더욱 강조, 강화하고, 양성과정(초군반)이나 직무능력향상과정(고군반)에 상담관련 과목과 교육시간의 확장 등 상담자교육 및 임상훈련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군종목사들이 일반 상담학회와 연계하여 임상 지원체계에 따라 수련감독급 상담사들로부터 수련 받는 것을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미군처럼 재직 중에 역량강화 방안의 일종으로 상담관련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에서 사회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군종목사의 상담과 정신건강 전문가들(정신건강 의학과 군의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비교하여 장병들이 지각하는 상담만족도 측정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군종목사가 활용하는 은혜의 방편 가운데 어떤 신앙요소가 장병들의 심

리영적 문제해결에 의미있는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해보는 것도 이 주제와 관련하여 파생될 수 있는 좋은 연구로 사료된다.

Abstract

What Kind of Counselor is A Military Chaplain? -centering around the US. Military Chaplain's Role and Tendency Analysis

Joseph Jeon

This paper as a literature research is to clarify what kind of counselor is a military chaplain? centering around the US military chaplain's role and tendency analysis. Military chaplains are recognized to have a dual role as an officer and a pastor, as they hold the position of 'clergy in uniform.' In recent times, the counseling aspect of their duties has been emphasized, leading to their perception as counselors in addition to their roles as officers and pastors.

(1) There is a growing trend in the US military to emphasize the counseling role of military chaplains as religious liaison officers. While the role and situation of religious affairs of chaplains between the US military and the Korean military differs significantly, but Korean military chaplains should also be able to take charge of civil affairs related to religion as counseling experts with more expertise in civil affairs. (2) In this research, it has been revealed that military chaplains, as counseling specialists for psycho-spiritual therapy, play a crucial role and function in resolving the psycho-spiritual issues of soldiers in highly stressful military situations characterized by anxiety and fear. They contribute to preventing non-combat losses and enhancing combat effectiveness. (3) As counselors for evangelism, military chaplains were called upon to fulfill their unique role as pastors by utilizing their counseling skills to provide comfort and guidance to soldiers who are exposed to

psycho-spiritual issues, with the goal of proclaiming the Christian faith. Military chaplains are officially recognized as agents of evangelism, so they should seize opportunities in worship service, preaching, and counseling to fulfill their pastoral calling, engage in evangelistic activities, and participate in the ministry of salvation.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emphasized the need to further emphasize and strengthen CPE as a means to enhance the counseling capabilities of military chaplains. The researcher also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systematizing counselor education and clinical training, including expanding counseling-related subjects and educational hours in the OBC and OAC to enhance job competency. Furthermore, the researcher suggested that military chaplains should receive training from supervisory-level counselors following the clinical support system in collaboration with counseling associations. Therefore, it was proposed to support military chaplains in acquiring counseling-related qualifications as a means of capacity-building, similar to the approach in the US military, by providing support for obtaining counseling credentials during their active duty.

Key Words

Military chaplain, Christian counseling, pastoral counseling, military counseling, mental health, U.S. military

논문 기고자 Email

jeon8182@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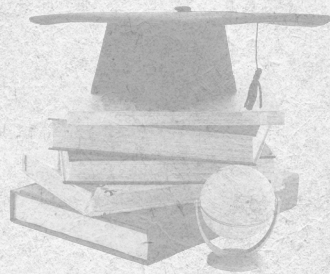
외국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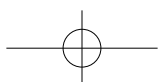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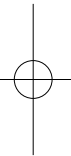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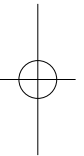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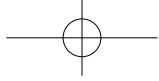
Military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군종목사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

-중첩되는 역할과 협력적 기회-

| Denise C. Cooper, 번역: 전요섭 |







Military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Overlapping Roles and Collaborative Opportunities-

군종목사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 -중첩되는 역할과 협력적 기회-¹⁾

» Denise C. Cooper et al.

» 번역자: 전요섭 Ph. D.

국문초록

군종목사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는 국방부 내에서 독특한 전문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²⁾ 이 논문은 군종목사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의 치료에서 중첩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상호보완적인 치료적 접근방식을 대조해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중첩되는 문제와 상호보완적인 치료적 접근방식은 이 두 전문가 집단 간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는 장병들의 치료에 유익이 될 수 있다.

중심단어

군종목사, 정신건강 임상전문가, 개입, 협력, 영성

1) Denise C. Cooper, Christian A. Evans, Sharmila A. Chari, Marjorie S. Campbell, & Tim Hoyt, "Military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Overlapping Roles and Collaborative Opportunities," *Psychological Services*, Vol 20(1)(Feb, 2023), 56-65, 번역 전요섭 교수(교육학박사, 성결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한국군선교연합회 신학연구위원, 군종 43기 소령 예편,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2) 역자주: '정신건강 임상가(Mental Health Clinicians)'는 미군 내 장병의 정신건강 업무를 담당하는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심리학자, 정신건강 전문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 단어를 '임상전문가'라고 표기했다.

• 논문 투고일: 2023년 8월 23일 • 논문 수정일: 2023년 8월 24일

• 게재 확정일: 2023년 8월 24일

I. 서론

군인에게 있어서 최적의 건강상태는 '심리영적 차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국방부는 인식하고 있다(Joint Chiefs of Staff, 2018). 심리영적 건강은 군내 전반적인 군사활동에 대비하는 능력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복하는 능력으로서 이는 국방부가 추구하는 '군사건강구조'(Force Fitness framework)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러한 건강구조는 심리적 건강을 인지정서행동적 차원에서 통합하고 개선하는 능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며, 아울러 영적 건강은 소망, 의미 및 목적의 원천과 연결을 강화하는 믿음과 실천으로 개념화된다(Hufford et al., 2010; Jonas et al., 2010). 영적 건강은 군인들 사이에서 더 나은 정신건강 및 복지와 관련이 있다(Worthington & Deuster, 2018).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군인의 약 64%는 중간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영성/종교성을 지지하며, 영성/종교성이 높은 군인들은 과음, 음주운전, 흡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영성/종교성 수준이 낮은 경우는 그 반대 결과 발생)(Barlas et al., 2013).

군사건강구조에서 심리영적 문제를 다룰 때 군종목사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의 업무는 간혹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래, 이러한 전문가 집단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실제로, 불안증이라든지 우울증 또는 '장엄한 세력'(Higher Power)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비롯하여 많은 정신건강 문제는 영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³⁾ (Pargament & Exline,

3) 이 논문에 표현된 'Higher Power'라는 용어는 다른 종교들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영적 구조와 이름들을 포괄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특정 종교를 배타적으로 이해하거나 특정 종교를 홍보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사용한 것이다. 역자주: 역자는 이 논문에서 Higher Power(더 높은 세력)를 '장엄한 세력'이라고 표현했음을 밝혀둔다.

2021).

영성은 종종 정신건강의 구성요소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정기적으로 영적이고, 종교적인 실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비율이 낮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에서 관찰되었다(Kao et al., 2020). 그러나 국방부에서 군종목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군종목사의 74%는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어 달라는 의뢰를 거의(또는 전혀) 받은 적이 없었다고 보고했고, 37%는 정신건강 분야에 소견을 진술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Nieuwsma et al., 2013).

II. 군종목사의 역할과 기능

군종목사는 제복을 입은 성직자로서 자신의 소속종단(교파/교단)에 관계없이 부대에 소속된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Department of Defense, 2020). 그들은 주둔지 또는 배속부대나 작전지역을 포함하여 군 복무와 신앙이 교차하는 곳에서는 군인의 영적 안녕을 돌보기 위해 임무를 수행한다(Beder & Yan, 2013; Frederich et al., 2011). 미군의 현역 군종목사는 육군에 약 1,500명, 해군에 약 800명, 공군에 약 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군종목사는 장병을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종교교육을 실시하며, 부상자나 전사자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Otis, 2009). 또한 군종목사는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기도를 인도하거나, 장례식에서 기도를 하는 등 생의 중요한 순간에 의식, 의례 및 성례전과 같은 독특한 종교적 역할을 수행한다(Frederich et al., 2011). 또한 군종목사는 종종 위기상황에서 최초의 대응적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이기도 한다

(Frederich et al., 2011). 정신건강 임상전문가가 제공하는 업무와 유사하게 군종목사도 장병들에게 지지적 상담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가족관계, 개인의 안녕, 영적 건강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살예방활동과 신앙적인 기반에서 군 복무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 훈련을 제공하기도 한다(United States Marine Corps [USMC], 2018).

대부분의 군종목사들은 비임상적인 환경에서 근무한다(Nieuwsma et al., 2013). 군종목사는 부대에서 지휘부의 활동 가운데 종교적 요소가 포함된 것들, 이를테면 지휘관 이취임식이나 추모식 같은 행사에서 설교, 기도 또는 축도 등을 담당하기도 한다(Department of the Army, 2015). 군종목사는 비전투요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군사작전과 관련한 종교문제, 종교와 문화의 민감한 사안, 윤리적 의사결정 및 분쟁해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휘관 및 지휘부에 조언하기도 한다(USMC, 2018). 또 임상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종목사는 군 의료시설의 입원환자나 외래환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기도 한다(Nieuwsma et al., 2013). 이러한 환경에서 군종목사는 일반적인 접근방식으로 공감적 경청, 종교적 개입(예: 기도, 축복, 신앙의 확증) 또는 애도상담 및 군 복무를 되돌아 볼 수 있도록 권면하는 활동 등과 같은 특정 상담기술들이 포함된다(Jankowski et al., 2011). 군종목사는 장병들이 개인의 문제가 훈련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신건강 임상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치료받도록 하거나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권유하기도 한다(Bulling et al., 2013). 군종목사는 자살 위험성이 높은 군인이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하며, 이러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치유를 지원하는 데 지속적인 역할

을 한다(Frederich et al., 2011).

군종목사의 전문적인 발전의 기반은 소속교단에서 인정한 목사 양성과정인 신학대학원 교육과 소속교회에서의 사역훈련이라 할 수 있다(Department of Defense, 2021). 군종목사는 일반적으로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군종목사가 가족상담 또는 결혼 및 가족치료전문가 자격을 취득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기도 하다(Frederich et al., 2011). 의료환경에서 임상목회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 CPE)은 환자, 환자가족 및 기타 임상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적 관리를 제공하도록 군종목사를 전문적으로 훈련시킨다(Lasair, 2020).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를 위한 훈련과 유사하게,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상담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적인 학습과 내담자/환자와의 상담에 대한 수련감독이 모두 포함된다. 임상목회교육을 통해 훈련받은 군종목사는 종종 군 병원에 보직을 받아 건강관리팀의 일원이 되어 장병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기도 한다(Fitchett et al., 2014). 실제로 ‘군종 인증위원회’(Board of Chaplaincy Certification)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군종목사에 대한 임상자격 인증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Kazman et al., 2022)

군종목사는 군내 다양한 환경에서 장병들이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어떤 장벽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Prazak & Herbel, 2022). 장병들이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치료에 대한 장벽 가운데 하나는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로부터 진료를 받을 때 비밀보장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Hoyt, 2013). 군대에서 군종목사의 고유한 역할과 목회상담에서는 비밀유지에 대한 확고한 보장성으로 인해 장병들은 심리적 문제가 발

생했을 때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군종목사인 경우가 많다 (Frederich et al., 2011).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위험이 감지되어 그런 문제로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고자 하면,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는 건강 관리, 기록유지와 보고의무 등 그와 관련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군종목사는 장병들에게 완전하게 비밀을 보장하는 존재로 인식된다(Bulling et al., 2013). 그래서 많은 장병들은 이러한 비밀보장 성으로 인해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신, 군종목사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 또한 군종목사는 민간환경과 비교하여 군대에서 정신건강 지원업무의 가용성에 있어 유색인종차별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Goldberg et al., 2020). 특히 국방부의 건강관련 행동분석과 관련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색인종 군인, 특히 흑인여성 군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 군종목사를 찾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Chu et al., 2021; Kazman et al., 2022). 군에서 유색인종 군인이 의료문제로만 상담받는 경우보다 그와 아울러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종목사를 찾는 군인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sterman Dahan et al., 2012). 따라서 독특한 종교적, 군사적 배경으로 인해 군종목사는 유색인종 군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문화적인 교차점을 다루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Norton & Soloski, 2015; Ramsay, 2019).

II. 정신건강 임상전문가의 역할과 기능

국방부에는 약 6,600명의 정신건강 임상전문가(정신건강 의학과 군의관, 심리학자, 정신건강 전문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여 민간 계약직

등)가 있는데, 이들은 주둔지 또는 배속부대에서 군인들의 전반적인 전투력 유지 및 대비를 위해 임상장애의 평가, 진단 및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Department of Defense, 2019).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는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의 적합성에 대한 중요한 결정도 내리며, 작전상황에 맞게 임상적인 개입 및 조정할 수도 있다(Flynn et al., 2016).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는 임상진료 외에도 예방활동,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대처기술을 구축하고 회복력을 강화시키기도 한다(Warner et al., 2011).

대부분의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들은 군 병원 또는 진료소와 같은 군 의료시설에서 임상업무를 수행하는데, 최근의 모델은 부대 내에 치료환경을 확대하고, 임상전문가들을 운용하는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Hoyt et al., 2015). 이들은 부대 내 장병들에게 임상지원업무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전투 및 작전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참모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델은 군종목사가 수십 년 동안 군대에서 활용해 왔던 방식과 유사하다. 또한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들은 정신건강 치료를 받으려는 장병들의 수요와 비율에 대하여 부대 지휘관들에게 직접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사회적 편견 감소,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Warner et al., 2011).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는 지휘관의 참모로서 군종목사의 역할과 유사하게 고강도 작전 중에 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는 지휘관 및 장병을 지원한다(Flynn et al., 2016).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는 영적 역량을 높이는 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Vieten et al., 2013), 일반적으로 그들은 영적 관

심을 치료에 통합하는 훈련을 거의 받지 않는다(Nieuwsma et al., 2021).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는 영성적인 기반의 문제해결을 위해 군종목사에게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환자들이 영적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심리치료는 영적 차원에 초점을 두지는 않는다(Currier et al., 2018). 이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주로 영적 차원이 증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와 개별 정신건강 임상전문가가 영적 문제를 논의하는 데에 편안함과 영적 문제를 다루는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Saunders et al., 2010). 임상목회교육(CPE) 프로그램과 달리 정신건강 임상전문가가 영적 능력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는 적다. 영적 돌봄에 대한 배경이 있는 정신건강 임상전문가가 있다면 아마 그들은 종교관련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웠을 수도 있다(McMinn et al., 2015). 일부 교육 프로그램은 특정 영적 능력에 초점을 맞춘 임상감독을 제공할 수도 있다(Shafranske, 2016). 교육기관 외에서도 전문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데 이러한 것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의 영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의 영적 능력훈련은 실증적 관점에서 다양한 영적 영역에 걸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8가지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다(Pearce et al., 2019). 이러한 능력은 다양한 치료적 접근방식에 통합될 수 있다. 특히, 근거기반치료에서 활용되는 일부 요소인 인지처리치료(cognitive processing therapy: CPT)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거나 안구운동둔감화 및 재처리(EMDR) 동안 신념을 통합하거나, 지속적인 노출 중에 심상운동의 차원을 조정하는 것과 같은 영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Breuninger & Teng, 2017; Evans et

al., 2021; Parnell, 1996).

III. 군종목사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가 통합된 프로그램

군종목사가 임상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군종목사의 영향을 보여주는 상당한 문헌들이 존재한다. 의료환경에서 군종목사와 함께 하는 환자는 일반적으로 군종목사의 이러한 지원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고하고 있다(Jankowski et al., 2011). 군종목사의 방문은 환자들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Kevern & Hill, 2015)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입원환자의 불안감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Iler et al., 2001). 군종목사를 포함하는 학제 간 통합팀이 제공하는 치료적 개입은 진행성 만성질환자의 영적 안녕감 및 삶의 질 향상과도 관련이 있다(Rabow et al., 2004; Rummans et al., 2006). 통합팀 구성원으로서 군종목사는 전인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환자들이 전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Carey et al., 2016). 군종목사는 정신건강 임상전문가가 장병의 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군종목사를 꺼려하는 군인들이 정신건강 임상전문가에게 가서 더 편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치료와 관련하여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를 계속 지원하고 그들과 협의하고 있다(Seddon et al., 2011).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학제 간 통합팀에서 군종목사에 의한 활동결과의 영향을 구별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Jankowski et al., 2011).

국방부에서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군종목사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원을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해

병대의 ‘작전 스트레스 통제와 대비’(Operational Stress Control and Readiness: OSCAR) 프로그램에서 군종목사는 ‘OSCAR의 개입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역할에서 군종목사는 동료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스트레스 증상을 겪고 있는 해병대원들을 식별해내고, 공식적인 상담을 통해 지원하고, 다른 활용 가능한 지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USMC, 2018). 마찬가지로, 부대 사역팀(군종장교와 종교 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팀)은 ‘육군 전투 스트레스 통제팀’(Army’s Combat Stress Control Detachments)에 소속되어 있다(Department of the Army, 2016). 부대 사역팀은 전방에 배치된 병사들과 함께 근무하며, 대응 기술 증진을 촉진하고, 상담을 제공하고, 지휘부와 업무조정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배속부대가 아닌 환경에서 군종목사는 주말 휴양지에서 해병대원과 그 가족을 위해 준비된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인 ‘강한 유대감’(Strong Bonds)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을 지원하기도 한다(Ramchand et al., 2011). ‘강한 유대감’의 구성요소 중 하나는 종종 ‘예방 및 관계 교육 프로그램’(PREP; Stanley et al., 2010)을 기반으로 한 부부 워크숍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워크숍은 부부를 위한 갈등관리전략, 의사소통기술, 문제해결기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종목사가 제공하는 ‘예방 및 관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서 통제조건과 비교해보면, 이혼율이 상당히 감소하고, 결혼만족도에 대한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llen et al., 2015).

또한 군종목사는 군 의료체계에서 여러 치료적 환경에 직접적으로 통합되어왔다. 국방부, 국가보훈처(VA) 및 학술기관의 협력

을 통해 2014년에 ‘군종목사를 위한 통합 정신건강’(Mental Health Integration for Chaplain Services: MHICS)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Nieuwsma et al., 2017). 3학기로 구성된 이 교육은 ‘국가보훈처 통합 정신건강’(VA Integrative Mental Health, 이전에는 정신건강과 군종목사/Mental Health and Chaplaincy)이 감독하며,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에 소속된 전체의 군종목사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수용전념치료, 문제해결치료 및 동기부여 상담과 같은 근거기반개입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는 정규교육 및 상담 전화가 포함되어 있다. 특정 치료 프로그램에는 ‘군 외래환자 집중 프로그램’(IOP)과 같은 학제 간 통합팀과 군종목사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가 통합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군종목사는 마디간(Madigan) 육군의료센터의 정신병동 입원환자들과 최근 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4주간의 기술강화 및 ‘군 외래환자 집중 프로그램’(IOP)에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주 상담회기를 진행했다(Hoyt et al., 2018). 해군병원(Naval Hospital Camp Lejeune)에서 PTSD 치료를 받고 있는 해병대원을 위한 2주간의 ‘군 외래환자 집중 프로그램’에서 ‘정상 회복’(Back on Track)이라는 치료에서 군종목사는 전사한 전우를 위한 의미찾기, 용서에 관한 치료적 접근방식 등을 집단상담방법을 통해 진행했다(Hilton et al., 2019). 러쉬(Rush)대학교 부속병원(Zalta et al., 2018)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치료를 위한 ‘군 외래환자 집중 프로그램’에서도 군종목사가 군 복무 및 외상 사건에 대한 의미 찾기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치료적 접근을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통합된 역할은 군종목사가 군인들이 겪는 PTSD의 문제가 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임상적인 치료

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 외래환자 집중 프로그램’ 구성에서 군종목사가 증상완화 및 회복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요인분석이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IV. 군인의 고통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방식

영적 요소에서 비교리적인 접근방식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협력의 기회는 더 증대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만트라(Mantram) 반복 프로그램’은 예비역 군인들과 개별적으로 협력하여 영적 신앙을 마음챙김 훈련에 통합시킨 것이다(Buttner et al., 2016). 익명의 알코올중독자 모임(Alcoholics Anonymous: AA)은 독단적, 제한적 또는 특정 종파적인 접근방식 없이 효과적인 개입에 영성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또 다른 예를 제공한다(Kelly, 2017). 보다 광범위하게는 협력, 공감 및 치료적 동맹과 같은 공통요소가 심리치료 효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Wampold, 2015). 유사하게, 군종목사의 많은 활동은 일반적으로 심리치료의 공통요소와 일치한다. 정신건강 임상 전문가가 주로 사용하는 접근방식과 마찬가지로 의료환경에서 군종목사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군종목사가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개입이 ‘적극적 경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Sharma et al., 2021). 군종목사가 전제조건 없이 현역 군인들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함께 하는 사역은 관계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군인과 예비역 군인을 위해 신뢰를 형성하고, 안전감을 증진하며, 일관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Hughes & Handzo, 2010; Kopacz et al, 2014). 공통요소에 대한 연구에 따

르면, 경험적으로 지원되는 개입과 이러한 통합된 유형의 신뢰할 수 있는 존재들은 우울증, 자살행동, 도덕적 상해 및 PTSD를 포함한 여러 임상적인 상태와 관련된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1. 우울증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을 앓는 환자는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심리치료를 받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임상전문가의 치료를 꺼릴 수도 있다(Bartoli, 2007). 다른 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이 우울증을 막지 못했다는 수치심 때문에 군종목사와 상담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Koenig, 2012). 정신건강과 영적 건강의 관점 모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우울증에 대한 종교적 인지행동치료와 같이 종교적 신념을 통합하기 위해 경험적으로 지원되는 치료법들이 등장하고 있다(Pearce et al., 2015). 이 기술은 인지행동치료의 구조적 내용인 활성화 사건(A: Activating event)-신념(B: Belief)-결과(C: Consequence)를 기초로 성경암송, 묵상기도 등을 활용하여 문제가 있는 신념과 생각에 도전하기도 하며, 용서의 표현과 같은 기술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 교재의 내용에는 기독교, 불교, 힌두교 및 이슬람교 신앙전통에 대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Pearce et al., 2015). 군종목사는 정신건강 임상전문가와 유사한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장병들과 협력함으로써 그들이 겪는 비통을 처리하고, 군 복무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유해한 영적 문제들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Kopacz et al., 2014).

새로운 증거는 군종목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기법이 우울증 증상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MacDonald(2017)의 연구에 따르면, 동정심이 있는 존재인 군종목사와 함께 의미찾기를 통한 영적 지도와 같은 개입이 우울증 환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항우울제만큼이나 효과적일 수 있다는 몇 가지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고백이나 사죄와 같은 기도와 의식은 특히 죄책감이 우울증의 실질적인 요인일 때 유용할 수 있다(Kopacz, Rasmussen et al., 2016). 군 복무를 되돌아보도록 권면하는 활동은 과거의 관계갈등을 인정하고, 그 의미를 고려하기 위해 군종목사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가 환자를 대상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에 대한 메타분석은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일부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Bohlmeijer et al., 2003). 이는 이전에 사용되었던 강점과 대처기술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유발한 경험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종목사와 심리학자 모두 운동, 수면 위생, 하루 일과 중 즐거운 활동 일정잡기와 같은 우울증 증상에 대한 자기 관리전략을 환자와 함께 진행해 나갈 수 있다(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Department of Defense, 2016).

2. 자살행동

대부분의 군 복무환경에서 군종목사는 심리적 고통 및 알코올/약물남용과 같은 위험요소 식별을 포함하여 자살교육을 제공한다(Ramchand et al., 2011). 군종목사는 종종 위험에 처한 군인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정신건강 지원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Ramchand et al., 2015). 전투지역에서 군종목사는 자살생각이 있는 군인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신속하게 심리평가를 받도록 도울 수 있다(Frederich et al., 2011). 실제로,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의 증가(예: 자신이 '장엄한 세력'에 의해 버림받은 느낌 또는 현재 군 복무의 문제가 재앙이나 징

별이라고 믿는 신념)도 높은 자살위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Kopacz, Currier et al., 2016).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 군종목사는 군인들이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다. 치료를 의뢰하거나 군종목사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가 함께 협업이 시작되면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는 포괄적인 안전계획을 위해 추가적인 단계로서 지휘계통에 보고하거나 지휘관의 직접적인 명령에 개입하거나 지휘관의 참여여부 및 필요성 등의 평가, 치료와 관련된 비밀보장 관리, 임무제한 조정, 후속조치 유지 그리고 치료 전환(예: 정신과 입원 및 퇴원) 및 위험추적 시작(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Department of Defense, 2019)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Kopacz(2013)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영성, 영적 상처 및 영적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춘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은 자살위험성이 있는 예비역 군인에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군종목사의 개입방법이었다. 군종목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교육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살예방을 위한 근거기반치료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군종목사의 돌봄교육 프로그램’은 자살위험 군인의 진술을 효과적으로 경청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문제해결에 군인을 참여시키며, 군종목사가 이러한 대처전략을 숙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LaCroix et al., 2021).

죄책감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군인들 사이에서 자살위험 증가의 잠재적 기전(기저질환)으로 확인되었다(Bryan et al., 2015). 죄책감에 대한 영적 상담은 종종 용서받고자 하는 욕구에 초점을 맞추며, 군종목사는 용서의 중재자로서 소속교단에서 허용하는 역할에 따라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Pyne et al., 2019). 극심한 죄책감을 가진 일부 군인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뿌리 깊은 핵심신념을 갖는 경우도 있다. 군종목사는 이러한 신념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죄책감을 유발하는 경험을 해결하는데 영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Kopacz, Rasmussen et al., 2016). 또한 군종목사는 고백, 참회, 사죄, 화해와 같은 의식 및 예배를 드림으로써 죄책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Carey et al., 2016). 이에 반해, 많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들은 죄책감을 일반적으로 과거의 행동이나 어떤 활동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보상을 원하는 복잡한 인지정서적 상태로 간주하기도 한다(Callaway & Spates, 2016; Kopacz, Rasmussen et al., 2016).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는 사례개념화를 활용하여 군인들의 행동 맥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사건을 처리하며, 자신의 행동이 사실과 상황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깨닫도록 도울 수 있다(Kopacz, Rasmussen et al., 2016). 인지치료는 군인의 인지왜곡 가운데 사건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 겨냥할 수 있다(Pyne et al., 2019). 최근 개발된 이른바 ‘외상 인지적 죄책감 감소치료’(trauma-informed guilt reduction therapy: TriGR)라고 하는 인지행동치료 접근방식은 단일그룹 선행실험연구에서 전투 참전군인들의 외상 사건과 관련된 죄책감의 정도와 고통 감소에 대한 몇 가지 증거를 보여주었다(Norman et al., 2014). 이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 치료는 사건의 정확한 회상, 잘못된 인식해결, 가치 식별 그리고 향후 바른 가치를 기반으로 살아가기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와 관련된 개념으로, 용서는 원한을 버리고 자신이나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던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선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

(Akhtar & Barlow, 2018; Wade et al., 2014). 군종목사는 용서를 영적 맥락에 중점을 두고 다루어야 하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용서받기,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잘못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즉,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증오 또는 원한 같은 것들을 포기하는 영적 맥락에서 용서를 다루어야 한다. Kopacz, Rasmussen et al., 2016). 군종목사는 군인들이 자신의 죄책감을 인정하고 자기 용서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영적 활동, 고백, 축복, 속죄와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Carey et al., 2016).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는 용서 치료계획에 인지행동치료의 도구와 연습을 통합할 수 있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자기 성찰을 하도록 안내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연습을 제공하고, 인지 유연성과 동정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Purcell et al., 2018).

메타분석에 따르면, 다양한 인지정서행동 전략을 활용하고, 가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기반 접근방식이 용서를 증가시키고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Akhtar & Barlow, 2018; Wade et al., 2014).

3. 도덕적 상해

군종목사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의 활동 가운데 중첩되는 가장 일반적인 영역 중 하나는 도덕적 상해에 대한 치료이다. 도덕적 상해는 의기소침, 수치심, 분노 및 자기 통제 등의 증후군을 말하며, 이는 자신의 도덕적/윤리적 행동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대가 어긋났을 때 발생한다(Litz et al., 2009). 이는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른 후, 또는 비도덕적 행동을 목격했거나, 비도덕적 행동의 주요행위를 막

지 못했거나, 지도자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 발생했을 때 악화될 수 있다(Gray et al., 2012). 도덕적 상해는 자신의 행동 또는 활동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핵심가치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군인들 사이에서 보이거나 또는 보이지 않는 복잡한 ‘영혼’의 상처로 특징된다(Zust & Krauss, 2019). 여기에는 부정적인 도덕적 감정, 손상된 자아와 세상에 대한 개념, 사회적 고립 및 자기 통제의 상실이 포함된다(Litz et al., 2009; Nash & Litz, 2013).

군종목사는 영적 실존적 위기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덕적 상해를 입은 군인들을 도울 수 있다. 용서, 위로, 치유의 말씀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을 정화시키고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종목사는 영적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반영적인(reflective) 경청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Carey et al., 2016). 그들은 영적 정체성을 포용하고, 영적 대처자원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영적 의미와 목적에 대한 감수성을 제공할 수 있다(Carey et al., 2016; Kopacz, Connery et al., 2016). 군종목사는 정신건강 임상전문기가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군인들과 협력하여 외상 사건과 관련된 애도, 자아상실, 죄와 죄책감의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다. 군종목사는 자신이 소속된 교단의 지침에 따라 고백과 사죄에 대한 의식을 행할 수도 있다(Nieuwsma et al., 2021).

치료에는 급성불안 감소를 위한 기도, 음악, 호흡 운동, 구호 또는 ‘맨트럼 반복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다. 군 복무의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장엄한 세력과 다른 사람과 다시 새롭게 연결되도록 촉진할 수 있다(Carey et al., 2016). 예를 들어, 목회적 이야기 공개(Pastoral Narrative Disclosure)는 도덕적 상해의 치료를 안내하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기법이다. 이 접근방식은 개인의 이야기를 자신의 존재 일부로 수용하기 위해서 여덟 가지 단계(즉, 관계형성, 성찰, 검토, 재구성, 회복, 의식, 갱신 및 재연결)를 포함하는 의식적 고백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Carey & Hodgson, 2018).

도덕적 상해의 심리영적 차원을 모두 다루는 개입은 군종목사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 간 협력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의 통합된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군종목사에게 영적 돌봄을 근거기반의 심리사회적 접근방식과 통합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도덕적 상해와 기타 정신건강 문제를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Nieuwsma et al., 2013; Smigelsky et al., 2020). 이 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개입방식 가운데 하나는 군종목사와 심리학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도덕적 상해에 대한 치료집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집단은 군인들에게 도덕적 상해에 대해 교육하고, 군 복무와 개인적인 삶의 영적 측면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통합의 한 예로, 이 집단개입의 방법은 집단참여자들이 국가보훈처 강당에서 시행하는 예식을 통해 공동체와 함께 그들이 경험했던 도덕적 상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Antal et al., 2019). 이 집단형식에 대한 사전 통제되지 않은 평가결과로는 우울증 증상을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기능개선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Cenkner et al., 2021).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조군을 사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도덕적 상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군종목사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의 통합적 협력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새로운 개입방법들도 있다. 예를 들어, 수용전념치료는 일반적으로 개별 정신건

강 임상전문가에 의해서 제공되지만 이러한 개념을 강화하기 위해 군종목사와 협력하면 보다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Nieuwsma et al., 2015). 협력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영적 통합 개입방법은 영적 스트레스를 다른 시각에서 재구성하고, 도덕적 상해, 영적 고통에 대처하기 위해 기도 활용을 장려하고, 용서에 대해 논의하며, 자신, 타인 및 자신의 '장엄한 세력'과의 갈등해결을 촉진하는 영적 힘을 구축하는 것이다(Harris et al., 2011). 군종목사를 위해 개발된 다른 도덕적 상해에 대한 개입은 죄책감, 수치심, 도덕적 문제, 자기 비난, 용서의 어려움, 종교적 갈등, 신뢰의 상실과 배신, 신앙의 상실, 의미의 상실 등을 다루는 것이다(Ames et al., 2018).

V.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최근의 연구문헌들은 PTSD와 도덕적 상해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지만(Wortmann et al., 2021), PTSD에 대한 근거기반치료방법에서는 도덕적 상해와 관련된 정신건강 후유증 치료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Held et al., 2018, Smith et al., 2012). 인지 재구성, 정서적 노출, 인지처리치료(CPT)의 심리교육 요소 및 지속적 노출은 군인들이 자신, 타인 및 세상에 대한 인지를 재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Held et al., 2017). 여기서 다루어지는 일반적인 주제에는 “내 잘못이었다” “나는 뭔가를 했어야 했어” 그리고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와 같은 신념들이 포함된다. 공동 주제로는 도덕적 상해에 대하여 영적으로 통합된 인지처리치료에 의해 제공되며, 이는 영적으로 인도되는 심상 이미지와 의식(예: 회개, 고백, 속죄 및 축복 등)을 활용하는 형식을 적용한다(Pearce et al., 2018).

PTSD 치료의 일부로 도덕적 상해를 특정 목표로 하는 두 가지 보조적인 개입방법의 예는 적응적 노출과 생명을 위협하는 유형이 있다(Gray et al., 2012; Maguen et al., 2017). 적응적 노출은 생명을 위협하는 외상, 외상적인 손실 그리고 도덕적 상해를 대상으로 상상의 노출과 인지 및 체험기법을 함께 사용한다(Gray et al., 2012). 자기 용서, 실존적, 관계적, 계슈탈트 치료적 요소들을 인지행동구조에 통합하는 기법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나 전쟁 중에 적을 사살하는 것을 다루는 유형의 상황에서 보조치료로 활용될 수 있다(Maguen et al., 2017). 이러한 도덕적 상해 개입방법들은 치료효과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이미 확립된 장애별 특정 치료적 접근방식들보다 더 효과적이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Held et al., 2017).

군인들의 PTSD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핵심주제들은 군종목사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 간의 통합된 접근방식과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임상적인 차원에는 신뢰의 상실과 배신, 신앙의 상실, 의미의 상실이 포함된다.

1. 신뢰의 상실과 배신

참전군인 가운데 5~19%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때 신뢰했던 지도자, 동료군인 또는 군 외부의 인물들로부터 배신감을 느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Wisco et al., 2017). 신뢰의 상실과 배신은 종종 분노와 환멸감을 일으킨다(Wortmann et al., 2017). 군종목사는 신뢰의 상실과 배신의 영적 영향을 다루고 용서와 회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다(Carey & Hodgson, 2018). 또한 군종목사는 신뢰의 상실과 배신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군인의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는 종교

문헌들을 사용할 수 있다(예: 여기서 ‘종교 문헌’이라 함은 배신에 대한 성경내용이 될 수 있다)(Ames et al., 2018). 군종목사는 배신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인식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활용하여 용서를 촉진할 수 있다(Wortmann et al., 2017).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는 인지처리치료 및 적응적 노출의 접근방식을 통해 신뢰의 상실과 배신을 해결할 수 있다. 그들은 군인들과 협력하여 외상과 관련하여 막힌 지점(즉, 환자의 회복을 ‘멈추게’ 하는 외상 사건, 자신, 타인 및 세상에 대한 생각)에 도전하고, 새로운 자기 이야기를 개발하고, 군인들이 외상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자신이 자신을, 자신이 타인을 신뢰했었는지의 방식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Resick et al., 2008). 군인과 자비롭고 용서하는 도덕적 권위자 간의 상상적 대화는 신뢰의 상실과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논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Gray et al., 2012).

2. 신앙의 상실

PTSD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 외에도 다양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상실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Ben-Ezra et al., 2010; Ter Kuile & Ehring, 2014). 군인들에게는 ‘장엄한 세력’이 자신을 처벌한다고 생각하거나, 전투 중 자신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포함될 수 있다(Pargament & Exline, 2021). 서구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특정 외상 사건을 전능하고 자비로운 ‘장엄한 세력’의 개념과 조화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Sherman et al., 2015). 군종목사는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영적 실천을 통해서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엄한 세력’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Carey et al., 2016; Sherman et al., 2015). 군종목사는 군인에게 군 복무경험과 다

른 삶의 경험 그리고 그러한 경험에서 '장엄한 세력'이 행한 역할에 대하여 되돌아보도록 장려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한 상담은 군인들의 신앙전통의 교리를 고려하여 진행된다(Kopacz, Rasmussen et al., 2016). 정신건강 관점에서 볼 때, 약해진 종교적 신앙은 PTSD를 경험하는 퇴역군인들 사이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Fontana & Rosenheck, 2004).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는 인지처리치료에서 용서를 다룰 때, 지속적 노출치료를 하는 동안 외상 사건과 관련된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장엄한 세력'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계슈탈트 유형의 '빈 의자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신앙과 영적 고난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수도 있다(Sherman et al., 2015).

3. 의미의 상실

군인들이 죽음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 및 기타 심각한 외상 사건에 노출되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Ames et al., 2018). 외상 후 심리적 고통은 군인이 외상 사건에 대한 평가를 자신의 가치와 조화시킬 수 없거나 사건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기본신념 및 목적 의식체계에 통합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다(Currier et al., 2015; Kopacz 외, 2019). 군종목사는 군인들이 중대한 외상 후에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Ames et al., 2018). 군종목사는 군인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탐색하고, 그들이 인생에서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Ames et al., 2018). 아울러 군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고, 제시하기 위해 성경의 비유를 활용할 수 있다(Hughes & Handzo, 2010).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들도 군인과 함께 작업할 때 자기 이야기를 발전시킴으로써 의미의 상실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Hoyt et al., 2010). 일관된 삶의 이야기를 가짐으로써 의미에 대한 감각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의미추구, 유익 찾기, 정체성 변화와 같은 전략을 교육함으로써 의미의 상실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군인이 자신의 신념을 외상 사건과 조화시키고, 여기서 얻은 교훈을 인식하고, 신념과 가치를 명확히 표현하며, 자아의 변화를 개인적인 성장의 차원에서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Kopacz et al., 2019).

VI. 협력적인 미래

군종목사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는 국방부 내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지만, 서로 교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 집단 간 협력의 필요성은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되었으며, 협력 및 통합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지원의 주요 제공자로서 군종목사를 정책 및 실천에 통합하는 것과 같은 권장 사항을 포함한다(Meador & Nieuwsma, 2018). 여기에 설명된 예를 기반으로 볼 때, 군 의료시설에서 군종목사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는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별도의 전문가 집단에 속한 구성원이다. 이러한 예에는 효과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종목사가 자살위험에 처한 군인들에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군종목

사의 돌봄 프로그램(LaCroix et al., 2021)과 해병대에서 최전방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작전 스트레스 통제와 대비 개입자’로 군종목사를 포함한 역할담당자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USMC, 2018).

군 복무 전반에 걸쳐 PTSD 치료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군종목사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가 군인들에게 보다 통합되고 종합적인 치료를 제공하면서 상호보완적인 접근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보았다(Hoyt et al., 2018). 통합적 접근방식을 통해 동일한 군인을 치료함으로써 군종목사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가 공통기반을 구축하여 외상 사건 및 기타 문제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호신뢰를 갖고, 서로 안전하게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이야기하며, 외상과 기타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전문가 집단 간의 상호지원관계는 많은 장병들을 돌보는 부담을 한 개인이 짊어지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특히 군 복무기간 동안 군인에 대해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해 줄 것이며, 전문가의 소진으로부터 보호하게 해 줄 수 있다(Frederich et al., 2011; Linnerooth et al., 2011).

여기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지적 상담, 문제해결, 적극적 경청, 도덕적 상해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식, 인지행동기술을 포함하여 군종목사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가 군인들을 돌볼 때 사용하는 다양한 접근방식 및 개입방법에는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 두 전문가 집단 간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기법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영적 문제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심리영적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치료적 접근방식은 다면적인 심리영적 문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일 수 있다. 일부 정신건강 문제(예:

죄책감, 용서, 신뢰의 상실과 배신, 신앙의 상실, 의미의 상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 임상전문가가 이러한 문제를 개념화하는 방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Nieuwsma et al., 2021; Wortmann et al., 2017).

영적 돌봄이 포함된 군종목사의 활동은 군인 자신, 또는 그들의 경험과 그들이 경험하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영적 또는 종교적 관점을 가진 군인들에게 특히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군인들은 심리치료에서 그들의 영적 또는 종교적 차원이 간과되는 경우에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영적 접근방식만으로는 정신건강 문제의 인지정서행동적 차원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할 수도 있다.

군종목사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 간의 협력관계는 문제의 심리영적 차원이 충분히 다루어지도록 보장함으로써 군인에게 발생된 문제를 잠재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영적 돌봄 요구사항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개입과 계획을 수정하고 검증하기 위해 군종목사와 심리학자 간의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Nieuwsma et al., 2014). 가능한 상황이라면, 각 전문직은 다른 동료들을 집단에 초대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공동의 추가적인 관점을 얻을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통합적 개입을 위한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또한 긴밀한 협력관계는 두 전문가 집단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Nieuwsma et al., 2021). 이것은 현재 군인을 치료하고 있는 군종목사나 정신건강 임상전문가가 알고 신뢰하는 전문가에게 의뢰되는 것을 꺼리는 군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더 큰 협력을 위해서는 군종목사와 정신건강 임상전문가 집단이 제공하는 협력된 훈련 기회 또는 지속적인 교육과 같은 것을 제공하거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하여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학제 간의 업무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별 전문가들이 노력할 수 있지만, 향후 군 정책업무는 이러한 협력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구조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참고문헌

Akhtar, S., & Barlow, J. (2018). Forgiveness therapy for the promotion of mental well-being. *Trauma, Violence & Abuse*, 19(0), 107-22.

Allen, E., et al (2015). PREP for strong bond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7(3), 232-46.

Ames, D., et al (2018). A structured chaplain intervention for veterans with moral injury in the setting of PTSD, *Theology, and Health*.

Antal, C. et al (2019). Transforming veteran identity through community.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Advance online publication.

Barlas, F. et al (2013). 2011 *Department of Defense health related behaviors survey of active duty military personnel*. Department of Defense.

Bartoli, E. (2007). Religious and spiritual issues in psychotherapy practice. *Theory, Research, & Practice*, 44(0), 54-65.

Beder, J., & Yan, G. W. (2013). VHA Chaplains. *Journal of Health Care Chaplaincy*, 19(2), 54-65.

Ben-Ezra, M. et al (2010). Losing my religion. *Traumatology*, 16(2), 7-13.

Besterman-Dahan, K. et al (2012). The role of military chaplains in mental health care of the deployed service member. *Military Medicine*, 177(9), 1028-33.

Bohlmeijer, E., Smit, F., & Cuijpers, P. (2003). Effects of reminiscence and life review on late-life de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8(12), 1088-94.

Breuninger, M. M., & Teng, E. J. (2017). Safe and secure. *Spirituality in Clinical Practice*, 4(4), 262-73.

Bryan, C. J. et al (2015). Guilt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osttraumatic stress with suicide ideation in

two samples of military personnel and vetera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8(2), 143-55.

Bulling, D. et al (2013). Confidentiality and mental 62 COOPER, EVANS, CHARI, CAMPBELL, AND HOYT health/chaplaincy collaboration. *Military Psychology*, 25(6), 557-67.

Buttner, M. M. et al (2016). Multi-site evaluation of a complementary, spiritually based intervention for Veterans. *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 22, 74-79.

Callaway, K. L., & Spates, R. C. (2016). *Moral injury in military members and veterans*. Oxford University Press.

Carey, L. B., & Hodgson, T. J. (2018). Chaplaincy, spiritual care, and moral injury. *Frontiers in Psychiatry*, 9, Article 619.

Carey, L. B. et al (2016). Moral injury, spiritual care and the role of chaplain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5(4), 1218-45.

Genkner, D. P. et al (2021). A pilot study of a moral injury group intervention co-facilitated by a chaplain and psychologist.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4(2), 367-74.

Chu, K. M. et al (2021). Mental health care utilization and stigma in the military. *Ethnicity & Health*, 26(2), 235-50.

Currier, J. M. et al (2015). Moral injury, meaning making, and mental health in returning vetera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1(3), 229-40.

Currier, J. M. et al (2018). Military veterans' preferences for incorporating spirituality in psychotherapy or counseling.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9(1), 39-47.

Department of Defense. (2019). *Current challenges in recruiting and retaining mental health professionals*.

Department of Defense. (2020). *Religious liberty in the military services* (Department of Defense Instruction 1300.17).

Department of Defense. (2021). *The appointment and service of chaplains* (Department of Defense Instruction 1304.28).

Department of the Army. (2015). *Army Chaplain Corps activities* (Army Regulation 165-1).

Department of the Army. (2016). *Force health protection* (Army Techniques Publication 4-02.8).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Department of Defense. (2016). *VA/DoD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Version 3.0.)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Department of Defense. (2019). *VA/DoD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patients at risk for suicide* (Version 2.0.)

Evans, W. et al (2021). Moral injury and moral healing in prolonged exposure for combatrelated PTSD.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28(2), 210-23.

Fitchett, G. et al (2014). Evidence-based chaplaincy care. *Journal of Health Care Chaplaincy*, 20(4), 144-60.

Flynn, B. W. et al (2016). Global mental health. *Joint Force Quarterly*, 83(4), 75-82.

Fontana, A., & Rosenheck, R. (2004). Trauma, change in strength of religious faith, and mental health service use among veterans treated for PTSD.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2(9), 579-84.

Frederich, P. et al (2011). The role of chaplains in the operational army. In E. C. Ritchie (Ed.), *Combat and operational behavioral health* (pp. 163-70). Borden Institute.

Goldberg, S. B. et al (2020). Military service and military health care coverage are associated with reduced racial disparities in time to mental health treatment initiation. *Administration and Policy in Mental Health*, 47(4), 555-68.

Gray, M. J. et al (2012). Adaptive disclosure. *Behavior Therapy*, 43, 407-15.

Harris, J. I. et al (2011). The effectiveness of a trauma focused spiritually integrated intervention for veterans exposed to trauma.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7(4), 425-38.

Held, P. et al (2018). Using prolonged exposure and cognitive processing therapy to treat veterans with moral injury-based PTSD.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25(3), 377-90.

Held, P. et al (2017). Understanding the impact and treatment of moral injury among military service members. *Focus*, 15(4), 399-405.

Hilton, L. G. et al (2019). Evaluation of an integrativ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reatment program.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25(51), 5147-52.

Hoyt, T. (2013). Limits to confidentiality in U.S. Army treatment settings. *Military Psychology*, 25(1), 46-56.

Hoyt, T. et al (2018). Preliminary evaluation of treatment outcomes at a military intensive outpatient program. *Psychological Services*, 15(4), 510-19.

Hoyt, T. et al (2015). Behavioral health trends throughout a 9-month Brigade Combat Team deployment to Afghanistan. *Psychological Services*, 12(1), 59-65.

Hoyt, T. et al (2010). Disclosure of emotional events in groups at risk for PTSD.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7(1), 78-95.

Hufford, D. et al (2010). Spiritual fitness. *Military Medicine*, 175(Suppl. 8), 73-87.

Hughes, B., & Handzo, G. (2010). *Spiritual care handbook on PTSD/TBI*. Department of the Navy.

Iler, W. L. et al (2001). The impact of daily visits from chaplains on patients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 *Chaplaincy*

Today, 17(1), 5-11.

Jankowski, K. R. et al (2011). Testing the efficacy of chaplaincy care. *Journal of Health Care Chaplaincy*, 17(3-4), 100-25.

Joint Chiefs of Staff. (2018). *Religious affairs in joint operations* (Joint guide 1-05).

Jonas, W. B. et al (2010). Why total force fitness?. *Military Medicine*, 175(Suppl. 8), 6-13.

Kao, L. E., Peteet, J. R., & Cook, C. (2020). Spirituality and mental health. *Journal for the Study of Spirituality*, 10(1), 42-54.

Kazman, J. B. et al (2022). Who sees the chaplain? Characteristics and correlates of behavioral health care-seeking in the military. *Journal of Health Care Chaplaincy*, 28(1), 1-12.

Kelly, J. F. (2017). Is alcoholics anonymous religious, spiritual, neither? Findings from 25 years of mechanisms of behavior change research. *Addiction*, 112(6), 929-36.

Kevern, P., & Hill, L. (2015). "Chaplains for well-being" in primary care. *Primary Health Care Research and Development*, 16(1), 87-99.

Koenig, H. G. (2012). Religious versus conventional psychotherapy for major depression in patients with chronic medical illness. *Depression Research and Treatment*, 2012(460419), Article 460419.

Kopacz, M. S. (2013). Providing pastoral care services in a clinical setting to veterans at-risk of suicide.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2(3), 759-67.

Kopacz, M. S. et al (2016). Moral injury.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24, 29-33.

Kopacz, M. S. et al (2016). Suicidal behavior and spiritual functioning in a sample of Veterans diagnosed with PTSD. *Journal of Injury & Violence Research*, 8(1), 6-14.

Kopacz, M. S. et al (2019). How meaningful is meaning-making?. *New*

Ideas in Psychology, 54, 76-81.

Kopacz, M. S. et al (2014). Understanding the role of chaplains in veteran suicide prevention efforts. *SAGE Open*, 4(4), Article 215824401455358.

Kopacz, M. S. et al (2016). Veterans, guilt, and suicide risk. *Cleveland Clinic Journal of Medicine*, 83(2), 101-05.

LaCroix, J. M. et al (2021). Three department of defense-funded public health approaches to reduce military suicide. *Suicide & Life Threatening Behavior*, 51(2), 334-43.

Lasair, S. (2020). What's the point of clinical pastoral education and pastoral counselling education? Political, developmental, and professional considerations.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74(1), 22-32.

Linnerooth, P. J. et al (2011). Professional burnout in clinical military psychologis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2(1), 87-93.

Litz, B. T. et al (2009). Moral injury and moral repair in war vetera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9(8), 695-706.

Macdonald, G. (2017). The efficacy of primary care chaplaincy compared with antidepressants. *Primary Health Care Research and Development*, 18(4), 354-65.

Maguen, S. et al (2017). Impact of killing in wa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3(9), 997-1012.

McMinn, M. R. et al (2015). Religious and spiritual diversity training in clinical psychology doctoral program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43(3), 155-64.

Meador, K. G., & Nieuwsma, J. A. (2018). Moral injury. *The Journal of Medical Humanities*, 39(1), 93-99.

Nash, W. P., & Litz, B. T. (2013). Moral injury.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6(4), 365-75.

Nieuwsma, J. A. et al (2014). Collaborating across the Departments of Veterans Affairs and Defense to integrate mental health and chaplaincy services.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29(Suppl. 4), 885-94.

Nieuwsma, J. A. et al (2017). Implementing integrated mental health and chaplain care in a national quality improvement initiative. *Psychiatric Services*, 68(12), 1213-15.

Nieuwsma, J. A. et al (2013). Chaplaincy and mental health in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department of defense. *Journal of Health Care Chaplaincy*, 19(1), 3-21.

Nieuwsma, J. A. et al (2021). Collaboration with chaplaincy and ministry professionals in addressing moral injury. In J. M. Currier, K. D. Drescher, & J. Nieuwsma (Eds.), *Addressing moral injury in clinical practice* (pp. 243-6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ieuwsma, J. A. et al (2015). Possibilities within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for approaching moral injury. *Current Psychiatry Reviews*, 11(3), 193-206.

Norman, S. B. et al (2014). Trauma informed guilt reduction therapy with combat veterans.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21(1), 78-88.

Norton, A. M., & Soloski, K. L. (2015). Officer, chaplain, therapist. *Journal of Feminist Family Therapy*, 27(1), 21-39.

Otis, P. (2009). An overview of the U.S. military chaplaincy. *The Review of Faith & International Affairs*, 7(4), 3-15.

Pargament, K. I., & Exline, J. J. (2021). Religious and spiritual struggles and mental health. In A. Moreira-Almeida, B. P. Mosquero, & D. Bhugra (Eds.), *Spirituality and mental health across cultures* (pp. 395-412). Oxford University Press.

Parnell, L. (1996).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EMDR) and spiritual unfolding.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28(2), 129-53.

Pearce, M. et al (2018). Spiritually integrated cognitive processing therapy. *Global Advances in Health and Medicine: Improving Healthcare Outcomes Worldwide*, 7, Article 2164956118759939.

Pearce, M. J. et al (2015). Religiously integrat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 Practice*, 52(1), 56-66.

Pearce, M. J. et al (2019). A novel training program for mental health providers in religious and spiritual competencies. *Spirituality in Clinical Practice*, 6(2), 73-82.

Prazak, M., & Herbel, D. O. (2022). The role of military chaplaincy in addressing service member help avoidance. *Journal of Health Care Chaplaincy*, 28(1), 108-127.

Purcell, N. et al (2018). Opening a door to a new life. *Frontiers in Psychiatry*, 9, Article 498.

Pyne, J. M., Rabalais, A., & Sullivan, S. (2019). Mental health clinician and community clergy collaboration to address moral injury in veterans and the role of the veterans affairs chaplain. *Journal of Health Care Chaplaincy*, 25(1), 1-19.

Rabow, M. W. et al (2004). The comprehensive care team.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4(1), 83-91.

Ramchand, R., Acosta, J., Burns, R., Jaycox, L. & Pernin, C. (2011). *The war within: Preventing suicide in the U.S. military*. RAND Corporation.

Ramchand, R. et al (2015). Army chaplains' perceptions about identifying, intervening, and referring soldiers at risk of suicide. *Spirituality in Clinical Practice*, 2(1), 36-47.

Ramsay, N. J. (2019). Moral injury as loss and grief with attention to ritual resources for care. *Pastoral Psychology*, 68(1), 107-25.

Resick, P. A. et al (2008). *Cognitive processing therapy*.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Rummans, T. A. et al (2006). Impacting quality of life for patients with advanced cancer with a structured multidisciplinary intervention.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24(4), 635-42.

Saunders, S. M. et al (2010). Spiritually conscious psychological car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1(5), 355-62.

Seddon, R. L., Jones, E., & Greenberg, N. (2011). The role of chaplains in maintaining the psychological health of military personnel. *Military Medicine*, 176(12), 1357-61.

Shafranske, E. P. (2016). Finding a place for spirituality in psychology training. *Spirituality in Clinical Practice*, 3(1), 18-21.

Sharma, V. et al (2021). Using the taxonomy. *Journal of Health Care Chaplaincy*, 27(1), 43-64.

Sherman, M., Harris, J., & Erbes, C. (2015). Clinical approaches to addressing spiritual struggle in veterans with PTSD.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6(4), 203-12.

Smigelsky, M. A. et al (2020). Dynamic diffusion network. *Healthcare*, 8(3), Article 100440.

Smith, E. R. et al (2012). Perceived perpetration during traumatic events.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20(4), 461-70.

Stanley, S. M. et al (2010). Decreasing divorce in US Army couples. *Journal of Couple & Relationship Therapy*, 9(2), 149-60.

Ter Kuile, H. & Ehring, T. (2014). Predictors of changes in religiosity after trauma.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6(4), 353-60.

United States Marine Corps [USMC]. (2018). *Religious ministry in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 (Marine Corps Tactical Publication 3-30D). Department of the Navy.

Vieten, C. et al (2013). Spiritual and religious competencies for psychologists.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5(3), 129-44.

Wade, N. G. et al (2014). Efficacy of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s to promote forgiven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2(1), 154-70.

Wampold, B. E. (2015). How important are the common factors in psychotherapy? An update. *World Psychiatry*, 14(3), 270-77.

Warner, C. H. et al (2011). The division psychiatrist and brigade behavioral health officers. In E. C. Ritchie (Ed.), *Combat and operational behavioral health* (pp. 89-105). Borden Institute.

Wisco, B. E. et al (2017). Moral injury in U.S. combat veterans. *Depression and Anxiety*, 34(4), 340-47.

Worthington, D., & Deuster, P. A. (2018). Spiritual fitness. *Journal of Special Operations Medicine*, 18(1), 100-05.

Wortmann, J. H. et al (2017). Spiritual features of war-related moral injury. *Spirituality in Clinical Practice*, 4(4), 249-61.

Wortmann, J. H. et al (2021). Collaborative spiritual care for moral injury in the Veterans Affairs Healthcare System (VA). *Journal of Health Care Chaplaincy*. Advance online publication.

Zalta, A. K. et al (2018). Evaluating patterns and predictors of symptom change during a three-week intensive outpatient treatment for veterans with PTSD. *BMC Psychiatry*, 18(1), Article 242.

Zust, J., & Krauss, S. (2019). Force protection from moral injury. *Joint Force Quarterly*, 92(1), 44-49.

Abstract

Military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Overlapping Roles and Collaborative Opportunities-

Denise C. Cooper et al
translated by Joseph Jeon

Military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have unique professional roles and functions within the Department of Defense. However, they also have intersecting roles in delivering care to service members with mental health issues. Although diagnosis and treatment of clinical disorders is the primary focus of mental health clinicians, military chaplains are often the first contact made by service members seeking help for mental health concerns, due in part to issues of greater accessibility, ensured confidentiality, and less stigma.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pirituality in the well-being and readiness of service members, as many mental health issues have a spiritual dimension. As a result,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often address many of the same issues, albeit with different approaches. This review examines overlap in the work of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and contrasts their complementary treatment approaches. These overlapping issues and complementary approaches highlight the potential for greater collaboration between these two professional groups, which could be beneficial for the care of service members.

Impact Statement: This article summarizes the complementary roles played by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working in active duty military settings to address mental health concerns. Several examples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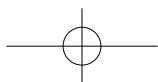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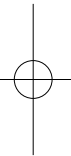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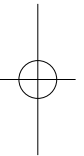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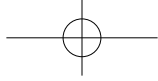
military programs that integrate both spiritual and psychological health constructs related to overall mental health are summarized, in an effort to promote greater integration of these services.

Key Words

military chaplains, mental health clinicians, interventions, collaboration, spirituality

논문 기고자 **Email**

jeon8182@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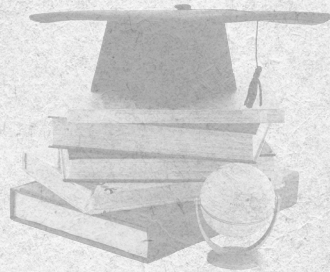
일반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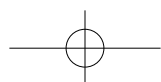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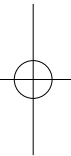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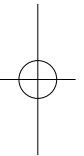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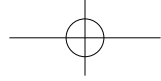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본 군선교 전략 연구

| 오희준 |

진정한 강군(強軍)이 되기 위한 군종의 역할

| 정대호 |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본 군선교 전략 연구¹⁾

A Study on Military Mission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Leslie
Newbegin's Mission Theology

» 오희준 Ph.D.*

국문초록

한국 교회는 진중세례를 통해 용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그러나 진중세례를 받은 용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거나 생활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자신이 진중세례를 받았음을 부인하거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행사로만 인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군선교 전략은 한국 교회와 군대 안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기도 했으나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군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본 군선교 전략을 적용하여 변화되는 신세대 용사들의 특징과 사회 환경에서 진중세례를 받고 군인 교회에 출석하는 용사들이 군 생활을 통해 선교적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중심단어

군선교, 레슬리 뉴비긴, 진중세례, 양육, 하나님의 선교

1) 본 논문은 논자의 다음 줄고를 축약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을 통한 군선교 전략 연구: 세례, 양육, 파송을 중심으로,” 주안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년.

• 논문 투고일: 2023년 7월 10일 • 논문 수정일: 2023년 8월 24일
• 게재 확정일: 2023년 9월 6일

* 2825부대 산돌교회 담임목사, 총신대학교(B.A., M.Div., M.Ed), 주안대학원대학교(Ph.D. 선교학 전공)

I. 들어가는 말

2020년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에 대해 감염병 경보 등급 중 최고 수준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멈추게 할 정도로 강력하며 역사를 바꿀 정도의 전염병²⁾으로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해외 및 국내의 선교 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선교를 시작한 이후 교회의 증가³⁾와 교인의 수가 증가⁴⁾하는 양적인 성장을 하면서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⁵⁾하는 선교국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 교회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선교 방법 가운데 하나는 청년 전도였으며, 이 청년 전도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이 군선교였다. 군선교는 해방 이후 한국에 군대가 조직되면서 해군과 육군의 일부에서 민간 목사를 초빙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후 6·25전쟁 기간 동안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면서 군선교의 중요성이 나타났으며, 한국 교회의 양적 성장이 대두되면서 군대는 황금

2) 이도영,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 교회의 과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17.

3)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93』 (서울: 한국종교사회연구소, 1993), 168-169, 189, 208.; 교회의 수에 있어서는 1957-58년에 4,385개였으나 1960년에는 4,542개로 증가하였고, 1969년에는 12,866개로, 1980년에는 21,243개로 증가하였으며 1990년에는 34,407개로 증가하였다.

4) 정진홍, “한국사회의 변동과 기독교,” 『사회변동과 한국의 종교』, 윤이흠 외 4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257.; 1950년 당시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2.4%에 불과한 약 50만 명이 기독교 신자였지만 1965년 이후에는 매년 30%의 양적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1970년에는 29.3%라는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다.

5) 한국선교연구원, “2020 한국 선교 현황” 접속일, 2021년 10월 21일 (<<https://krim.org/2020-korean-mission-statistics>>);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서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KRIM)에서 조사 및 발표를 맡은 2020 한국 선교 현황을 보면 2020년에 한국 교회는 168개국에 22,25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어장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군선교가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이 경험했던 문화의 변화와 군대 환경의 변화를 바르게 감지하지 못하였고 7-80년대에 한국 교회의 양적 성장에 영향을 주었던 교회 성장 이론을 군선교에 접목하는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청년 전도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선교적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군선교의 또 다른 어려움은 군대의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교회 성장 이론을 접목한 군선교는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변화되는 군선교 환경에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진중세례나 신앙 양육은 더 이상 용사들에게 올바르고 지속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전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며, 성숙한 제자도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지금까지 교회의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두었던 군선교 전략의 한계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변화되는 신세대 용사들의 특징과 사회 환경에서 세례를 받고 군인 교회에 출석하는 용사들이 군 생활을 통해 선교적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특별히 과거와 달리 작금의 군대를 새로운 선교지로 인식하고 있는 입장에서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선교신학을 통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선교적 제자가 되도록 육성하여,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재현될 수 있도록 세상으로 재파송하는 새로운 군선교 전략을 탐구해 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교회 성장 이론에 영향을 받은 군선교 전략이 군에 입대하는 용사들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뉴비긴의

선교신학을 통해 군선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전역 후 사회에서 선교적 제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군선교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II.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 이해

레슬리 뉴비긴은 교회의 위기에 대해 바르게 판단하고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변증하였던 선교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가 선교학계에 미친 영향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제3세계까지 폭넓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는 20세기 후반의 복음을 위협하는 모더니즘과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 속에서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던 선교학자이다.⁶⁾ 뉴비긴은 1974년 은퇴할 때까지 선교사, 행정가, 남인도 교회의 감독으로 세계 선교사역에 헌신하였으며 본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서구 사회가 후기 현대 문화로 인해 세속화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후 서구를 새로운 선교현장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으며 1980년부터 후기 기독교 문화에 대한 선교학적 관심을 보이고 영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복음과 우리 문화 프로그램’(Gospel and Our Culture Program)을 소개하며 활동하다가 1998년에 생을 마감하였다.⁷⁾ 최형근은 뉴비긴에 대해서 20세기 후반기 복음의 진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모더니즘과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 속에서 선교의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구축한 선교사이

6) 조해룡, “레슬리 뉴비긴의 에큐메니칼 교회론: 교회의 선교적 소명으로서의 교회일치와 연합,” 『선교신학』 38 (2015), 333.

7) 박보경,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적 회중 모색,” 『선교신학』 32 (2013), 204-205.

며, 학자이고, 교회 연합 운동가라고 평가하고 있다.⁸⁾ 이러한 입장들을 고려하면서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뉴비긴은 선교의 주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말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로 일관되게 설명하면서, 선교를 반드시 삼위일체의 모델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⁹⁾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존이며 선행이고,¹⁰⁾ 말씀과 행동으로 나타난다.¹¹⁾ 뉴비긴의 주장에 따르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그분의 주도하심에 있는 산물이다. 따라서 성경의 중심 주제가 되는 선교는 ‘보냄’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개입해서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한다.¹²⁾ 뉴비긴은 이러한 삼위일체적 교리를 기반으로 하여 기독교 선교를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한다. 첫째,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서의 선교이고 둘째, 아들의 삶에 동참하는 것으로서의 선교이며 셋째, 성령의 증언을 전달하는 것으로서의 선교이다.¹³⁾

뉴비긴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중심은 항상 예수 그

8) 최형근,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 『선교적교회론과 한국 교회』, 김은수 외 14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0), 73.

9) 황영익, 『레슬리 뉴비긴과 칼빈의 선교적 대화』 (서울: 드림북, 2015), 54.

10) 레슬리 뉴비긴, 『오픈 시크릿』, 홍병룡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7), 123.

11) 찰스 E. 벤 앵겐, 『미래의 선교신학』, 박영환 역 (인천: 바울, 2012), 88.

12) 에디 김스, 『텍스트처치』,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5), 83.

13) 뉴비긴, 『오픈 시크릿』, 63.

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 삼위일체론이라 할 수 있다.¹⁴⁾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였고, 성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기쁨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바로 삼위일체 교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¹⁵⁾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는 성자 예수님을 전파하도록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선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우리가 하는 선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현존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다.¹⁶⁾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새로운 정권도, 새로운 프로그램도, 새로운 이데올로기도, 새로운 철학도 아닌 예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권을 알려면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한다.¹⁷⁾

성령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의 증언을 간직하는 것으로 선교는 행동하는 희망이며 가장 급진적인 활동이며, 또한 능동적 선교의 동력은 성령의 자유로운 주권적이고 살아있는 능력으로 교회의 선교적 기반이 된다. 이러한 동력의 주체는 성령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14) 류태선,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 레슬리 뉴비긴의 신학 사상』 (서울: 한들출판사, 2011), 99.

15) 레슬리 뉴비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 숨 쉬는 소망』, 이혜림 역 (서울: 서로사랑, 2006), 45.

16) 뉴비긴, 『오픈 시크릿』, 84-85.

17) 레슬리 뉴비긴, 『성경 한 걸음』,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8), 73.

다.¹⁸⁾ 바울은 교회 선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제시한다. 성령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속하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현존이다.¹⁹⁾ 결론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교회 안에만 국한하지 말고 세상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도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²⁰⁾

2. 선교적 세례에 대한 이해

세례는 단순하게 개인적인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확립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는 관문이며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백성을 부르시고 보내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이다. 또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역사 안에 세워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구속적인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의 선교적 행위이다.²¹⁾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현존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며,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세상을 향한 선교에도 참여하는 것이다.²²⁾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개인의 회심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뉴비긴은 회심에 대해서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

18) 조해룡, “선교적 교회론 연구: 레슬리 뉴비긴, 위르겐 몰트만, 대럴 구더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95.

19) 뉴비긴, 『오픈 시크릿』, 120-121.

20) 조해룡, “선교적 교회론 연구,” 108.

21) 조해룡, 『하나님, 교회 그리고 세상: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방안과 대안』 (서울: 소망, 2013), 151-152.

22) 레슬리 뉴비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홍병룡 역 (서울: IVP, 2016), 11.

다는 복음의 선포에 이어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라는 개인적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 핵심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초대하는 일²³⁾이라고 말한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회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회심은 단순하게 돌아서거나 참회하는 행위 정도가 아니라 근원적인 회심이다.²⁴⁾ 뉴비긴은 세례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로 돌아서기로 결심한 경우에는 세례를 늦추지 말아야 하지만 세례를 통해 어떤 것을 얻으려는 보증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가능하면 충분한 가르침이 세례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⁵⁾ 세례는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 및 부활과 연합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²⁶⁾

세례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이며 세례를 받아 새롭게 된 신자는 성령에 의해 인도되고 가르쳐지는 신앙공동체 안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세례를 받은 신자는 자신이 세례받기 전의 삶으로부터 변화되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증거하고 그 통치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에 의한 세례를 통해 삼위일체적 역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식은 단순한 고백을 떠나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 파송된 아들과 성

23) 뉴비긴, 『오픈 시크릿』, 215.

24) 황영익, 『레슬리 뉴비긴과 칼빈의 선교적 대화』, 59-60.

25) 레슬리 뉴비긴, 『삼위일체적 선교』, 최형근 역 (인천: 바울, 2015), 128-129.

26) 레슬리 뉴비긴, 『교회란 무엇인가』, 홍병룡 역 (서울: IVP, 2017), 135.

령을 통하여 다시 세례를 받는 자가 세상으로 파송되는 파송의 선포를 의미하는 예식이 되어야 한다.²⁷⁾

3. 선교적 그리스도인과 공적 복음에 대한 이해

뉴비긴은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벧전 2: 9)하기 위해서 선택된 몸이기 때문이다.²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것이고 믿음과 성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동일시하는 삶이며 영적인 몸이요, 생명을 주는 영이 된 마지막 아담,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²⁹⁾

따라서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행동을 통하여 선교적 증언이 이루어지는 ‘삶의 증언으로서의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의 삶을 생활의 현장 속에서 선교의 실제적 주체로서 행동해야 한다.³⁰⁾ 다시 말하면 평신도들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선교의 적극적인 동역자로 인식하고 삶의 현장이 바로 복음에 의해 변혁되어야 할 장소임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27) 조해룡,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 활성화 방안 연구: 교회 예전과 목회행정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선교신학』 52 (2018), 331-332.

28) 조해룡, 『레슬리 뉴비긴 읽기』 (서울: 케노시스, 2017), 77-78.

29) 뉴비긴, 『교회란 무엇인가』, 83-87.

30) 황영익, 『레슬리 뉴비긴과 칼빈의 선교적 대화』, 71-72.

불신자들과의 매일매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복음증거를 구체적인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³¹⁾ 그러므로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평일에는 자신의 직업 현장에서 겪게 되는 경험에 대해 서로가 나누고 복음에 비추어 세속적인 일에서 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³²⁾

뉴비긴은 공적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 사실’을 땅 끝까지 선포하는 것이 ‘공적 진리’라 제시하며 복음이 ‘공적 진리’이기 때문에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고 선택된 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공적 진리의 복음을 세상에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³⁾ 지금까지 복음은 사회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삶의 영역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다. 우리가 ‘복음은 진리’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을 모두 지배하는 것임을 의미한다.³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정사와 권세가 활동하는 영역이며 초인격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구조이자 세력이다. 이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은 자유롭게 행동해야 할 자유가 없다.³⁵⁾

Ⅲ. 뉴비긴의 선교신학을 통한 미래 군선교 전략

진중세례는 군선교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31) 박보경,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신노년 세대,” 『선교신학』 53 (2019), 123.

32) 레슬리 뉴비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홍병룡 역 (서울: IVP, 2016), 182.

33) 류태선,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 30.

34) 뉴비긴,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 260.

35) 레슬리 뉴비긴, 『복음, 공공의 진리를 말하다』, 김기현 역 (서울: SFC, 2008), 92.

지만 세례 받은 용사들이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는 새로운 선교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뉴비긴의 선교신학을 바탕으로 미래 군선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선교 현장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선교적 세례와 양육, 선교적 그리스도인과 공적복음은 변화되는 현대 사회에 익숙한 신세대 용사들에게 군선교 전략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군인 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과 군인 교회에서 선교적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고 양육을 통하여 진중세례를 받은 용사들이 변화될 수 있는 전략을 논할 것이다. 이어서 군인교회에서 양육을 받은 용사들이 전역하여 사회로 나갈 때 이들을 파송하고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1.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의한 군인 교회 활성화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군선교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에서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군대 안에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다.³⁶⁾ 지금까지 군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는 많은 면에서 무게 중심이 전통적인 교회 중심적 선교관으로써 영혼 구원과 예배당 건축, 진중세례 등의 사역에 집중되었다. 특히 진중세례는 훈련소와 신교대에서 짧은 기간 동안 신앙교육을 하거나 교육 없이 희망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으로 이루어져 단회적인 행사가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군인 교회

36) 이현식,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종 제도,” 『군선교신학』 6 (2008), 83.

의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군인 교회 출석이 코로나19 이전 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45.3%가 되기 때문에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³⁷⁾

1) 신세대에 맞는 예배 설교의 변화

군인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용사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군에 입대하기 전 모태신앙이거나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온 용사들로 이미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는 청년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에 대한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독립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과 확신에 이르지 못하고 청년기에 들어간 용사들도 적지 않다. 특히 후자에 속한 이들의 경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거나 과학 지식과 이성적 사고(思考)의 능력이 커지면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한다.³⁸⁾ 두 번째 부류는 교회를 다녔으나 그 교회가 이단이거나 이단성을 보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용사들이 있다. 이러한 이단 교회에서 훈련받고 입대한 용사들은 계급이 낮을 때는 조용히 군 생활을 하지만 계급이 올라가게 되면 후임들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때 군에서

37) 최석환, “이정숙의 논문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망’에 대한 논찬,” 『군선교청년』 19 (2020), 72-73.; 본 조사는 한국군종목사단에서 2020년 6월 21일-9월 1일 까지 2,496명의 육·해·공 해병대의 군인 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이다. 이 조사에서 군인 교회 출석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54.7%뿐이고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28.9%,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전망이 16.4%였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군인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실생활 속에서의 신앙 실천으로의 의식 전환(32.5%)이고, 그 다음으로 군선교 전략의 변화(17.9%),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 이단 척결 등 신학적 정리(15.6%)순으로 응답하였다.

38) 이병일, “의심하는 청년들을 위한 변증적 교리 설교의 필요,” 『생명과 말씀』 23-1 (2019), 231.

세례를 받은 용사들이나 군에 오기 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믿음이 약하고 교리를 잘 모르는 용사들은 포교의 대상이 되어 신앙을 잃는 경우들이 나타난다. 세 번째 부류는 군에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해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용사들이다. 자대 배치를 받고 대대급 교회에 출석하지만 이 용사들은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아 선 임병 중에 이단에 속한 용사가 있을 경우 이단에 빠지기 쉽게 된다.

이처럼 군인 교회에 출석하는 용사들은 다양한 신앙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기독교에 가지게 되는 의심에 대한 해결과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교리에 대해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의 기초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하는 능력으로 용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닌 성경의 본질적인 교리에서 와야 한다.³⁹⁾

그러므로 군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용사들에게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입대하기 전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 용사들에게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대급 교회에서 용사들은 부대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주일 오전 예배에 가장 많은 용사들이 종교 행사로 참여한다. 주일 저녁이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부대도 있지만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은 주일 오전 예배이다. 용사들이 군

39) 조엘 R. 비키, “청교도 교리설교의 변화시키는 능력: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과 오늘날 적용점,” 김영호 역, 『한국 교회를 위한 청교도 설교의 유산과 적실성』, 안상혁 외 4인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20), 236.

생활 동안 휴가와 외출, 외박으로 인해 출타하지 않을 경우 주일에 배에 참석할 수 있는 최대 횟수는 55-60회이다. 이 기간 동안 기독교 기본 교리를 주제로 하여 설교를 듣게 된다면 군 생활 동안 예배에 참석한 용사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며, 전역 후에는 사회에 나가 교회에 정착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평신도 사역자 양성

대대 이하 중대나 소대급의 경우 교회와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일예배를 위해 대대급 군인 교회로 이동하는 데 제한이 된다. 한 울타리 안에 중대와 소대가 함께 있는 부대는 정해진 예배 시간 전에 경계근무에 투입될 경우 근무를 마친 후 도보로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파견된 부대나 울타리 밖에 있는 중대, 소대의 경우 예배를 희망하는 모든 인원을 교회로 보낼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동 수단인 차량의 제한과 경계근무의 공백을 다른 용사가 대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에 종교 활동을 신청한 인원만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전, 중, 후 경계근무가 정해진다면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일부 부대에서는 군목, 또는 군선교사가 2-3개의 대대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독립된 중 소대에 컨테이너 교회를 세워 주일이 아닌 평일에 부대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기독교 용사들과 잠깐의 만남으로 진중세례 이후 양육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용사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 교회가 아닌 각 소대, 중대에서 함께 용사들과 훈련하고 생활한다. 이 의미는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

의 삶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정성구는 “군인은 군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원리 속에서 같이 군생활을 하고 있는 동료들에 의해 일상적인 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⁴⁰⁾고 보았다. 대대급 군인 교회에 있어서 절대 다수가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군종병들을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기 위하여 말씀으로 훈련하고 신앙으로 무장시킨다면 병영 생활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용사들에게 끼칠 수 있으며 다른 용사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게 된다.⁴¹⁾ 군종병들은 생활관에서의 예배, 전입 신병에 대한 돌봄과 개인 상담 등에 관한 사역을 할 때 부대는 활기가 있게 되고 단결된 분위기 속에서 신앙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⁴²⁾

2. 선교적 세례와 양육을 통한 군세례자의 변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진중세례는 중단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진중세례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훈련소나 신교대에서 세례를 받은 용사들이 삼위 하나님의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고 군생활 동안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세례를 받은 용사들 가운데 일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한다. 이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통전성과 복음으로 구원받고 회복되어야 하는 인간의 전인성, 우주적 회복이라고 하는 선교의 궁극적 목표에 있어서 균형이 이루

40) 정성구, “군선교 신학의 정립,” 『군선교신학』 1 (2004), 118.

41) 강보길, “군 병사 제자훈련을 통한 내무반 사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충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80.

42) 박상철, 『소그룹활동을 통한 군선교 전략』 (서울: 쿤란출판사, 2004), 116.

어지지 않는 것이다.⁴³⁾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용사들의 삶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제시하는 섬김과 봉사의 증인 공동체로서의 선교 방식이 요구된다.⁴⁴⁾ 이를 위해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 성례의 의미를 세례 받은 용사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며 선교적 양육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 군인 교회의 성례 활성화

전쟁은 총이나 칼과 같은 무기로만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전투도 있다. 특히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용사들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확고한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군인에게 있어서 전시에 확고한 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패배를 하여 전투 중 사망한다고 해도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고함이 있어서 전투 중 사기가 고취되어 승리할 수 있다. 전투가 없는 평시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중요한 방편을 통해 부대 안에서 사고 예방과 모범 군인으로 생활하게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예배 의식으로서 성례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⁴⁵⁾

43) 한국일, 『세계를 품는 교회: 통전적 선교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9), 442-443.

44) 이석우, “종교 다원화 군(軍)문화권에서 본 군선교에 대한 선교학적 고찰,” 『선교와 신학』 26 (2010), 141-179.

45) 이종윤,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전의 성경신학적 의미: 구원을 위한 인침과 징표로서의 성례전,” 『군선교신학』 8 (2010), 37-39.

교회의 삶에 있어서 중심은 성찬에 있다. 성찬은 세례와는 다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례부터 시작하여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기 주심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⁴⁶⁾ 군인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용사들 중에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신자들이 있다. 이들은 비(非)그리스도인이거나 믿음의 확신은 없지만 전우의 손에 이끌리거나 휴식, 간식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다. 군인 교회에서 성찬을 진행할 때 참석하는 용사들 가운데 15-20%는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찬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⁴⁷⁾ 성찬의 횟수에 있어서 군인 교회는 통상적으로 1년에 2회인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 진행된다. 1년에 2회 진행할 경우 용사들은 진중세례 이후 길게는 6개월에 한 번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중세례 이후 자대에 배치를 받아 예배에 참석하는 용사들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찬을 자주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선교적 양육을 통한 군 세례자 변화

뉴비긴은 인도의 칸치푸람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지역의 청년들이 군복무를 위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잃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전쟁 지역에서 청년들이 보낸 편지에 “부대에서 유일한 그리스도인으로 성경공부를 시작했으며 모두가 성경을

46) 제임스 화이트,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8), 113-114.

47) 김정대, “군선교 환경 변화에 따른 군선교 전략에 관한 연구-대한민국 육군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01.

갖고 싶어 한다.”는 말과 함께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보내달라는 요청⁴⁸⁾을 경험하였다. 이는 군생활에 있어서 양육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뉴비긴은 성직자만이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는 ‘성직자주의’(clericalism)를 비판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훈련을 시키고 세상으로 보내서 증언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교회 역시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⁴⁹⁾

군선교에 있어서 양육은 필요성과 중요성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선교는 진중세례와 교회 건축, 부대 위문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입해왔다. 그 이유는 열매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와 각 교회 안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단합의 효과, 교단과 교회 간의 연합이라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 세 가지 선교 전략에 집중함으로 양적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용사들의 신앙 성장과 관련한 내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소홀히 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한국 교회가 용사들의 신앙 성장과 내적 성장에 소홀했던 이유는 진중세례와 같이 단번에 많은 열매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대급 교회는 민간 교회에서와 같이 양육하여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가시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대대급 교회는 세례 받은 용사들이 양육을 받아도 전역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 양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교회에서 보면 걸음마 단계의 용사들만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대급 교회의 양육을 지원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48) 레슬리 뉴비긴, 『아직 끝나지 않은 길』, 홍병룡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1), 157-158.

49) 류태선,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 174.

라 인식하는 것이다.

훈련소와 신교대에서 기초 군사훈련과 후반기 교육대에서 주특기 훈련을 받고 대대에 배치되는 용사들 중에는 종교 활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대급 군인 교회에 출석하는 용사들의 신앙상태를 살펴보면 모태 신앙이나 부모 또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속한 용사들도 있지만 의무적인 종교행사나 부모의 신앙생활에 의해 반 강제적인 출석을 했던 용사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군에 오기 전에는 교회에 출석했으나 군에 와서는 종교의 자유를 말하며 종교 활동을 거부하는 용사들도 있다.⁵⁰⁾ 반면에 군에 오기 전에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었으나 훈련소나 신교대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용사와 대대에 와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간식이나 휴식을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용사들이 혼재하고 있다.

진중세례에 참석했던 용사들이 양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하면 신앙의 성장뿐만 아니라 군생활동안 자신이 세례를 받은 신자라는 의식조차 잃어버리고 세례를 받기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⁵¹⁾ 진중세례를 통해 세례자는 급증했지만 세례 이후 실제적인 신앙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목주의 신자에 불과하다. 이 명목주의 신자에게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확실한 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의식의 변화는 지속적인 양육을 통해서 가능하다.⁵²⁾ 기독교의 다양한 모임

50) 오희준, “대대급 군인교회에서의 기독교장영 양육 연구,” 『군선교신학』 10 (2012), 249.

51) 김창제, 『21세기 한국 교회 부흥의 유일한 돌파구 군선교』 (서울: 대서, 2009), 225.

52) 홍석균, “21세기 한국 군 선교회에 적합한 양육 사역 모델에 관한 연구,” 『군선교신학』 10 (2012), 306.

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교회에서 단순히 예배와 성경 공부만으로 양육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활성화, 신앙교육의 다양화, 세례식 및 예전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신앙심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⁵³⁾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의 양육은 매우 중요하다. 진중세례 이후 양육을 통한 세례자의 변화를 위해서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는 새신자 양육과 중대 소그룹활동에 대한 양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3.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사회 파송

뉴비긴의 신학에 있어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복음의 해석자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⁵⁴⁾ 즉 복음을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⁵⁵⁾ 그러므로 새로운 존재로의 삶은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이고, 이 구별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이며 공적인 도덕에 있어서까지 구별되는 것이다.⁵⁶⁾ 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은 항상 그들을 지켜보는 열방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세상 그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이다. 그

53) 김성훈, “중단 데이터를 활용한 군선교 정책 전략,” 『장신논단』 48-2 (2016), 353-354.

54) 조해룡, 『레슬리 뉴비긴 읽기』, 87.

55) 뉴비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431.

56) 크리스토퍼 J. H. 라이트, 『하나님 백성의 선교』, 한화룡 역 (서울: IVP, 2019), 353.

리므로 ‘거룩하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은 세상을 버리고 살아가면서 자신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방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⁵⁷⁾

한국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그리스도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과 다른 모습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다. 기독교인이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일요일에만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Sunday Christian’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이 없다면 세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세상과 반대가 된다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을 배척하게 된다.⁵⁸⁾ 그리스도인들은 공적인 무대에서 가장 큰 공적인 유익을 가져옴으로 사회에서 성경적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권할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또한 공적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꾼과 시민이 되어야 하며, 세상에 좋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공적인 영역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교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⁵⁹⁾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 경건한 두려움과 경건한 확신 사이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며⁶⁰⁾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며⁶¹⁾ 하나님의

57) 크리스토퍼 J. H.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정옥배 한화룡 역 (서울: IVP, 2015), 467.

58) 찰스 E. 벤 앵겐,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임운택 역 (서울: CLC, 2014), 239-241.

59) 라이트, 『하나님 백성의 선교』, 351.

60) 뉴비긴, 『오픈 시크릿』, 151.

61) 레슬리 뉴비긴, 『죄와 구원』, 홍병룡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9), 165.

은혜와 정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다.⁶²⁾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종교와 문화의 다원화된 현실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죄가 가득한 현실 속에서 신앙의 눈으로 사회 전반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통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적극적인 사회참여자가 되어야 한다.⁶³⁾

4.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공적 책임

2017년 12월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이하 한목협으로 표기)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하여 신앙과 일상생활의 일치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51.8%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불일치한 모습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줌으로 비개신교인 47.9%가 기독교를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종교별 호감도에 있어서도 63.1%가 개신교에 대해서 ‘비호감’이라고 응답하였다.⁶⁴⁾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공적인 책임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사회는 기독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사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 교회에 출석한다.

그러므로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는 진중세례를 받은 용사나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용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책임에 대하여

62) 뉴비긴, 『오픈 시크릿』, 195.

63) 임성빈, “한국교회의 사회참여와 공공신학,” 『공공신학』 임성빈 외 13인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32.

64) 임성국, “한목협,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한국기독교공보』 접속일. 2021년 8월 21일 <<http://pckworld.com/article.php?aid=7577298649>>.

가르칠 의무가 있다. 군선교는 용사들이 생활하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된 용사는 자신의 자유보다 다른 용사들의 자유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며 그들에게 선한 질서를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질서에 기쁘게 순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군 안에서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⁶⁵⁾ 특별히 구더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증거하는 삶이며,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있지 않을 때 어떻게 살고 있으며, 왜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⁶⁶⁾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일주일 중 하루의 시간을 떼 내어 함께 모일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주일 중 6일 동안의 시간을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구비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군인 교회는 평일에 훈련으로 인하여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또는 주일 뿐이다. 구더의 주장처럼 일주일 중 하루 한 시간 정도 모이는 것 외에 남은 6일 23시간은 부대에서 용사들과 함께 생활하고 훈련한다. 이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주일에 한 시간 모이는 교회를 크게 건축하는 것에 군선교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없다.

군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기독교 용사들이 전역하여 사회로 나갈 때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하여 삶의 자리에서 공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역한 용사들이 파송되는 사회는 그곳

65) 뉴비긴, 『교회란 무엇인가』, 126.

66) 대럴 L. 구더, 『증인으로서의 부르심』, 허성식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248-249.

에서 발생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직접 부딪히거나 경험을 하며 다양한 형태의 직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가야 하는 현장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경제 활동은 중요하나 직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신앙적이며 가치가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활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론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명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이 세상으로 파송되었다는 선교적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⁶⁷⁾ 그러므로 기독 용사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공적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중요한 사역이다.⁶⁸⁾

5.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직업관교육

기독 청년들은 직업과 신앙의 충돌 속에서 깊은 고민을 한다. 전역한 기독 용사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하는 신우회에 참여는 하지만 불신자와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그 반대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한다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에 도전하지 못하는 자로 보이거나 자신들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 자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⁶⁹⁾

67) 한국일, "루터의 소명론에 대한 선교적 해석과 적용," 『장신논단』 49-4 (2017), 312.

68)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7), 209-210.

69) 뉴비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438.

2016년에 군인 교회에 출석하던 기독교 간부가 대위로 진급하였다. 진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심각하게 고민 상담을 요청하였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과 직업군인으로서의 생활에 있어서 충돌이 생겨 '계속 군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었다. 사회에서의 직업 세계는 심각하게 서로가 경쟁하면서 냉혹한 곳이며, 철저한 성과 위주와 이익 및 개인의 이기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작동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관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관과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 성공할 수 없으며, 낙오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⁷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공적인 삶 전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에 있어서 맡겨진 일을 잘 이해하고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⁷¹⁾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올바른 직업관은 사회에서 공적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 직업은 세속적인 사회가 분리해 놓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로이다.⁷²⁾

그러므로 군인 교회에서는 전역을 앞둔 용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직업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올바른 직업관을 제시해 주는 방법은 첫째, 성경에 기초한 교육이다. 전역을 앞둔 용사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직업 정체성을 이해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의

70) 이은미, "기독교청년의 직업 소명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4-2 (2019), 139-140.

71) 뉴비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437.

72) 한국일, "복음전도와 교회의 공적 책임," 『장신논단』 35 (2009), 162.

미나 목적, 가치관 및 일에 대한 열정과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한다. 둘째, 민간 교회와 군인 교회에는 이미 사회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들은 사회의 여러 직업과 직군에 종사하면서 오랜 기간 그리스도인으로 소명을 수행해 온 신앙과 사회생활의 선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회에 나가면서 신앙적으로 부딪혔던 경험을 통해 전역하고 사회로 파송되는 기독 용사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부담에 대해서 공감해줄 수 있다.⁷³⁾ 또한 기독 용사들에게 멘토(mentor)나 롤 모델(role model)이 되어줄 수 있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전문적인 인력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로 파송 받는 기독 용사들에게 군인 교회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직업관과 윤리관, 진로에 대한 지도와 소명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은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MEAK와 같은 군선교 기관에서 민간 교회, 직장인 선교회, 직업 소명 연구소와 같은 기독교 기관들과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전역하는 기독 용사를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에 파송하는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공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의 이웃들과 삶을 나누어야 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세계에 그분이 원하는 바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⁷⁴⁾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 그리

73) 이은미, “기독청년의 직업 소명에 관한 고찰,” 147-149.

74) 크리스토퍼 스미스, 존 패티슨, 『슬로처치』, 김윤희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50.

스도를 증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⁷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용사들은 신앙의 실천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함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이루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신앙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고백의 영향력을 세상에서 나타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⁷⁶⁾

세상은 교회에서 외치는 말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더 주목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을 시켜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하지 못하여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전도를 통한 열매는 얻을 수 없다.⁷⁷⁾ 그리스도인은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아야 한다.⁷⁸⁾ 그러므로 전역하는 기독 용사들은 세상으로 파송되어 세상을 향하여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V. 나가는 말

오늘날 군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입대하는 신세대 용사들

75) 데이비드 왓슨,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1999), 244-245.

76) 조성돈, “교회의 신뢰 회복을 통한 한국교회의 공공성 확립,” 『공공신학』 임성빈 외 13인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109-110.

77)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219.

78) 뉴비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196.

의 특징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군대에서는 용사들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1인 1종교를 권장할 수 없게 되었으며, '무종교도종교'라고 하는 논리가 팽배하여 진중에서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제한성이 심대하다. 또한 군대 환경의 변화로 군복무 기간이 육군의 경우 18개월로 단축되고 일과시간 이후에 개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평일 외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군선교 전략은 70-80년대의 긍정적이고 성공적이었던 전략을 유지해 왔으며, 민간 교회는 군선교에 있어서 물질적인 후원만 하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군선교보다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해외 선교에 더 많은 물질과 시간을 후원하였다. 지금까지 군선교 전략으로 제시되었던 진중세례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대두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이나 양육 시스템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선교신학 측면에서 진중세례 이후의 군선교 전략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음을 파악하고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을 통해 변화하는 군대 환경에 맞는 새로운 미래 군선교 전략을 세우고자 했다.

전략이란 어떤 특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세우는 행동계획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변화는 시대에 맞게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사회적인 선교 환경과 신세대 용사들의 문화적인 특징 속에서 군선교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군선교 방안으로 진행되어 온 진중세례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중단할 수 없다면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군선교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집중되었던 훈련소나 신

교대에서의 진중세례보다 자대에 배치받은 용사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줄 대대급 군인교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힘을 모아 야 한다. 이 용사들이 군인 교회에 출석하여 전역할 때까지 선교적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자양육을 통하여 전역 후 사회로 재파송되어 학교와 직장, 교회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군선교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군선교를 통해 한국 교회의 청년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Abstract

A Study on Military Mission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Leslie Newbegin's Mission Theology

Hee Joon OH

Large Scale Military Baptism and church building have been suggested as the most effective military mission strategies as military missions began in the Korean military. According to this mission strategy, the Korean church united and devoted all its energies to large scale military baptism and church building. However, today, the environment of the military, the mission field, is changing, and the cultural environment experienced by the enlisted soldiers is changing. Military mission strategies applying quantitative growth can no longer change young people, and change cannot be made in practical life.

The Korean church proclaims that the warriors became Christians through large scale military baptism. However, the warriors who were baptized lack the recognition that they are Christians or have no change in their lives. They also deny that they have been baptized or perceive it as an event in the church. Although this military mission strategy played a positive role in the Korean church and military, negative aspects appeared and it was discovered that a new military mission strategy was nee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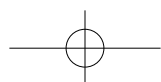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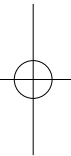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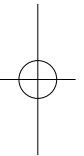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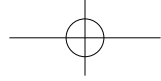
Accordingly, the researcher intends to apply Leslie Newvigin's military missionary strategy from a missionary theological point of view so that the new generation of warriors can become Christians who live missionary lives through military life.

Key Words

military mission, Leslie Newbiggin, Large Scale Military Baptism, nurture, God's mission.

논문 기고자 Email

ohj771013@naver.com





진정한 강군(強軍)이 되기 위한 군종의 역할 :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를 매개하여

The Role of Chaplain in Becoming a Truly Strong Military
: Mediating Levinas's Ethics of the Other

» 정대호 Th.M.*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군(軍)이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타자 윤리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종의 역할이 필요함을 제안하는데 있다. 북한이 가진 핵무기와 갈수록 고도화되는 미사일 능력은 대한민국 안보에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대해 국군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강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패러다임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는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진정한 강함 추구를 위한 윤리로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레비나스의 사상을 제안한다. 레비나스는 자기 존재의 유지를 위한 자유의 무한한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진정한 주체성이란 모든 존재 “아래로-던져져” 존재 전체를 떠받치는 자, 즉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윤리의식을 가질 때 군은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강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심단어

군, 힘에 의한 평화, 레비나스, 타자윤리, 군종

- 논문 투고일: 2023년 8월 26일 • 논문 수정일: 2023년 9월 4일
- 게재 확정일: 2023년 9월 6일
- * 육군 22사단 군종참모, 종교철학 전공

I. 들어가는 말

남북 간의 ‘강대강’ 구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를 2022년의 마지막 날과 2023년의 첫 날에 발사하였고 이어 남한을 사정권으로 한 핵무기를 실전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¹⁾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을 남한에 배치할 것과 자체 핵무기 개발, 그리고 북한의 도발 시에는 1천 배 응징 등을 언급하였다.²⁾ 또한 2023년 1월 26일에는 북한이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내려 보냈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 군도 무인기 3대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날려 정찰활동을 하였다. 유엔사령부는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고 발표하였다.³⁾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조인문을 체결하며 중단된 이후 남북은 이후 70년 동안 계속되는 긴장과 갈등 관계를 유지하였다. 오랜 기간의 갈등으로 평화학에서는 남북 간의 갈등을 다루기 어려운 ‘고질갈등’(intractable conflict)으로 분류한다.⁴⁾ 고질갈등이란 어느 한쪽이 우위를 점하거나 평화적 관계를 이루지 못한 채로 오랫동안 갈등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해결이 매우 까다로운 갈등을 의미한다.⁵⁾

1) 양승진, “연초부터 ‘강대강’ 군사적 대결 고조,” 『시사주간』 2023년 1월 2일, <https://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7986>, (2023년 8월 4일 방문)

2) 고승우, “민족 핵전쟁으로 공멸 가능성, 단군 이래 최악 위기,” 『폴리뉴스』 2023년 1월 25일,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1631#0FV0>, (2023년 8월 4일 방문)

3) 정다예, “유엔사 “무인기 보낸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군 “자위권 조치,” 『연합뉴스』 2023년 1월 26일,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30126022200641>, (2023년 8월 4일 방문)

4) 허지영, “고질갈등 이론을 통해 살펴본 한반도 갈등과 갈등의 평화적 전환 접근 방안 연구,” 『평화학연구』 22.1 (2021): 77.

5) Daniel Bar-Tal, Eran Halperin,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남과 북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고질갈등의 특징은 적대적 공생관계이다. 이 관계에서 상대방은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이에 따라 우리 집단의 정체성은 상대방을 존재를 부정하고 그 존재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된다.⁶⁾ 이와 같이 남과 북은 오랜 갈등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다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집단정체성을 형성하였고,⁷⁾ 이에 따라 남과 북은 서로를 자신의 존재 위협으로 삼게 되었으며 군사적 우위에 서는 것으로 자신의 생존을 보장 받으려 하게 되었다.

최근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은 6년 만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다시 명시하고, 강한 군사력을 통해 전쟁을 억제함으로써 평화를 달성하는 것을 국방목표로 정하였다.⁸⁾ 강한 힘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겠다는 패러다임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내세운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독트린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힘에 의한 평화’ 전략은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기 전 1978년에 처음 채용되었다. 이 전략은 미국의 군사, 경제, 기술적 우위와 더불어 에너지 자족과 재정적 책임, 그리고 국가의지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⁹⁾ 미·소 냉전시기에 미국의 40대 대

escalation, and peacemaking,”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eds. Leonie Huddy, David O. Sears and Jack S. Levy (Oxford: Oxford University, 2013), 924.

6) 허지영, “고질갈등 이론을 통해 살펴본 한반도 갈등과 갈등의 평화적 전환 접근 방안 연구,” 79.

7) 허지영, “고질갈등 이론을 통해 살펴본 한반도 갈등과 갈등의 평화적 전환 접근 방안 연구,” 80.

8)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2), 39.

9) 학회편집부, “안보쟁점: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전략」,” 『군사논단』 7 (1996): 18.

통령으로 취임한 레이건은 이러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힘의 외교로 소련을 밀어붙였다.¹⁰⁾

현재 국군의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번 힘에 의한 평화를 언급하였다. 올해 3월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과 8월 유엔군사령부 주요 직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언급하였고, 특별히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대통령은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평화는 ‘가짜 평화’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안보를 지키는 평화를 ‘진짜 평화’라고 말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였다.¹¹⁾

북한이 가진 핵무기와 갈수록 고도화되는 미사일 능력은 대한민국의 실제적인 위협이다. 여기에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군이 강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패러다임은 일견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노동당 규약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한 것으로 볼 때 힘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 때와 같이 남한을 공산주의화하려고 시도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해 보인다. 따라서 군이 강한 힘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해야 함은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한 힘의 추구는 윤리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강함의 추구는 장병을 사람이 아닌 전투력으로 표상

10) 김봉중, “레이건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냉전의 종식,” 『미국사연구』 48 (2018): 253.

11) 김미나, “해사 졸업식 간 윤 대통령 “힘에 의한 평화 구현” 강조,” 『한겨레』 2023년 3월 10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3110.html. (2023년 8월 10일 방문)

화함으로써 장병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또한 남성 중심의 집단인 군에서 강함이 남성성과 연결되면 성차별적 문화를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처럼 윤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강함의 추구가 가져오는 부정적 현상들이 있음을 살펴본 후 진정한 강군이 되기 위해 필요한 윤리로서 레비나스의 타자윤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어 타자윤리의 형성을 위해서는 종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레비나스의 제안에 따라 윤리가 뒷받침된 진정한 강군이 되기 위한 군종의 역할이 중차대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비정상적인 병영문화와 강함의 추구

한반도 전역을 폐허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핵을 보유한 북한은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사실상 남한 전체를 핵무기의 사정권 아래에 두고 있다. 또한 한반도를 공산주의화하겠다는 의지를 여전히 주창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한 힘을 추구하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강한 힘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약함을 터부시하게 되고, 이것은 장병의 인권 침해와 성차별적인 병영문화 형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987년 국방부는 일반명령 38호에서 구타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는 그동안 군 안에서 공공연히 폭력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구타 금지 명령 하달 후 이어서 군은 1999년에 '신(新) 병영문화 창달'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폭력적인 병영문화의 개선보다는 사고 후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에 더 집중한 것이었다.¹²⁾

2000년에 들어서고 나서야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에는 병 상호간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없음과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 및 집단 따돌림, 성 군기 위반을 엄격히 금지하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이 하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육군훈련소에서는 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게 한 사건이 발생하고, 같은 해 6월 경기 연천 GP에서는 선임병들의 언어폭력으로 김 일병이 총과 수류탄으로 동료 병사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이후 군은 자체의 노력으로는 개선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2005년 10월, 민·관·군 전문가들로 구성된 병영문화개선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여기서 일석점호 폐지, 국방부 인권담당관 지위의 신설, 분대장 지휘활동비 지급, 신병 교육 수수료 전 현역복무부적합 처리제도의 적용, 사이버 지식 정보방 구축 등과 같은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최초로 군 인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각 부대들도 자체적인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실시하였다. ‘그린 존’, ‘늘 푸른 병영’ 등 일선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병영 부조리를 차단하는 운동들을 실시하였다. 또 2008년 육군에서는 자살예방 상담을 목적으로 한 ‘생명의 전화’가 개설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에는 해병대 초소가 붕괴되는 사고와 11월에는 육군 모 사단 GP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가혹행위와 인격모독 등의 이유로

12) 김세훈, 김용주, “한국군 병영문화의 문제 및 개선에 대한 연구,” 『군사논단』 81 (2015): 111.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고가 잇달아 일어남에 따라 군은 ‘군 재조형(reshaping) 과제’를 마련하여 군 간부의 리더십, 기강 확립, 자질과 역량에 중점을 두는 27개의 과제들을 도출하고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2011년에는 해병대 2사단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전남 고흥에 위치한 육군 부대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하였다. 이후 군은 또다시 개선 방안들을 마련하였지만 병영 내의 구타 및 가혹행위와 같은 인권 침해 현상은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군은 장병들의 인권 침해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 현상은 반복하여 일어나고 이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가 계속 나타났다. 김세훈과 김용주는 장병의 인권 보장이나 강조가 전투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군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¹³⁾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군대 내에서 인권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국가가 군인을 군인정신과 복무규율에 따라 관리 통제해야 하는 전투력”으로만 보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게 되면 전투력이 약화될 것으로 여기고 이를 두려워했기에 장병의 인권 보장에 대해 소홀했다는 것이다.

물론 군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장병의 인권 보장 수준은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 군사법 체계와 법령들은 장병의 기본권 보장에 매우 미흡

13) 김세훈, 김용주, “한국군 병영문화의 문제 및 개선에 대한 연구,” 114.

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¹⁴⁾ 이러한 점에서 현재 군의 인권 보장 수준은 전투력을 떨어트릴 만큼 높은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낮은 전투력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강한 군대를 지향함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강함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약함에 대해 터부시하는 태도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군대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고질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강함을 추구하는 인식 구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윤민재는 한국의 군대문화가 남성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¹⁵⁾ 병역의 의무로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이십대 초, 중반의 시기에 입대를 하게 된다. 성인기에 접어드는 불안정한 시기에 남성들로만 구성된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면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남성다움이 군인다움과 연결되며 군인답지 못한 것은 여성성으로 평가절하 하게 된다. 따라서 군에 입대한 장병은 남성답지 못한 것을 탈사회화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요구된다.

이 과제의 수행은 훈련과 같은 공식적인 장소와 내무 생활과 같은 비공식적 장소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훈련과 같은 공식적인 장소에서 훈련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이나 실수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남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남자 맞아?’, ‘계집애

14) 김광식, “인권 지휘권 관계의 현상 진단과 조화 방향,” 「국방정책연구」 82 (2009): 180.

15) 윤민재, “한국사회 군대문화와 군사살상사고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담론201」 11.1 (2008): 172.

같이 그럴래?’, ‘너 혹시 여자 아니냐?’와 같은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남성우월의 이데올로기에 동화된다.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탈사회화는 구타, 각종 강요, 얼차려, 언어폭력, 성폭력 등과 같은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폭력을 행사하고 또 그것을 견뎌내는 것을 강한 남성성으로 인식하고 남성다움이 확산되어야 용맹스런 군대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¹⁶⁾

이러한 성차별적인 문화는 군 내부와 외부 모두에 심각한 갈등과 문제의 원인이 된다. 현재 군 안에는 장교와 부사관, 그리고 군무원의 지위에 여성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계급 사회인 군에서 성차별적인 문화는 단순히 남녀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군의 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일례로 얼마 전 공군에서 병사들이 인수인계 대장에 여성 간부의 이름과 사진을 걸어두고 성희롱을 한 것이나 또 여성 상관에게 ‘계집’, ‘레이싱걸 같이 생겼다’고 모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군에서 상관에 대한 모욕은 군의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중범죄로 다뤄진다. 이처럼 군 안에서 성차별적인 문화는 군의 기강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군 내의 성차별적 문화는 군 밖에서도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군 안에서 접한 남성 중심의 성차별적 문화는 전역 이후에도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강함을 남성적인 것으로, 약함을 여성적인 것으로 치환하여 여성성을 비하하고 남성성을 비정상적으로 강조하는 성차별적인 병영문화 또한 강함의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강

16) 윤민재, “한국사회 군대문화와 군자살사고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173.

함의 추구에서 강함은 긍정적인 것으로, 약함은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군은 남성중심적 집단이기에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강함은 남성성으로, 부정적인 약함은 여성성으로 표상화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장병 인권의 침해와 성차별적인 문화는 군복무 의지를 떨어트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떨어트림으로써 군의 사기진작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는 군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2017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에서 발간한 ‘미래예측보고서’는 앞으로의 분쟁은 전쟁과 평화를 명확하게 구분했던 기존 개념과는 달리 미디어와 같은 비군사적 도구를 활용하여 종교적 이념이나 민족주의, 기타 그 외의 정체성의 정치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정당성을 무너트리는 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았다.¹⁷⁾ 이러한 관점에서 장병 인권 침해와 성차별적 문화는 복무의지와 대군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비정상적인 병영 문화로서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제공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강한 힘의 추구는 재고(再考)해야 할 필요가 있다.

III. 진정한 강함을 위한 타자윤리

앞장에서 우리는 군의 강함 추구가 비정상적인 병영 문화의 형성 원인이 될 수 있고 이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강한 힘을 포기해야 하는가? 군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기에 마땅

17) 박성준, “비전통적 전쟁에 관한 연구-정치·사회적 비대칭 전략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146 (2018): 278-279.

히 안전보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평화에 이르는 과정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기에¹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는 것 또한 마땅한 일이다. 그렇다면 강한 힘의 추구하고 비정상적 병영 문화 형성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군이 강한 힘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군사사상(軍事思想)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경험한 전쟁의 대부분은 외부의 침입에 맞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로 인해 우리 민족은 자연스럽게 전쟁은 악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전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우리 민족은 미연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잘 대비해야 한다는 군사사상을 갖게 되었다.¹⁹⁾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십만(十萬)의 병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이율곡의 ‘십만양병론(十萬養兵論)’은 이런 우리 민족의 군사사상을 잘 보여준다.

전쟁에 잘 대비해야 한다는 의식은 한국전쟁을 겪으며 한층 더 강해졌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전쟁 초기 우리 군은 전력의 열세로 순식간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 이남까지 후퇴해야 했다. 이러한 경험으로 우리 군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휴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군은 군사력 증강을 국방목표로 삼았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 군의 강함 추구는 심각한 국가 존폐의 위협을 경험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생과 사의 갈림길

18) 박균열, 『평화안보와 가치교육』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5.

19) 박창희, 최병욱, “한국의 군사사상 발전방향,” 『전략연구』 64 (2014): 177.

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강함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홉스(Thomas Hobbs)는 존재하려는 욕구를 가진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표현한다.²⁰⁾ 그에 따르면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간혹 육체적이나 정신적 측면에서 능력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쪽 모두 합하여 보면 인간들 사이에 능력의 차이는 거의 없다.²¹⁾ 이처럼 동등한 존재로서 인간은 같은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굴복시키려는 폭력과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홉스는 인간은 선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힘을 가지려 한다고 말한다.²²⁾ 이처럼 강한 힘의 추구는 생존의 욕구, 즉 존재하려는 욕망 때문이다.

홉스와 같이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도 인간은 존재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것이 타자에 대한 폭력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존재하려는 욕망은 자기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것을 쟁취하려는 ‘이해관심’을 드러낸다.²³⁾ 이해관심이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쟁취하려는 욕구로서 이는 필연적으로 타자와의 관계를 경쟁과 투쟁의 관계로 이끈다. 경쟁과 투쟁의 관계에서 승리하여 생존을 보장받으려면 타자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타자가 가진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체는 가

20)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1』, 진석용 옮김 (경기: 나남, 2008), 169.

21) 홉스, 『리바이어던 1』, 168.

22) 홉스, 『리바이어던 1』, 170.

23) 에마뉘엘 레비나스,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을 넘어』 문성원 옮김 (서울: 그린비, 2021), 18.

능한 큰 힘을 가지려 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이처럼 생존의 욕구가 강함을 추구하게 하는 것은 타자를 경쟁과 투쟁의 대상으로, 다시 말해 타자를 존재의 위협으로 상정하고 그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장에서 살펴본, 강함의 추구가 비정상적인 병영 문화의 형성 원인으로 나타난 것은 생존의 욕구, 즉 존재하려는 욕망으로 인해 타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존재하려는 욕망으로 인해 형성된 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하는 진정한 강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타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레비나스의 사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레비나스는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남을 죽이지 않는가?’라고 물으며 자기보존을 위한 무제한적인 자유가 과연 옳은 것인지를 묻는다. 레비나스는 주체로 하여금 존재하려는 욕망을 추구하는 차원에 머물게 하는 것으로 서양 철학의 존재론을 지적한다.

철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진리란 존재를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존재란 무엇인가? 레비나스는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고정된 존재자와 달리 존재는 동사적 성격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서양 철학자들이 탐구했던 존재란 엄밀히 말해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그것’, 즉 존재자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탐구 방식을 존재론이라고 말한다.²⁴⁾

24) 레비나스, 『존재와 달리』, 57-58.

이처럼 존재론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탐구로서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특징을 가진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것’이 지금 내 앞에 현전하기 이전의 과거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어떤 것에 대해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기 이전에 ‘이것’은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내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기 전에 ‘이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단지 지금 나에게 인식되었기에 ‘무엇인가?’ 질문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내가 인식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어쩌면 나는 내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과 이미 관계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늘 다니던 길에 피어 있는 한 꽃을 발견했다고 할 때 나의 입장에서는 그 꽃이 지금 나타난 것이지만 그 꽃은 내가 인식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고 그러므로 수없이 마주쳤던 꽃이다. 이처럼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나의 질문보다 ‘이것’의 존재와 나와 ‘이것’의 만남이 선행한다. 여기서 ‘이것’은 ‘누구’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주체는 타자와 이미 얽혀 있음으로 어떤 명목으로건 타자가 의식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타자와 관계한다.

이처럼 주체는 자기성을 성립하기 전에 타자에 묶여 있다. 타자에 묶여 있음이 선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체의 등장보다 타자의 존재가 앞이기 때문이다. ‘나’의 등장은 이미 존재하는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즉 나의 존재보다 세계의 존재가 선행하며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타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나는 세계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먼저 존재하고 있는 타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기에 주체성의 성립보다 타자와의 관계가 선행하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이 순서에 주목한다. 내가 등장하기 전에 세계는 이

미 존재하고 있기에 이 세계는 내가 기획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이 세계에 대한 주도권이 없다. 그런데도 나는 “마치 내가 세계의 창조에 참석하기라도 한 듯이, 또 내가 보살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세계라는 듯이 추론”하며 세계와 타자를 자신의 기획으로 취급하려 한다.²⁵⁾ 다시 말해 나는 세계와 타자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그것을 지배하려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의 존재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요컨대, 존재하려는 욕망으로 나는 세계를 ‘나 중심’으로 기획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 지배함으로써 나의 존재를 실현하려 한다. 여기서 세계를 나를 중심으로 기획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성이다. 이성은 힘의 한 형태로서 주체는 이성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는다.²⁶⁾ 이것은 구체적으로 개념화, 범주화, 주제화, 체계화, 표상화로 이루어진다.²⁷⁾

그런데 이러한 작업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식대로 세계와 타자를 동일화하는 것으로서 주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식되지 못한 타자의 고유함은 거부된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각기 그의 고유함을 가진다고 할진대 그 고유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타자에 대한 폭력이다. 레비나스는 이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타자를 재단하고 동일화하는 것을 전체성이라

25) 레비나스, 『존재와 달리』, 267.

26) Luc Anckaert, “Ethics of Responsibility and Ambiguity of Politics in Levinas’s Philosophy,” *Problemas* 97 (2020): 66.

27) 강영안, “레비나스의 ‘평화의 형이상학’ 일인칭적 관점에서 본 평화의 문제,” 『평화의 철학』,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229.

부르면서 이러한 전체성은 인간다움을 멈추게 한다고 말한다.²⁸⁾ 전체성을 띤 주체는 자신의 고유성을 상실한 채 자기를 그저 하나의 큰 이야기로 바라보게 된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에서의 승리라는 전체성에 함몰되면 자신을 승리라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보게 되면서 그의 고유한 판단과 양심은 작동되지 않고 모든 선택은 승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화 된다. 이 과정에서 비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에 전체성이 인간다움을 멈추게 한다고 말한 것이다.

전체성이 인간다움을 멈추게 하는 것은 전체성 밖의 타자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레비나스의 타자는 그저 다른 사람이 아니다. 타자는 "절대적 타자"이다.²⁹⁾ 절대적 타자로서 타자는 나와 어떠한 연결점도, 어떠한 공통 개념도 갖고 있지 않다. 이처럼 나와 타자 사이에 어떠한 매개도 없다는 것은 타자는 나와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의미한다. 절대적으로 다른 타자는 나에게 의식으로 포획될 수 없는 전적으로 다른 자리에 있다.³⁰⁾ 이런 의미에서 타자는 나의 '밖'에 있는 존재로서 외재성(外在性)을 가진다.

외재성을 가진 타자는 언제나 첫 번째로 온 자로 나와 첫 번째로 관계를 맺는다. 이는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거나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했어도 마찬가지이다. 타자의 얼굴은 언제나 처음처럼, 새롭게 다가온다.³¹⁾ 이처럼 언제나 처음 온 자로서 타자는 나에게 알려지지 않은 자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다가온 타자는 절대적 다름으로서 내가 의식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28) 에마뉘엘 레비나스, 『전체성과 무한』 김도형, 문성원, 손영창 옮김 (서울: 그린비, 2018), 8.

29) 레비나스, 『전체성과 무한』, 253.

30) 레비나스, 『전체성과 무한』, 36.

31) 레비나스, 『존재와 달리』, 188.

타자는 나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나에게로 와서 나를 소환하고 나에게 명령한다. 나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나 나와 어떠한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소환하고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척 당황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내게 무엇인지, 어떤 권리로 나에게 명령하는지, 나는 왜 빚진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 물을 수도 없고 답을 찾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타자의 소환과 명령은 그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가질 여지도 주지 않는 극단적 긴급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웃의 소환과 명령은 나에게 피할 수 없는 강박이 된다.’³²⁾

갑작스런 타자의 소환과 명령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그것으로부터 피할 수 없음의 강박, 그리고 응답에 대한 극단적 긴급함으로 인한 성가심은 주체에게 고통이 된다. 고통은 감각이다. 따라서 고통으로 다가오는 타자는 감성으로만 알아차릴 수 있다. 신체를 가짐으로 인해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먼저 타자를 만나게 되는 주체는 타자의 다가움이 고통이라 해서 거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감각은 수동성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감각한다고 했을 때 그 물체에 대한 감각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를테면 어떤 물체를 만졌을 때 그것을 감각하는 것은 물체와 접촉한 피부에 분포된 신경세포들이 물체가 가진 고유한 외적 성질에 대한 정보를 뇌로 보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감각이란 내가 임의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접촉한 것의 성질에 따라 형성되는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해 ‘감각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 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감성적 주체는 타자의 다가움으로 인한 감각을 통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감성적

32) 레비나스, 『존재와 달리』, 189-190.

주체인 나는 타자의 소환과 명령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감성적 주체는 타자의 고통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이다. 타자의 고통에 노출된 주체는 타자와 함께 고통을 느끼며 타자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깨닫는다. 우리는 쓰나미나 테러, 전쟁, 지진 등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볼 때, 비록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고통을 느낀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우리의 잘못으로 그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타자의 고통에 대해 함께 고통을 느끼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타자를 인식하기 이전에 이미 타자와 엮여 있기 때문이다.³³⁾ 타자와 엮여 있음으로 인해 타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주체는 타자의 필요를 살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준다. 필요하다면 내가 먹고 있던 빵까지도 빼내어 내어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주체가 타자의 고통을 느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주체의 자발성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감성으로서의 노출은 한층 더 수동적이다. 그것은 있음의 코나투스³⁴⁾의 전도이며, 유보없이-바쳐-졌음이다. 이것은 상태의 어떤 일관성이나 동일성 안에서 보호를 구하지 않는다. 유보없이-바쳐-졌음이지, 바침의 관대함이 결코 아니다. 그런 바침은 행위에 해당할 것이고, 이미 감성의 무한정한 겪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 유보없이-바쳐-졌음에서 과거완료는 감성의 현재-아님, 시작-아님, 선도적-아님을 강조한다.³⁴⁾

33) 김영길, “레비나스 : 윤리적 관계 안에서의 타자의 얼굴과 무한책임,” 『대동철학』90 (2020): 59.

34) 레비나스, 『존재와 달리』, 164.

여기서 레비나스는 타자에게 내어줌이 주체의 자발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그보다는 “바쳐졌음”이라는 과거완료 표현처럼 과거에 완료된 수동성이다. 즉 내가 기억하기 이전에, 다시 말해 ‘나’로 세워지기 전 타자에 묶여 있음으로 있을 때 이미 타자에게 바쳐진 상태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타자의 고통을 채워주는 것은 마치 각인처럼 나에게 새겨져 있음으로 행하는 것뿐이다.

이처럼 레비나스는 감성을 통해 주체가 자기를 위한 주체에서 타자를 위한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근접성으로 설명하였다. 근접성은 주체와 타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나 공간의 가까워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타자에 대한 자기의 노출, 상처받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타자에 대해 자기를 개방하는 태도를 가진 주체성을 의미한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주체성이야말로 ‘진정한 자기’라고 말한다.³⁵⁾ 타자에게 자기를 노출하고 이웃에 대한 책임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 진정한 자기는 모든 존재 아래로-던져져(Sub-jectum) 존재 전체를 떠받치는 자, 즉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자이다.³⁶⁾ 이러한 자기는 없던 것이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 자기이며 존재하려는 욕망으로 타자를 지배하려는 자기보다 앞선 것이다.

타자에 대한 책임의 윤리적 주체성은 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스스로의 고유한 주도권에서 비롯하지 않고 선출된다. 이 선택 받음은 나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따라서 전혀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내가 주체로 등장하기도 전

35) 레비나스, 『존재와 달리』, 41.

36) 레비나스, 『존재와 달리』, 252.

에 이미 타자를 위한 자로 선택 받았다는 것은 타자의 책임에 대해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 일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대체불가능한 것임을 말해준다.

타자에 대한 책임이 법적인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타자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윤리적 명령이기 때문이다.³⁷⁾ 그러나 타자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타자의 책임에 대해 선출된 자로서 나는 타자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타자의 얼굴에서 그의 궁핍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의 호소에 응답하여 타자를 책임지는 자가 되는 선함을 내 안에서 일깨우는 데 있다.³⁸⁾ 레비나스는 이런 주체야말로 존재와 다른 것이며 존재성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았다.

IV. 타자윤리와 종교

레비나스는 마리옹(Jean-Luc Marion)과 더불어 20세기 중반 이후 현대 프랑스의 현상학자들 중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로 평가받는다.³⁹⁾ 그러나 초기와 중기까지만 해도 레비나스는 자신의 철학을 종교와 관련 짓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이 유대인으로 겪은 전쟁의 참혹함을 ‘그리스어’로, 즉 철학으로 번역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생각했기 때문이다.⁴⁰⁾ 이 때문에 초기와 중

37) 김영길, “레비나스 : 윤리적 관계 안에서의 타자의 얼굴과 무한책임,” 67.

38) 김영길, “레비나스 : 윤리적 관계 안에서의 타자의 얼굴과 무한책임,” 69.

39) 김동규, “최근 프랑스 현상학에서 철학과 신학의 관계 설정에 관한 연구 : 레비나스와 마리옹 사이,” 『신학과 철학』 41 (2022): 170.

40)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260.

기 저서에서 종교나 신과 관련한 주제들을 다루지 않았지만 후기로 갈수록 그의 저서에서 종교와 신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된다. 후기 저서 중 대표작인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을 넘어』의 서문 격인 예비노트에서 레비나스는 “존재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 신의 소리를 듣는 것은 형이상학과 존재-신학 속으로 떨어지게 될 망각으로부터 그 존재를 끄집어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시작부터 신에 대해 언급한다.⁴¹⁾

신에 대한 레비나스의 태도 변화에 대해 강영안은 『전체성과 무한』 출판 이후 데리다(Jaques Derrida)가 1964년 그의 『폭력과 형이상학』이라는 논문에서 레비나스의 사상을 비판한 것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자콥 페투코프키 교수와의 대화를 보면 레비나스는 신과 종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했을 뿐 항상 그의 사유에서 신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윤리학에서 신학으로 넘어가는 이유를 묻는 페투코프스키 교수의 진지하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대답 하겠습니까. 신 없이 윤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간 타자와의 관계없이 신학이 가능합니까? [...] 신과의 직접적 만남, 이것은 그리스도교적 개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삼인조입니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제삼자입니다.⁴²⁾

“신 없이 윤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레비나스는 신을 타자에 대한 책임 윤리의 근거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에 대한 사유는 데카르트의 무한의 관념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레비나스는 데카르트의 무한의 관념이 수동적인 주

41) 레비나스, 『존재와 달리』, 260.

42) E. Levinas, “Ideology and idealism,” In *The Levinas Reader*, ed. Sean Hand (Oxford: Blackwell, 1989), 247.

체 안에서 초월을 사유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한다.⁴³⁾ 『성찰 3』에서 데카르트는 인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신이나 동물,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신에 대한 이념 말고는 모두 자기에게서부터 나온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신은 무한으로서 유한한 인간이 결코 생각하거나 사유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유한한 인간이 무한인 신을 사유할 수 있는 것은 신이 무한의 관념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이다.⁴⁴⁾

여기서 레비나스는 무한의 관념이 우리 속에 놓여 있음에 주목한다. 유한한 인간이 결코 측정할 수 없고 포섭할 수도 없는 무한이 우리 안에 놓였다는 것은 첫째로는 주체의 수동성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에 일종의 타율 같은 것이 있다. 이것을 영감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심지어 예언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은 어떤 천재성이 아니라, 정신의 정신성 자체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에 나오는 한 구절의 의미다. “신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언이란 다만 귀가 있다는 사실과 같은 것이다.⁴⁵⁾

유한한 인간이 무한을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귀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무한을 사유할 수 있는 관념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레비나스는 무한에 대한 사유가 주체의 수동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의미와 이어지는 것으로서 신으로부터 무한의 관념을 부여받음으로써 주체의 의식이 파열되고 일깨워진다

43) 에마뉘엘 레비나스, 『신, 죽음 그리고 시간』 김도형, 문성원, 손영창 옮김 (서울: 그린비, 2013), 214.

44) 강영안, “레비나스의 신(神)담론,” 『대동철학』 57 (2011): 14.

45) 레비나스, 『신, 죽음 그리고 시간』, 215.

는 것이다. 전통 형이상학에서 신에 대한 사유는 신도 존재자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표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무한의 관념으로 인해 신에 대한 나의 관념과 관념이 되는 신 사이의 불일치, 즉 자아의식의 노에시스와 의식이 지향하는 노에마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된다.⁴⁶⁾ 이것으로 세계를 자신의 인식으로 표상화하고 내재하는 사유 방식이 깨트려진다. 이처럼 레비나스는 전통 형이상학으로 인해 가지게 된 존재론적 사유 방식이 신을 통해 깨트려질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 신의 의미가 있다. 레비나스가 신의 의미를 찾는 것은 주체가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무한의 관념으로 일깨워짐으로써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 너머의 주체’가 되기 위함이다. 주체는 ‘그저 있음(il y a)’의 익명적 존재의 세계와 나에게로 환원할 수 없는 타자의 영역이 중첩된 곳에 있다. 여기서 주체가 타자와의 만남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타자의 영역은 익명의 세계로 환원되고 만다. 그러면 주체는 동일자로서의 주체, 즉 전체성의 주체가 되어 세계를 힘과 폭력으로 지배하려 한다. 그러나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무한의 관념을 통해 주체는 타자를 절대적 타자로, 초월로 대면하는 윤리적 주체로 일깨워지고, 그렇게 일깨워진 주체는 타자를 책임지고 타자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한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신의 의미를 그리스도교의 케노시스 신학에서 찾는다.⁴⁷⁾ 레비나스가 케노시스, 즉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으로부터 찾은 신의 의미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최고 존재인 신의 낮아짐

46) 강영안, “레비나스의 신(神)담론,” 15.

47) 에미뉴엘 레비나스, “신-인간,” 『우리 사이』 김성호 옮김 (서울: 그린비, 2019), 90.

비천함, 겸손의 사상이고, 또 하나는 타자들을 위한 속죄, 곧 대속의 사상이다. 레비나스는 신의 낮아짐에서는 초월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고, 대속의 사상은 주체성 이해에 꼭 필요한 것이라 말한다.⁴⁸⁾

레비나스가 케노시스 신학에서 찾은 신의 의미에 대해 신학적으로 좀 더 고찰해 보자. 케노시스의 의미는 ‘비운다’라는 것으로서 신약성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를 예수의 본질로 설명한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예수는 종의 모습을 취하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여기서 ‘모습’(μορφή)이란 6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단어로서 본질로서 하나님인 예수가 종의 본질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교리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聖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다. 그래서 케노시스란 예수가 신이면서도 신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익을 포기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점에 대해 동방 정교 신학자들은 예수의 비움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질 자체를 비운 것이 아니라 신적 속성들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⁴⁹⁾

이러한 케노시스의 의미는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살필 때 더 분명해진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다. 신학자들마다 여러 관점들이 있으나 최근 제기된 정치문화사적 관점에서 볼 때 당시 빌립보는 명예와 지위와 서열을 존중하는 사회였다고 한다. 로마의 삼두 정치 시절 집정관 중 한 명이었던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42년 빌립보 전투에서 시저를 암살한 공화파를 물리치고, 31년에는 악티움 해전에

48) 레비나스, “신-인간?” 91.

49) 김춘기, “빌립보서에 나타난 kenosis와 mimesis의 관계성,” 『신학과 묵회』 33 (2010): 148.

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며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다.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권력 전쟁이 끝난 후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퇴역한 군인들을 빌립보에 정착시켰다.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참전했던 군인들이 빌립보에 정착하면서 빌립보는 황제 숭배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게 시행되었다. 황제 숭배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엘리트와 비엘트를 구분하고, 나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위계질서와 계급 구분을 강화시킴으로써 명예와 지위와 서열을 중요시하는 정치문화적 풍토를 형성하였다.⁵⁰⁾

이러한 정치문화적 배경에서 본다면 빌립보서 2: 5-11에서 하나님 이신 그리스도가 종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불명예스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당시 경쟁 지상주의 문화에 도전하여 새로운 정치문화인 '겸허 경쟁 문화'를 제시하는 것이었다.⁵¹⁾ 로마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는 가장 높은 신이었음에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케노시스를 통해 바울은 서열과 승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빌립보의 사회에 새로운 공동체적 관계의 비전을 제시한다.⁵²⁾

이 비전은 예수가 신의 자기비움(케노시스)의 존재양식인 것처럼 공동체의 존재양식도 강해지고, 부해지는 영광으로 스스로 나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스스로 낮아지고 순종하며 서로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예수가 보여준 자기비

50) J. H. Hellerman, "Vindicating God's Servants in Philippi & Philippians,"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0,1 (2010), 85-102,

51) 김덕기, "빌립보서 2장 6-11절의 최근 연구동향," 「장신논단」 44.1 (2012): 48.

52) 나인신, "케노시스를 통한 공동체-관계형성에 관한 연구," 「동서철학연구」 78 (2015): 611.

움의 케노시스는 공동체적 관계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⁵³⁾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에게 예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질 것을 권 면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비운 예수에 대해 말한다. 십자가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주의 상징⁵⁴⁾이며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패배의 상징이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고 예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말한다. 이는 매우 역설적인 것으로서 바울은 십자가를 바울은 십자가를 로마 제국의 힘(권력)을 뒤집는 상징으로 본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은 강함이 아닌 희생자의 약함에서 드러난다. 그 권능은 고통과 죽음을 향한 것이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자의 부활에서 입증된다.⁵⁵⁾ 즉 바울이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권능은 약함에 있는 권능이다. 억압하고 지배하는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은 이 교도의 폭력, 잔인한 힘 또는 저속한 마법이 아니라 약함의 힘이고, 불의한 고통에 ‘아니’라고 말하는 힘이며, 무고한 자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힘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상징이다.⁵⁶⁾

이러한 케노시스 사상은 초대 교회의 윤리 개념을 바꾸었다. 당시 헬레니즘 사회의 윤리는 동일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만

53) 나인선, “케노시스를 통한 공동체-관계형성에 관한 연구,” 612.

54)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 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1: 22-25.

55) Theodore W. Jennings jr, *Trnasforming Atonment: A Political Theology of the Cross*(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9), 155.

56)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6), 43.

자선을 베푸는 것이었고 그 자선은 자신이 베푼 만큼 다시 되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행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초대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보다 낮은 자들을 향해 자선을 베풀었고, 그들은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타이센(Gerd Theissen)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진 연대감은 근대적 평등 개념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서 궁핍한 자들을 돌보고 약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었다고 말한다.⁵⁷⁾ 이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울의 권면대로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케노시스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케노시스적 관계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여기기보다는 강자가 약자에게 보다 큰 관심과 필요한 것을 제공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역전시킨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내가 섬겨야 하는 자로 여기는 비대칭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힘없는 자를 섬기는 자가 진정한 강자라는 윤리관을 갖게 한다. 케노시스의 관점에서는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 부요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지혜이며 권능이다. 즉 진정한 능력과 힘은 제압하고 억압하며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약함에 있고, 낮아짐에 있으며, 나보다 타자를 높이며 그를 섬기는 것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⁵⁸⁾

이러한 케노시스 신학에서 레비나스는 신과 종교의 의미를 찾는다. 레비나스는 가장 높은 존재인 신이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인간이 된 하나님의 낮아짐에서 초월과의 관계를 생각한다. 초월자로

57) Gerd Theissen, *Social Reality and the Early Christians*, trans. Margaret Kohl(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277.

58) 나인선, “케노시스를 통한 공동체-관계형성에 관한 연구,” 613.

서의 신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과의 직접적 관계 맺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신이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인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가장 낮은 인간과의 관계 맺음, 즉 약자와의 관계 맺음을 통해 신과의 관계 맺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약자와의 관계 맺음은 환대와 돌봄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비가시적인 신은 약자를 돌보는 정의(正義)속에서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⁵⁹⁾ 이처럼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신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정의를 행하는 일은 기도와 예배와 마찬가지로 신과의 가까움을 얻는 일이 된다.⁶⁰⁾

또 레비나스는 대속의 사상에서 주체성을 이해한다. 가장 낮은 인간이 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였고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이것은 신의 권능으로 확증되었다. 신의 권능은 억압하고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약함의 힘으로서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힘이다. 이것으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힘은 나보다 타자를 높이며 타자를 섬기는 데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이것은 레비나스가 말하는 윤리적 주체성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신의 의미가 이러하다면 종교의 의미도 새로워진다. “존재론은 근본적인가?”(Is Ontology fundamental?)라는 논문에서 레비나스는 타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종교라고 말한다.

타자와의 관계는 존재론적이지 않다. 타자와의 관계는 타자가 표상되는 것이 아니라 그 또는 그녀에게 기도(Invocation)하는

59) 레비나스, 『전체성과 무한』, 105.

60) E. Levinas, “A Religion for Adults,” In *Difficult Freedom: essays on Judaism*, trans. Sean Hand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0), 18.

것으로 이뤄진다. 이때 기도는 이해에 주도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라 부른다. 타자와의 대화의 본질은 기도이다.⁶¹⁾

기도는 초월적 대상과 나누는 대화이다. 따라서 타자에게 기도한다는 것이란 타자를 초월적인 존재로 여기고 타자의 얼굴을 계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⁶²⁾ 이처럼 레비나스는 타자를 존재론적으로 표상화하지 않고 타자의 절대적 다름과 초월성을 인정하는 태도로 타자와 관계하게 하는 것이 종교의 의미라고 말한다.⁶³⁾ 다시 말해 종교의 의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윤리적으로 정립하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IV. 나가는 말-진정한 강군을 위한 군종의 실천적 역할

우리 군이 ‘힘에 의한 평화’를 지향한다고 할 때 ‘힘’이 자기 존재 유지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전쟁 억제의 소극적 평화는 달성할 수 있으나 비정상적인 병영 문화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사회나 조직의 정당성을 무너트리는 것으로 비군사적 위협이 중요해지는 현대전(戰)에서 심각한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부재한 소극적 평화로 달성되지 않는다.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더라도 사회 구조나 체제를 통해 가해지는 구조적 폭력이나 이론, 철학, 사상, 종교적 교리를 통해 가해지는 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면 평화는 언제든지 깨어질 위험

61) Emmanuel Levinas, "Is ontology Fundamental?," *Philosophy Today* 33,2 (1989): 126.

62) 김영한, "레비나스의 종교사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해석학연구』 26 (2010): 115.

63) 종교(religion)라는 말의 어원인 라틴어는 'religare'로서 이는 '다시 이어준다(re-ligare)'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비나스는 종교를 존재론적 관점으로 연결된 나와 신,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타자에 대한 책임의 윤리적 관점으로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을 받는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군은 힘의 의미를 재고해야 한다.

현대의 윤리학은 현대 사회 문제의 원인을 힘의 확장으로 지목하고 인간 사회 안에서의 모든 힘의 형태와 그 확장에 주목한다. 힘의 확장은 자유를 본질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에서 비롯된다. 존재할 자유, 존재를 유지할 자유를 주장하는 것에서 힘의 소유와 확장은 정당화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강한 군사력을 추구하는 것은 존재할 자유, 존재를 유지할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레비나스는 자기 보존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주체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문제 삼는다. 주체의 등장은 이미 존재하는 세계보다 언제나 늦다. 이처럼 늦게 나타나는 주체는 자기 존재의 정당성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존재함이 이미 존재하는 타자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으며 세계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계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서 주체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타자에 대한 책임적 주체가 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레비나스는 우리는 모두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메시아란 세상을 구원할 신의 아들 또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되어야 하는 메시아란 타자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가진 사람, 타자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고 대속의 자리로까지 가는 사람이다. 타자는 낯선 자로, 고아와 과부의 얼굴로, 즉 고통받는 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타자의 얼굴은 응답의 긴급성을 요구한다. 타자는 내가 타자에 대한 책임의 응답을 하기까지 끊임없이 쫓아와 나를 괴롭게 한다. 어떤 의미

에서 이것은 박해(persecution)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타자에 호소에 응답할 때 나는 자기 보존의 욕구만을 추구하는 존재를 넘어 책임적 존재이며 윤리적 주체가 된다. 이처럼 윤리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타자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가지며 타자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레비나스의 사유에 따라 우리 군이 힘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 한다면 그 힘은 자기 존재 유지의 관점에서 비롯된 이기기 위한 힘이 아닌 타자에 대한 책임의 관점에서 타자를 지키기 위한 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힘의 추구는 평화의 수호자라는 우리 군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해줄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군의 목표까지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타자에 대한 나의 책임 있음이 일깨워지기 위해 신과 종교가 요청됨을 레비나스의 사유로 살펴보았다. 레비나스는 타자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는 것을 ‘익명적 존재’(il y a)라고 표현하며 주체가 익명적 존재의 세계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과 종교의 의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낮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은 힘없는 자를 섬기는 자가 진정한 강자라는 윤리관을 갖게 한다. 그리고 종교는 타자의 타자성을 초월로 여기게 하여 나보다 타자를 더 높임으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자 중심의 윤리적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이와 같이 타자에 대한 책임 윤리의 형성을 위해 신과 종교의 의미가 필요하다면 우리 군이 책임 윤리로 뒷받침한 진정한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군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정치적 체제와 구조는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어느 누구에

게나 정의 실현의 도덕적 사명을 수행하는지 늘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레비나스는 정의가 왜곡되지 않고 좀 더 나은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정치적 지성과는 다른 일깨움을 주었던 구약 성서의 선지자들의 모습에서 찾았다.

이처럼 군중은 군의 양심을 일깨우는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 예언자로서 군중은 군에 영감을 주는 자가 되어 군이 타자에 대한 책임의 관점을 견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군이 타자에 대한 책임 윤리로 평화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면 군중은 책임 윤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는 종교의 가르침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바 군중은 종교활동과 종교교육을 통해 타자에 대한 책임 윤리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타자에 대한 책임 윤리는 기독교의 자기 비움과 이웃 사랑의 교리와 관련이 있다. 또 불교에서는 ‘무아(無我)’ 사상과 자비의 교리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⁶⁴⁾ 군중이 각 종교의 이러한 사상과 교리를 가르치고 강조하는 종교활동과 종교교육을 실시하면 장병들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책임을 일깨울 수 있고 그것으로 장병들은 타인에 대한 책임의 패러다임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를 기반으로 한 인성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 군중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성교육은 자기 효능감에 근거한 것으로서 타인과의 관계와 타자에 대한 책임

64) 레비나스의 타자윤리와 불교 교리와 관련된 연구로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김상록, “『전체와 무한』으로 본 마음의 생멸(生滅)(1) - 레비나스와 불교의 소통을 위한 시도-,” 『철학사상』 75 (2020): 3-31; “존재론적 차이와 존재론적 분리(2)『대승기신론』으로 본 하이데거와 레비나스의 존재이해,” 『철학과 현상학 연구』 78 (2018): 179-214. 주광순, “유럽 중심주의 비판을 위하여 : 레비나스와 용수,” 『철학논총』 57 (2009): 321-342.

을 강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찾고 개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타자 윤리 기반의 인성교육은 군종만의 특성을 살린 교육이 될 수 있다. 타자의 타자성을 강조하며 타자에 대한 나의 책임이 있음을, 그리고 타자를 위한 책임에서 나의 의미를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인성교육은 자기 비움과 이웃 사랑의 종교 교리와 맞물리며 군종만이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Role of Chaplain in Becoming a Truly Strong Military : Mediating Levinas's Ethics of the Other

Dae Ho Je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at our military, which pursues 'peace through force,' must have an ethic of others in order to become a true guardian of peace, and that the role of military chaplains is necessary for thi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increasingly sophisticated missile capabilities pose a real threat to South Korea's security. In addition, the paradigm that the ROK Armed Forces will suppress war with strong military power to protect the country and people and maintain peace in the Republic of Korea in response to continued military provocations seems appropriate.

However, the pursuit of strength from the perspective of maintaining one's existence becomes a factor that violates human rights by representing soldiers as combat forces rather than people, and in the military, which is a male-dominated group, strength is linked to masculinity and is the cause of the formation of a gender-discriminatory culture. This abnormal military culture can become a fatal security threat in today's era of unconventional warfare.

Therefore, in order to become a strong military that protects true peace, ethics must be supported. I propose Levinas's ideas that emphasize responsibility for others as ethics for the pursuit of true strength. Levinas raises the question of the infinite use of freedom for the maintenance of one's existence and says that true subjectivity is one who is "Sub(down)-jectum(throw)" by all beings and supports them as a

whole, that is, taking responsibility for everything.

The role of religion is necessary to awaken the subject to true subjectivity with responsibility for others. Levinas believed that through the concept of infinity given by God, the subject can break away from the ontological mindset of self-identification and become an ethical subject with responsibility for others. In this way, if the meaning of God and religion is necessary to form an ethics of responsibility toward others, the role of a military chaplain is necessary to become a truly strong military supported by an ethics of responsibility. Military chaplains must become military prophets and continuously remind themselves of their responsibility toward others, and their chaplaincy activities must be based on the self-emptiness and love for neighbors.

Key Words

Military, peace through strength, Levinas, ethics of the other, military chaplain

논문 기고자 Email

bigsky01@naver.com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규칙

제1조 (정의)

이 규칙은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내 부설기구로 조직된 “한국군선교신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 규칙”이다.

제2조 (명칭)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라 칭한다.

제3조 (소속)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내에 둔다.

제4조 (목적)

1. 군선교사역을 통한 민족복음화의 전략인 비전2030 실천운동을 신학(선교, 실천)적으로 정립
2. 다원종교 사회속에서의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군선교 전략 및 전술의 계속 개발 및 적용
3. 21세기 세계 종교 상황과 문명충돌 현상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군선교사역 방향확립

4.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이버 이단 세력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
5. 실천신학 분야는 군종목사, 군종목사후보생, 군선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6. 한국교회 성장에 군선교가 미친 영향을 역사신학적 측면에서 정립 및 미래방향 제시
7. 군선교사역이 한국교회의 21세기 청년전도의 중심 및 교회부흥을 향한 비전2030 실천운동과 병영 및 사회에서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을 위한 사역의 결실을 맺도록 역할

제5조 (조직 및 임기)

1. 군선교신학회는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신학연구위원장 1명, 교육위원장 1명, 일반 연구위원 등 30명 내외로 조직한다.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전체사역을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유고시에 대행한다.
2. 분과별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정책위원, 군종목사위원
3. 연구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4.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총무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5. 효율적인 학회운영을 위해서 신학연구위원회를 둔다.
6.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위해서 교육위원회를 둔다.

제6조 (연구위원 선발)

1. 각 신학분야별로 초교파적으로 선임한다.
2. 본 학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 학회 정기회의에서 선임하여 본회 법인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7조 (신학연구위원회)

1. 구성 : 신학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7개 분야별 각 1명씩 7명, 당연직 사무총장 1명 등 9명으로 구성한다.
2. 회의 : 정기회의는 3월, 7월에 개최하며,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갖는다.

제8조 (교육위원회: 군복음화 아카데미)

1. 구성 :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3명, 당연직 사무총장, 총무 2명 등 6명으로 구성한다.
2. 회의 : 정기회의는 3월, 7월에 개최하며,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갖는다.
3. 교육프로그램 전담(군종목사, 군종목사후보생, 군선교사, 기독교준부사관단 수련회)

제9조 (운영방향)

1. 전체회의 : 신학회장이 소집한다.
 - 가. 정기회의는 연 1회 10월 중 소집한다.
 - 나.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소집한다.
2.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개최

- 가. 매년 정기적으로 현장 또는 사회상황에서 발생하는 핵심이슈를 정하여 개최한다.
- 나. 대주제는 ‘비전2030실천운동의 신학적 조명과 미래’로 한다.
- 다. 매년 주제는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3. 군선교신학 연구논문집 출판 사업
- 가.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Ebook, PDF파일, 책-도서)하도록 한다.
- 나. 각 분과별 연구위원들은 격년마다 1편씩 제출을 의무적으로 한다.
- 다. 군선교신학논문집에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인 기획논문을 우선하여 논문집에 수록한다.
- 라. 편집 등 효율적인 출판을 위하여 제반업무는 신학연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4. ‘군선교교역자’라는 호칭을 ‘군선교사’와 병행하여 사용한다.
5.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군종목사, 군선교사, 군종목사후보생 등의 선교, 목회, 상담 등을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제10조 업무관리

1. 본 학회와 관련한 제반적 업무관리 및 운영 등 실행은 본회의 사무총장과 사무국(선교팀)에서 총괄한다.
2. 본 학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구위원은 필요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3. 본 학회의 운영규칙 개정은 본 학회 정기회의에서 개정하여 본회 법인이사회 인준으로 개정한다.

4. 이단 사이버 대책

가. 군내 이단 사이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군내 이단 사이버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한다.

다. 1004군인교회 이단 사이버 기준설정 결의

① 군내 침투 이단에 대한 예방 및 대처 기준 설정

- 군종목사파송 10개 교단 중 1개 교단이라도 이단/사이버로 판명 시에는 이단으로 제재

② 교단 차원의 이단/사이버로 규정된 것을 한기총 등 연합기관에서의 상이한 조치가 나올 시에는 교단 결정사항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5. 군선교 정책발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의 신학적 발전과 정책, 전략, 전술 등 발전에 책임적인 역할을 다한다.

6. 연구위원은 군선교신문, 단행본, 교계언론매체, 각종학술지 등에 군선교 관련 기고를 적극 실천한다.

7. 본 학회는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을 위하여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중심으로 제반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제 정 : 2004. 11. 19

1차개정 : 2009. 7. 27

2차개정 : 2012. 10. 23

3차개정 : 2013. 11. 18

부록 1_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규칙 | 251

4차개정 : 2017. 2. 2

5차개정 : 2019. 10. 31

6차개정 : 2021. 3. 17

군선교신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군선교신학회(이하 본 학회)의 연구와 학술 활동이 군선교를 위한 신학의 정립을 모색하며, 교회의 복음 전파와 신자들의 신앙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연구와 논문 작성 시 건전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적 선언)

1. 본 학회는 학술활동과 신앙적 양심에 책임을 다하는 연구를 지지한다.
2. 본 학회를 통하여 발표되는 모든 학술 활동에 있어 날조, 위조, 표절 등 연구 수행에 있어서의 직, 간접적 부정행위를 배제하며 이를 부인한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 학회는 그것을 본회의 연구 발표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본 학회는 이중투고를 금지하며 공동연구에 있어 합리적 저자 배분과 공정한 권리배분을 권장하고 지지한다.
4. 본 학회는 모든 학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참여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이 높아지고 그 연구결과가 풍성해지

는 것을 지지한다.

5. 논문 작성시 ‘논문 제목, 필자 성명, 소속, 전공,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 성명, 영문 소속, 영문 요약, 영문 주제어 6개순’의 제반 항목을 창의성 있게 충실히 완성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1.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개인적인 제보 혹은 심사위원회에 의한 확인 및 논문 검증시스템 활용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로 그 내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일차 본인에게 연구윤리의 위반이 없었는지의 여부를 확약 받은 후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순서로 시행한다.
3. 모든 연구윤리에 대한 검증은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2012년 8월)에 의거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승인하며, 그 내용이 심대한 연구부정행위일 경우 정부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본 학회는 타 학술기관이나 학술 활동에서 본 학회를 통하여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활동에서 기독교 정신과 명백하게 위배되는 쟁점이 발생한 경우(이 경우 본인의 투고신청서에 윤리규정을 위배하지 않았음을 확약하게 한다)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되었다는 고발이나 정황이 발생하였을 때(이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 논문의 심사에 반드시 윤리규정을 이행하였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10인 이상 회원의 요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 학회의 학회장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이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의 임시 위원회로서 그 사안의 발생부터 종료까지 존속한다. 본 학회의 회장은 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연구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이사회와 협의, 학계의 중진 가운데서 학문의 명망이 높은 자 또는 교계의 중진 가운데서 목회의 명망이 높은 자로 이사회와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4.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6. 조사 대상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실행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그 활동을 종료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내용)

1. 위원회는 해당 건을 심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 가. 승인 : 기존의 연구가 모든 점에서 혐의 없음

- 나. 조건부 승인 : 기존의 연구가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심각하게 상반되지 않지만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다. 보완 후 재심사 : 기존의 연구가 상당히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충돌한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연구의 가치가 있고 보완의 가능성이 있음
 - 라. 부결 : 기존의 연구가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심각하게 충돌되거나 윤리적 도덕적 책임과 현저하게 충돌되기에 본 학회의 연구물로서 인정될 수 없음
2.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부칙 (2016. 7. 27. 연구윤리규정 제1호)

이 규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군선교신학회 논문투고 규정¹⁾

1. 논문작성 시 주의 사항

- 1) 동일 필자는 한 호에 한 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으며,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학위 논문 포함)에 게재하지 않은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 2) 분량은 A4 용지 15~25매를 기준으로 한다.
- 3) 주는 각주를 사용하고 논문(발제 기고, 자유 기고) 마지막 부분에 참고문헌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 4) 영문 제목과 영문 이름 및 영문 초록(Abstract)을 제출하되, 영문 초록은 논문의 대의와 논지가 잘 전달되도록 300단어 정도로 작성한다. 초록의 끝에는 필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를 첨부한다.
- 5) 주제어(Key Words)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다.
- 6) 논문의 글꼴은 신명조 11호, 행간은 160%, 각주는 바탕 9호 행간 130%로 한다. 용지 여백은 좌/우 30, 위 20, 아래 15로 한다.
- 7) 게재 원고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논문 제목 (2) 필자명(간략한 프로필) (3) 논문 본문 (4) 참고문헌

1) 군선교 논문집 투고자는 반드시 <군선교신학회 논문투고 규정>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반려조치 됩니다.

(5) 영문 초록 (6) 주제어(Key Words)

8) 투고 논문이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일 경우 제1저자 및 공동 저자를 구분하고 그 소속을 명기한다.

9) 논문 작성법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투레비안’ 양식에 따라 논문을 작성한다.

〈참고〉 Turabian, Kate L.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 6th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10) 원고 접수처는 아래와 같으며, 원고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한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 E-mail: meak2020@hanmail.net

11) 투고된 논문은 한국군선교신학회의 심사 규정과 절차에 의거하여 「군선교신학」 논문집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각주와 참고문헌 표기의 실례

1) 단행본²⁾

<단행본의 기본 표기 양식>

국내서적	N	저자명,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B	저자명,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외국서적	N	저자명, 서명(이탤릭체로)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B	저자명, 서명(이탤릭체로).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저자 1인의 경우>

N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1998), 97.

2) 아래에서 N은 각주를, B는 참고문헌을 각각 의미한다. 한글 서적 표기는 ‘아래 한글’의 ‘Ctrl F10’을 누른 후 ‘반각기호(도형)’에 들어가, 책은 「」으로, 논문집일 경우 「」로 표기한다.

- B**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1998.
- N** Nathan E. Han, *A PARSING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cottsdale: Herald Press, 1971), 57.
- B** Han, Nathan E. *A PARSING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cottsdale: Herald Press, 1971.

<저자가 2인 이상의 경우>

- N** 장종현, 최갑중, 『사도바울: 그의 삶, 편지, 그리고 신학』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22.
- B** 장종현, 최갑중. 『사도바울: 그의 삶, 편지, 그리고 신학』.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 N** Stanley M. Honor and Thomas C. Hunt, *Invitation to Philosophy: Issues and Options* 3r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78), 37.
- B** Honor, Stanley M. and Hunt, Thomas C. *Invitation to Philosophy: Issues and Options*. 3r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78.

2) 편저

- N** 김우창, 김형규 (공편), 『문학의 지평』 (서울: 고려대출판부, 1984), 12.
- B** 김우창, 김형규 (공편). 『문학의 지평』. 서울: 고려대출판부, 1984.

N Carl F. Henry ed., *Basic Christian Doctrin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25-26.

B Henry, Carl F. ed. *Basic Christian Doctrin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3) 번역서

N 자크 르고프,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화과지성사, 2011), 100.

B 르고프, 자크.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화과지성사, 2011.

N Michel Foucault, *The Archeology of Knowledge*, trans. A. M. Sc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1972), 150.

B Foucault, Michel. *The Archeology of Knowledge*, trans. A. M. Sc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1972), 150.

4) 논문

학술지	저자, “논문 제목(명),” 「학술지명」 권수(발간연도), 인용 페이지.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집 저자가 동일한 경우〉 저자, “논문 제목(명),” 『도서명』 (발행지: 출판사, 연도), 인용 페이지.
	〈논문 저자와 논문집 편집자가 상이한 경우〉 저자, “논문 제목(명),” 『도서명』 편집자 (발행지: 출판사, 연도), 인용 페이지.

<논문의 기본 표기 양식>

<학술지>

N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 연구」 47 (2013), 159.

B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 연구」 47 (2013).

N Gerald Bonner, “Pelagianism and Augustine,” *Augustinian Studies* 23 (1992), 35.

B Bonner, Gerald. “Pelagianism and Augustine.” *Augustinian Studies* 23 (1992).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집 저자가 동일한 경우>

N 김명수, “한국의 교회 부흥,” 『현대교회의 동향: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7), 34-35.

B 김명수. “한국의 교회 부흥.” 『현대교회의 동향: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7.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 편집자가 상이한 경우>

N 홍수길, “신약신학의 동향,” 『진리와 자유』 신학대학협의회편 (서울: 자유출판사, 2001), 380-381.

B 홍수길. “신약신학의 동향.” 『진리와 자유』 신학대학협의회편. 서울: 자유출판사, 2001.

N Thomas Walter Manson,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and others,” *The Romans Debate*, ed. Karl Paul Donfried (Peaboy: Hendrick-son, 1977), 14-15.

B Manson, Thomas Walter.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and others.” *The Romans Debate*. ed. Karl Paul Donfried. Peaboy: Hendrick-son, 1977.

<학위논문의 경우>

- N** 이석우, “군목의 역할 속에 나타난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육군 군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55.
- B** 이석우. “군목의 역할 속에 나타난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육군 군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N** Hyung-Ki Rhee, “A Study of Man in Erasmus & Luther,” (doctoral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1980), 88.
- B** Rhee, Hyung-Ki. “A Study of Man in Erasmus & Luther.” doctoral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1980.

<인터넷 사이트의 논문>

- N** Evans Chan, “Postmodernism and Hong Kong Cinema,” Culture 10. 3 (2000), Project Muse. 20 May 2002 <<http://muse.jhu.edu/journals/pmc/v010/10.3chan.html>>.
- B** Chan, Evans. “Postmodernism and Hong Kong Cinema,” Culture 10. 3 (2000), Project Muse. 20 May 2002 <<http://muse.jhu.edu/journals/pmc/v010/10.3chan.html>>.
- 5) 영화작품: 영화명, 감독, 주요배우, 배급자와 연도.
- N** It’s a Wonderful Life, Dir. Frank Capra, Perf. James Syewart, Lionel Barrymore, and Thomas Mitchell, RKO, 1946.
- B** It’s a Wonderful Life, Dir. Frank Capra. Perf. James Syewart, Lionel Barrymore, and Thomas Mitchell. RKO. 1946.

3. 원고 작성방법

- 1) 도표는 반드시 “표”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2) 장절의 표기는 I, 1, 가, 1), 가), (1), (가) 의 순으로 한다.
- 3) 연대의 표기는 서기를 원칙으로 한다.
- 4) 서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5) 인용문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 6) 인용문이 2행 이상인 경우에는 별행으로 처리한다.
- 7) 필자가 덧붙인 설명은 [] 안에 넣어 원문과 구분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밑줄을 긋고 () 안에 ‘원문’이라고 표시한다.
- 8) 서양어의 서명이나 논문집명은 이탤릭체로 명기한다.
- 9) 페이지 인용의 경우 쪽이나 p.를 붙이지 않아도 무방하다.
- 10) 각주와 내주를 모두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각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11) 각주 방식
 - (1) 처음 인용할 때는 위의 제시처럼 자세히 소개한다. 두 번째 부터는 저자의 경우 성만 표기하고, 제목의 경우 단행본과 논문에서 적절하게 두세 단어를 취하여 저자, 저서(논문명), 페이지의 순으로 처리한다.

〈단행본〉 Fitzmyer, *Luke I-IX*, 220.

〈논문〉 Barrett, “Westcott,” 12.

〈번역서〉 브루스, 『신약사』, 121.
 - (2) 국문인 경우는 성명을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
 - (3) 계속 등장하는 동일한 책이나 논문은 반복하여 쓰지 않고

*Ibid.*를 사용한다.

(4) 바로 앞에 인용한 자료를 다시 참고할 경우 그 사이에 다른
자료가 들어가면 *Ibid.*를 쓸 수 없다.

12) 본문 말미의 참고(인용)문헌에는 본문에 인용한 문헌만 제시
한다.

군선교신학논문집 출판현황

구분	발간일	논문 제목	제출자	총면수
제1권	2004.5.30	비전2020실천운동과 한국교회의 역할	곽선희 목사	343면
		기조강연 -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실천적 고찰	이종윤 목사	
		21세기를 향한 한민족 교회의 사명 -복음화된 통일조국 성취를 위하여-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군진신학 어떻게 할 것인가?		
		군선교 신학의 정립	정성구 목사	
		군복음화 50년의 역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오덕교 목사	
		21세기 한국교회와 군선교 비전	박종화 목사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21세기형 군선교와 군종정책	김정우 목사	
		진중세례운동의 회고와 전망	주연종 군종목사	
		애국심과 신앙심	황우여 장로	
		예정통합측 군선교 비극과 비전2020실천운동	김수진 목사	
		한국 군목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 -해군·해병대를 중심으로-	조성현 군종목사	
		21세기 대중문화와 병영문화의 현실과 상호관계 -기독교문화의 관점에서-	임성빈 목사	
		군종제도의 역사적 고찰과 한국 군종의 미래는?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군선교 사역자 간의 윤리적 제언	박기영 군종목사	
제2권	2004.5.30	족속운동(집단개종, People Movement)과 군선교	정두영 목사	367면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오늘날에도 거룩한 전쟁이 있는가? -구약성경에서 본 진멸하는 전쟁-	김정우 목사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성서적 이해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중심으로-	강사문 목사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관한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	김일수 목사	
		다종교 군 공동체에서의 예수님의 선교 전략 연구	이석우 군종목사	
		세계 종교 상황과 기독교	전호진 목사	
		포스트모던주의의 문제점과 극복에 관한 소고	이종윤 목사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에 대한 정의	박영관 목사	
		금욕주의 빛 아래서의 어거스틴의 결혼관	이규철 군종목사	
		군인교인 신앙성장을 위한 목회상담 임상사례	김상만 군종목사	
제3권	2005.6.10	귀납적 설교의 비결	곽선희 목사	390면
		기독교 영성과 예배	이종윤 목사	
		생명윤리와 신앙 (기조강연)		
		생명윤리와 신앙	채수일 목사	
		"생명윤리와 신앙"에 대한 논찬	김영철 목사	
		"양심적 병역거부주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생명윤리적 양심의 비판-평화와 생명윤리 그리고 양심의 빛에 대한 기독교의 역사적 모색을 중심으로-	이규철 군종목사	
		"양심적 병역거부주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생명윤리적 양심의 비판"에 대한 논찬	유경동 목사	
		군선교를 위한 기부문화에 대한 성경적 이해	강사문 목사	
		어거스틴의 "대화록"의 기본적 성격에 관한 연구	이규철 군종목사	
		성경에 나타난 이교와 이단들 고찰	박영관 목사	
		군종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이념(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홍치모 장로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장병의 치유를 위한 군목회 돌봄 프로그램 연구(CARE 4단계를 중심으로)	안남기 군종목사	
		군인교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 발전	정두영 목사	
제4권	2006.6.15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곽선희 목사	500면

구분	발간일	논문 제목	제 출 자	총면수
		교회 공동체와 국가	이종윤 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전략 -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으로-		
		진중에서의 소수 종교 정책	우기식 군종목사	
		"진중에서의 소수 종교 정책"에 대한 논찬	전호진 목사	
		군 개혁2020에 따른 군선교2020의 전략 -누가 군대의 이웃인가?-	허영식 군종목사	
		"군 개혁2020에 따른 군선교2020의 전략"에 대한 논찬	김성봉 목사	
		21세기 군종병과 패러다임의 전환	주연중 군종목사	
		"21세기 군종병과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논찬	박종화 목사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구약성서적 이해	강사문 목사	
		진중세례에 대한 선교 신학적 이해	장승권 군종목사	
		중세를 적신 어거스틴	이규철 군종목사	
		조나단 에드워즈와 구원과 성화	오덕교 목사	
		변화하는 세계와 기독교인의 윤리	임성빈 목사	
		군소 이교와 이단종파들 고찰	박영관 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한 군선교 전략 연구	민상기 군종목사	
		청중예의 적응에 관한 연구-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설교를 중심으로	최석한 군종목사	
		기독교 장병의 신앙 정도에 따른 자살 위험성 예측	박기영 목사	
		우리나라 군내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침투 포교와 예방 고찰	김광호 목사	
제5권	2007.4.16	1907년 대부흥운동과 비전2020실천운동	이종윤 목사	354면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 집단세례	김인수 교수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접근	강웅산 교수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논찬	이규철 군종목사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안 -군종목사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윤병국 군종목사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안"에 대한 논찬	박종화 목사		
	민족 통일에 대한 성서적 이해	강사문 목사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미국에 있어서의 근본주의 운동과 신복음주의 운동에 관한 연구 동향	홍치모 장로	
		칼빈의 기도신학과 실제-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과 소신 지서 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기도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Pontifex Maximus'로서의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규철 군종목사	
		한국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들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박영관 목사	
		집단개종의 역사적 고찰과 합동세례 보완책 제안	전호진 목사	
		군선교와 세례운동	우기식 군종목사	
		신세대 장병의 군 적응을 돕는 기독교적 방안에 관한 연구-집단상담 심리 검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김현택 목사	
제6권	2008.5.8	바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고함 -복음화된 통일조국이어야 한다-	이종윤 목사	227면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김성봉 목사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에 대한 논찬	강사문 목사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 군선교	최희범 목사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 군선교"에 대한 논찬	우기식 군종목사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종제도(인격지도 교육을 중심으로)	이종윤 목사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종제도"에 대한 논찬	정성구 목사	
		마니교에 대한 어거스틴 반박	이규철 목사	
		국내외의 군소 이교와 이단 집단들 고찰(2)	박영관 목사	
		군장병들을 위한 성경읽기	강사문 목사	
		국제화 시대 한국 군대의 국제적 책임	전호진 목사	
		군교회와 노년기	우기식 군종목사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제7권	2009.5.20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	김진섭 목사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찬	이규철 목사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연구	주연종 군종목사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연구"에 대한 논찬	김성봉 목사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	이광순 목사			

구분	발간일	논문 제목	제 출 자	총면수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여성 군종목사 제도 신설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임낙형 목사	
		다른 종교인에 대한 성경의 교훈과 태도	강사문 목사	
		모니카의 사랑에 대한 《고백론》의 반향	이규철 목사	
		군인교회에 침투하는 기독교회의 이단들에 대한 대책	박관영 목사	
		위원입교인규도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비전캠프(Vision Camp)와 군선교 활성화	한생현 군종목사	
		군 자살 예방에서의 비전캠프의 역할: 종교적 접근을 중심으로	김세훈 대위	
		르네 자라르(R. Girard)의 희생양 이론을 통한 군선교신학 정립 모색	서민우 상병	
제8권	2010.10.5	군선교 사역을 위한 성례전의 성경신학적 의미 -구원을 위한 인침과 징표로서의 성례전Biblical-	이종윤 목사	320면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식: 기독교 정체성 강화와 관련 하여	김세광 목사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식: 기독교 정체성 강화와 관련 하여"에 대한 논찬	권오민 군종목사	
		군선교 현장의 성례식 적용	정비호 군종목사	
		"군선교 현장의 성례식 적용"에 대한 논찬	최희범 목사	
		기쁨과 행복한 군 병영생활을 위한 제언	강사문 목사	
		자살 생각을 가진 용사들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접근	김동연 군종목사	
		교회사에 나타난 군종활동의 역할과 의미	주연종 군종목사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 -교회를 중심으로 -	오덕교 목사	
		어거스틴의 "기독교 교육론"에 나타난 성서 해석의 원리	이규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 안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다자중심적 종교다원주의와 군선교	강찬영 군종목사	
		다종교 군문화권에서 본 군선교에 대한 신학적 고찰	이석우 군종목사	
		제9권	2011.10.20	
기독교 군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	강사문 목사			
"기독교 군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논찬	우기식 군종목사			
기독교 국가관에 근거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주연종 군종목사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기독교 국가관에 근거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에 대한 논찬	오덕교 목사	
		어거스틴과 '정당한 전쟁'	이규철 목사	
		요한계시록에서 십사만 사천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김추성 목사	
		다문화시대와 민족주의, 교회의 역할	임성빈 목사	
		민족과 함께 걸어온 한국교회의 발자취	김수진 목사	
		한국교회 부흥의 방해 요소	안명준 목사	
		군목과 지도력	안광춘 목사	
		전쟁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김동연 군종목사	
		초기 전군 신자화 운동의 비화	정성구 목사	
		『목수지법』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 방안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제10권	2012.10.10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성경적 전거와 실제	이종윤 목사	293면
		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박종화 목사	
		"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에 대한 논찬	주연종 목사	
		선사인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선사인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김진섭 목사	
		광야-사막에 피어난 다윗의 신앙과 삶(시 23: 1-6)	강사문 목사	
		'되찾은 아들 비유'가 주는 죄와 벌의 의미	김일수 목사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접근	안명준 목사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	이규철 목사	
		호주 군선교 정책과 미래적 전망	김상만, 김택조, 이정우 군종목사	
		군에서의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적용 가능성 연구	김동연 군종목사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의 기독교 장병 양육 연구 (2825부대 산동교회를 중심으로)	오희준 군선교사	
		비전캠프를 통한 입소자의 공동체성 고취 및 선교의 가능성 연구	유현 군종목사	
		21세기 한국 군선교에 적합한 양육 시역 모델에 관한 연구	홍석균 목사	
제11권	2013.10.30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사적·비평적 연구	이종윤, 김대덕 목사	420면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 -1004군인교회를 중심으로-	정재원 군종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1004군인교회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이규철 목사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군선교 회원 교회 중심으로-	주연종 목사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군선교 회원 교회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강사문 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	이규철 목사	
		『조선예수교장로회훈상예식서』에 나타난 세례식 순서에 관한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하나님과 이웃 섬김에 대한 이론과 실제	강사문 목사	
		ACT(수용전범치료)소개: 기독교와의 만남	김동연 군종목사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점	안명준 목사	
		경제위기에 대한 성경적 진단과 신앙적 대처방안	김성봉 목사	
		"여호와와의 전쟁신학"이란 안경으로 읽는 성웅 이순신	김진섭 목사	
		순교자 박연세 목사의 민족운동의 행적	김수진 목사	
		아랍 스프링 이후 아랍 국가의 정치적 상황 연구	전호진 목사	
		군 상담의 이해와 발전적 제안	김상만 목사	
		논문공모작	장병 인권에 관한 군선교 전략과 과제 -군종목사 후보생의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집단개종과 진중세례 그리고 진중서약식	강찬영 군종목사	
제12권	2014.10.7	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 찬양의 모범 (기조강연)	이종윤 목사	393면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 (발제I)	김진섭, 이승진 민상기 목사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 (논찬I)	최희범 목사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 (발제II)	김동연 군종목사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 (논찬II)	최석환 군종목사		
	구약절기와 신약 교회력의 만남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중심으로-	김진섭 교수		
	항거할 수 없는 은혜	정성구 교수		
	개혁파 교회의 연합 활동과 신학의 일치성에 관한 연구	김성봉 교수		

구분	발간일	논문 제목	제 출 자	총면수
		폭력에서 사랑으로	안명준 교수	
		군선교를 위한 '뱀티즘'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한국 장로교 초기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당신의 진정한 갈망이 당신의 기도이다"에 담긴 어거스틴의 기도의 영성	이규철 목사	
		가족미술표 치료 난화기법의 이해와 적용	김상만 목사	
	논문공모작	좋은 자기표상 형성을 위한 관계성 연구 -대상관계이론과 목회적 돌봄을 중심으로	김현택 목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지적 자산과 향후과제 -군선교신학논문(1권-11권) 내용을 중심으로	신중훈 전도사	
제13권	2015.10.27	군인권과 선교활동 그리고 예배회복을 위한 강해설교	이중윤 목사	390면
		군인권과 선교활동	김일수 장로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 형식과 교육체계의 표준화 방안	이규철 목사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 형식과 교육체계의 표준화 방안"에 대한 논찬	이승구 목사	
		성경에 나타난 군지도자들과 지도력에 관한 연구(1)	강사문 목사	
		효과적인 군선교 전략을 위한 3대를 잇는 성령님의 교회 같은 가정과 가정 같은 교회	김진섭 목사	
		개혁된 교회	김성봉 목사	
		군선교를 위한 교육신학 사상연구	최석환 목사	
		PTSD와 이야기 치료와의 대화	김동연 군종목사	
		목회리더십 계승의 성경적 방법연구	이용락 목사	
		대대급부대 세례신자 양육방안에 관한 연구	전요섭 목사	
		논문공모작	청년비전캠프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맥락의 개선방안	
		외상상황하에서의 군종상담 연구	전석원 외 2명	
제14권	2016.7.28	오늘의 설교개혁	이중윤 목사	270면
		토라 613계명의 현대적 의미와 적용	김진섭 목사	
		이슬람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	김성봉 목사	
		Vita Augustini에 나타난 히포수도원의 영성	이규철 목사	
		노래치유 중심 표현예술심리치료 경험분석	김상만 목사	
		힐트너(Seward Hiltner)의 목회신학에 대한 연구	최석환 목사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제15권	2016.10.6	파트너십과 합작을 하여 하나님나라 확장에 쓰임 받자	이종윤 목사	285면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강화방안 연구	인만국 목사	
		군선교사 제도혁신방안 연구	정재원 군종목사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강화방안 연구”와 “군선교사 제도혁신방안 연구”에 대한 논찬	이규철 목사	
		구역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와 지도력에 관한 연구(II)	강사문 목사	
		동성애문제에 대한 한국교회 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군선교	강찬영 군종목사	
		남북통합과정에서의 군선교	오상익 군종목사	
		장병의 군복무 중 종교변화와 군선교 전략 연구	김성훈 군종목사	
		군장병의 위기 대응방안으로서 신앙활성화에 관한 연구	황미선 목사	
제16권	2017.10.10	동성애와 군형법 제92조의 6 개정안에 대한 소고	이종윤 목사	341면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	길원평 교수	
		길원평 교수의 논문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에 대한 논찬	전요섭 교수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	이상현 교수	
		이상현 교수의 논문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에 대한 논찬	김일생 교수	
		구역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와 지도력에 관한 연구(III)	강사문 교수	
		칼빈주의적 미래 인간상	정성구 목사	
		신학적 해석학에서 본 과학	안명준 교수	
		게르만족의 침탈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응	이규철 목사	
제17권	2018.10.11	한국 군선교의 진전과 과제	이종윤, 이규철 목사	391면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	오덕교 교수	
		오덕교 박사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에 대한 논찬	주연중 목사	
		구역성경에 나타난 군 지도자들과 지도력에 관한 연구(IV)	강사문 교수	
		이스라엘 독립 70주년과 현대사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교회의 7대 신비	김진섭 교수	
		이슬람에 대한 루터의 염려	김성봉 교수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성직자와 여인들의 교제에 관한 교훈"에 담긴 어거스틴의 금욕적 자기관리	이규철 목사		
		PTSD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김상만 목사		
		국방부 군 종교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전요섭 교수		
		정의로운 전쟁의 윤리와 군선교	강찬영 군종목사		
제18권	2019.10.10	병역대체 복무제 진단과 기독교 입장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신학적 비판-	이중윤 목사	432면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에 관한 기독교 입장 : 양심인가? 종교적 신념인가?	김윤태 교수		
		김윤태 교수의 논문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에 관한 기독교 입장: 양심인가? 종교적 신념인가?"에 대한 논찬	김일수 교수		
		비전2020실천운동의 평가와 향후전망	정세준 군종목사		
		정세준 목사의 논문 "비전2020실천운동의 평가와 향후전망"에 대한 논찬	강찬영 군종목사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들과 그들의 지도력(V) -다윗 왕과 예언자 예레미야	강사문 교수		
		이슬람에 대한 칼뱅의 견해	김성봉 교수		
		"만유의 평화는 평온한 질서다"에 함축된 평화에 대한 어거스틴의 비전	이규철 목사		
		위기상담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김상만 목사		
		한국 군 군인가족의 영적 지지를 통한 목회상담	전요섭 교수		
		군선교의 공공성 회복과 그 과제	강찬영 군종목사		
		기획논문	양심적 병역거부주의에 대한 신학적 비판: 신학적 양심 이해를 중심으로		이규철 목사
		성평등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피해	길원평 교수		
		제19권	2020.11.13		비전2020실천운동지역의 선교적 평가와 전망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망	이정숙 교수				
이정숙의 논문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망"에 대한 논찬	최석환 군종목사				
군인의 종교의 자유와 군선교-군인의 선교의 자유와 종교중립의무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홍창식 변호사				

구분	발간일	논문 제목	제 출 자	총면수	
		홍창식의 논문 "군인의 종교의 자유와 군선교 -군인의 선교의 자유와 종교중립의무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김일수 장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진섭 교수		
		예술심리치료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김상만 목사		
		키릴로스의 세례교육	김선영 교수		
		남성 군종장교와 여성 군인	전요섭 교수		
	기획논문	구약성경이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 역대하 7:11-22, 특별히 13-14절이 제시하는 그 원인과 해법	김진섭 교수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제언 -군선교에 관한 이종윤 박사의 신학적 통찰을 중심으로	이규철 목사		
		화해의 공공신학과 군선교의 과제	강찬영 군종목사		
	일반논문	존 로스의 요한복음 7: 53-8: 11 삭제 비판 -성령의 조명을 중심으로	탁명진 목사		
	제20권	2021.10.26	진리란 무엇인가?		곽요셉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군 목회상담의 과제			전요섭 교수		
전요섭의 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군 목회상담의 과제"에 대한 논찬			강찬영 군종목사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임정인 군종목사		
임정인의 논문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찬			김이영 교수		
일반논문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시는가?	강사문 명예교수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하는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 영성	이규철 목사	
			이야기심리학의 이해와 군상담	김상만 목사	
			효과적인 군 상담을 위한 전인건강과 치유의 이해	전요섭 교수	
			사회적 책임(CSR, CSV)과 군선교의 과제	강찬영 군종목사	
제21권	2022.10.25	이 천국 복음	곽요셉	456면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시 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	이규철 목사		
		이규철의 논문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시 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논찬	이석영 군종목사		

구분	발간일	논문 제목	제 출 자	총면수
		육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와 전투 수행의 관계에서 군종목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임정민 군종목사	
		임정민의 논문 “육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와 전투 수행의 관계에서 군종목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논찬	전요섭 교수	
		성경적 종말론의 올바른 이해를 향한 개관 : 이스라엘과 교회 관계를 중심으로	김진섭 교수	
		전시 미군 군종활동을 통한 한국군 군종목사의 역할 정체성	전요섭 교수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에 담긴 함의	이규철 목사	
		MBTI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김상만 목사	
	일반 논문	정신역동이론을 통한 장병들의 집단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	윤상철 목사	
		Missio Dei에 대한 개혁주의 이해	이용락 목사	
		북한군 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사상 극복과 복음 수용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은성 목사	
제22권	2023.10.24	Words matter!	김철우 목사	280면
		평화를 이루는 한미 연합 전시 군종활동 강화 방안	주연종 목사	
		초기 성인기에 있는 용사들의 치유를 위한 목회적 돌봄	안남기 목사	
		안남기의 논문 “초기 성인기에 있는 용사들의 치유를 위한 목회적 돌봄”에 대한 논찬	김택조 목사	
		바이킹의 회심에 함유된 신학적 시사점	이규철 목사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	전요섭 교수	
	외국논문	Military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전요섭 교수	
	일반논문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본 군선교 전략 연구	오희준 목사	
		진정한 강군(強軍)이 되기 위한 군종의 역할	정대호 목사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 ㉔

군선교, 청년

1판 1쇄 발행 _ 2023년 10월 24일

발행처 _ 한국군선교신학회(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기관)

주소 _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0 101호

TEL _ 02-744-2662, 02-3675-2020

홈페이지 _ <http://www.meak.or.kr>

E-mail _ meak2661@naver.com

제작처 _ 콤란출판사

주소 _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

편집부 _ 745-1007, 745-1301~2, 743-1300

영업부 _ 747-1004, FAX 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 _ 0502-756-1004

홈페이지 _ <http://www.qumran.co.kr>

E-mail _ qrbooks@daum.net / qrbooks@gmail.com

한글인터넷주소 _ 콤란, 콤란출판사

등록 _ 제1-670호(1988.2.27)

제22권 군선교신학논문집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규철 목사

위 원: 이규철 목사, 전요섭 교수, 김상만 목사

담 당: 박종민 팀장

값 15,000원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파본(破本)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